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 부목 浮木

(浮木 翻譯論文)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중학과

김 옥

2022년 12월



## 제1장 가족

드디어 우리 온 가족을 담아

## 양루이(楊銳)에게

1955년 봄이었어. 엄마는 배가 불룩한 채로 햇볕을 쬐면서 삭바느질을 하고 계셨어. 옷을 만들고 헌 옷을 수선했으며 신발에 밑창을 대기도 하고 양말 밑창을 만들기도 했지(그때는 양말에도 밑창을 깔았다. 그렇게 하면 오래 신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엄마는 점심을 먹은 후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해 질 무렵에 너를 낳았어. 넌 엄마가 낳은 여섯 번째 아들이었고 내게는 제일 어린 남동생이었지. 아빠는 너의 이름을 양루이라 지으셨단다.

엄마는 너를 낳을 때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 단지 나에게 물을 끓이고 가위를 불에 데워 소독하라고 했어. 나는 엄마 옆에 서서 끓인 물을 대야에 담기만 했어. 그러다 너의 큰 울음소리를 듣고 너무 기뻐서. 하지만 엄마의 얼굴은 웃음기가 하나도 없었어. 큰 병에 걸렸다가 좀 회복된 사람처럼 창백하기만 했어. 엄마는 내가 건네준 따뜻한 수건을 받아 너의 몸을 몇 번이나 꼼꼼하게 닦아 주셨단다. 이때부터 너는 엄마의 사랑을 받는 아이였어. “아들아, 네가 세상에 온 게 때가 아닌 것 같구나.”라고 엄마가 혼자서 말하는 걸 들었어. 목소리는 슬프고 측은하셨지. 그때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엄마의 얼굴을 쳐다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어.

1955년에는 노동 점수가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었어. 노동력이 많은 집에는 받은 식량이 남아들었지만, 우리 집은 식구가 많아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엄마는 전족(裹腳) 때문에 가끔 밭일만 좀 했고, 나는 아직 나이가 14살밖에 안 됐고 여자아이였기 때문에 종일 설세 없이 일해도 노동 점수를 형편없이 적게 받았지. 그래서 우리 집은 식량이 다 떨어져서 받은 굶는 생활을 했단다. 다행히 큰오빠가 아껴 쓰면서 남긴 돈과 식량 배급표를 집으로 보내주었어. 근데 넌 큰오빠랑 한 번도 만나지를 못했구나. 큰오빠는 타지에서 글을 가르치고 있었기에 네가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보지 못했단다.

동생아, 너는 태어날 때 아주 작았단다. 그나마 엄마가 젖이 잘 나와서 다행이었지. 엄마가 마신 물 한 모금마저도 그 영양이 너에게로 전달됐을 거야. 그래서 너는 매우 빨리 컸단다. 한 달이 지나자 포동포동하게 살이 올랐어. 목까지 내려

온 검은 머리카락, 흑진주처럼 검은 눈동자, 그리고 새하얀 피부, 연뿌리 마디처럼 포동포동한 손과 발, 또 넌 너무 잘 웃어서 보는 사람마다 널 예뻐했었어. 위층에 사는 얼쥐(二菊)는 너를 보고 데려가서 자식으로 삼으려고 했어. 근데 전에 텐쓰(田四)를 남한테 줬다가 좋지 않은 일도 있었기 때문에 엄마는 두 번 다시는 아이를 남에게 줄 엄두를 내지 못했지. 죽더라도 함께 죽겠다 하시더라.

어른이 하루를 겨우 버티면 아이도 어른을 따라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날들이었지.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 네가 이미 자라 있더라. 넌 그때 어리니까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냈는지 알지 못했을 거야. 그래도 넌 사랑을 듬뿍 받았고 누구나 다 너를 사랑했어. 아빠는 건강이 안 좋으셔서 너를 안을 수 없었어. 대신 항상 너의 작은 발에 입을 맞추곤 했었지. 내가 익살맞은 표정을 짓든, 소 울음소리, 개 짖는 소리, 고양이 소리를 내든 너는 항상 까르르 웃었어.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함께 있었고 서로의 운명이 하나로 연결되었어. 너의 웃음소리 덕분에 우리 집은 많은 근심과 고뇌가 사라졌단다.

엄마는 전족으로 인해 논일은 할 수 없었고 따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었어. 그래서 거의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샅바느질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어. 나도 밤늦게까지 같이 일했어. 그러다 너무 졸려서 고개가 떨어지면 깜짝 놀라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을 했지. 엄마는 품삯을 따지지 않고 수선 일을 모두 맡으셨고, 쌀, 고구마, 채소, 땀감을 품삯 대신 받기도 했어. 그래도 여전히 한 끼 채우면 다음 끼니를 걱정하는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고 늘 쌀이 없어서 밥도 해 먹지 못했어.

어느 날, 어느 집에서 딸을 시집보낸다고 엄마에게 새 옷 만드는 일을 맡겼어. 아침밥을 먹고 나서 엄마는 “오늘 동생들을 데리고 좀 먼 곳에 놀러 가렴. 혼례복을 잘 만들어야 해. 맡긴 사람들 마음에 들어야 해서.”라고 하셨어. 엄마는 하얀 젓이 입가에 남아돌 정도로 널 배불리 먹인 후 넓은 포대기로 나에게 업혀주셨어. 여섯 살인 페이싼(賠三)<sup>1)</sup>은 세 살인 텐쓰의 손을 잡고 앞에서 걸었고 나는 그 뒤를 따라 출발했어.

햇볕이 따스하고 산들바람이 부는 오전이었어. 우리는 다리 밑으로 갔어. 다리 밑에는 우리가 사는 곳에서 평장(平江)으로 흐르는 제일 가까운 강이 있었는데 후난(湖南) 4대 강 중 하나인 상강(湘江)의 지류로서 집에서 2리가량 떨어져 있었어.

1) 뒤에 나오는 양관(楊寬)의 어릴 적 이름.

우리는 쉬엄쉬엄 산 사이의 오솔길을 따라 걸어갔어. 나는 내 등에 있는 너를 달래려고 가끔 너의 엉덩이를 토닥였어. 넌 나의 등에서 까르르 웃었고 우리는 매우 즐거웠단다.

강 위의 다리는 나무 네 개를 합쳐서 만든 거였어. 다리 넓이는 40센티미터 정도밖에 안 되어서 그 위를 걸을 때는 무서워서 떨릴 정도였고 자칫하면 강에 떨어질 위험도 있었어. 평장으로 가려면 반드시 그곳을 거쳐야 했어. 우리는 제방을 따라 다리 밑으로 내려갔어. 강가의 모래는 강물에 깨끗이 씻겨져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 모래는 부드러웠고 강물은 맑고 깨끗했으며 물결은 반짝반짝 빛났어. 모래밭에는 뻥뻥하게 자라난 푸른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 강변에서는 조개껍데기를 주울 수 있었고 물이 얇은 곳에는 작은 물고기가 무리를 지어 헤엄치고 있었어. 우리가 돌맹이를 던지자 물고기들은 놀라서 사방으로 흩어졌어. 그걸 보며 우리는 너무 즐거워했어. 좀 지나서 물고기들은 또 무리를 지었어. 작은 꼬리를 흔들며 헤엄치는 모습이 너무 우아해 보였어. 우리는 계속 돌맹이를 던지면서 장난을 쳤는데 즐거워서 피곤한 줄도 몰랐단다.

그러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다리 위를 쳐다봤는데 건장한 남자 한 명이 다리 위로 매우 빨리 달려오고 있는 거야. 다리가 엄청나게 흔들릴 정도로 진동이 컸어. 남자가 메고 있는 멜대 한쪽에는 갈색 끈이 감겨 있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얼마 전에 어른들 사이에서 전해졌던 말이 떠올랐어. 어린아이를 잡아가는 나쁜 사람들이 마을에 왔는데 어린아이를 잡으면 묶어서 깊은 숲속에 메어가 팔아버린다는 그 말이 떠올랐던 거야. 그 남자가 어린아이를 잡아가는 나쁜 사람인 것 같았어. 너무 무서워서 혼이 나갈 것만 같았어. 그래서 급히페이짖과 텐쓰에게 갈대에 찢리지 않게끔 눈을 감으라 한 후, 그들을 갈대숲에 밀어 넣었어. 나도 널 꼭 껴안고 갈대숲으로 들어가서 숨었어. 무서워서 숨도 크게 쉬지 못했지. 아마 한참 지나서였을 거야. 나는 갈대숲에서 천천히 기어 나와 다리 위를 쳐다봤는데 아까 그 남자가 큰 황소 한 마리를 끌고 빈 멜대를 어깨에 멘 채로 천천히 다리를 지나가고 있었어. 그제야 나는 문득 깨달았어. 그 남자는 달아난 황소를 잡으려고 뛰어왔던 거야.

나는 너를 안고 갈대숲에서 기어 나온 후 페이짖과 텐쓰의 손을 잡고 갈대숲에서 끄집어냈어. 우리의 머리에는 엄청나게 많은 풀이 붙어 있었어. 그걸 보고 너무 웃겨서 한참 웃다가 너를 앗힌 후 페이짖과 텐쓰의 머리에 붙은 풀들을 하나하나 떼어 냈지. 그리고 그 남자가 어린아이를 잡으러 온 사람이 아니고 소가

달아나서 소를 잡으러 달려간 것이라고 동생들에게 알려주었어.

그렇게 한번 놀라고 나니 정신이 없었어. 그래서 더는 놀고 싶지 않아 집에 가자고 했지. 나는 너를 꼭 안고서 오던 길을 따라 되돌아갔어. 그런데 다리가 계속 떨려서 잘 걸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걷다가 쉬고 걷다가 쉬고를 반복하면서 겨우 집에 도착했어.

다시 봄이 왔어. 초봄에는 날이 좀 싸늘해 얼굴과 손에 스치는 바람이 매우 차가웠어. 하루는 엄마가 푸씨 아줌마 집에 옷 만들러 가게 됐어. 넌 아직 젖을 떼지 않았는지라 나는 널 안고 엄마를 따라 함께 갔어. 아줌마는 품삯을 주는 대신 우리 셋의 하루 세끼를 책임지기로 했어.

옷 만들 때 쓰는 문 째은 안채에 있는 두 개의 긴 걸상 위에 놓여 있었어. 엄마는 일할 때 우리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안채에 들어가는 걸 막으셨어. 나는 널 데리고 탈곡장에 가서 놀았어. 너는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했고 두 손을 떼고 웃으면서 걸었는데 비틀거리는 모습이 오리처럼 귀여웠어. 나는 맞은편에서 널 기다리기도 하고 옆에서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기도 했으며, 어떤 때는 뒤에서 너의 멜빵바지의 멜빵을 살짝 잡아주기도 했어. 한참 걷다가 힘들었는지 나의 옷자락을 잡고 매달리면서 안아달라고 졸랐어.

하루가 지났어. 저녁밥을 먹은 후 엄마는 가위와 바느질하는 물건들을 챙기고, 나는 전처럼 너를 업고 집으로 향했어. 돌아가는 길에 넌 내 등에서 부르르 떨었어. 나는 “춥지? 양루이.”라고 물어봤지만, 넌 아직 아기여서 말할 줄을 몰랐지.

집에 도착한 후 넌 열도 나지 않았는데 기침부터 하기 시작했어.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해서 얼굴이 빨갱게 달아올랐고 숨도 잘 쉬지 못했어. 엄마는 여러 곳에 민간요법을 알아보러 다녔고 민간요법을 하나 알아 올 때마다, 우리는 기대를 했어. 그렇지만 민간요법을 하나씩 다 시도해봐도 효과를 보지 못했어. 너의 기침은 더욱 심해질 뿐 잦아들지 않았어. 그때 우리는 의사를 부르거나 약 살 돈이 없었어. 기침하면서 힘들어하는 널 바라보며 나는 어찌하면 좋을지 몰라서 너의 등을 두드려주거나 가슴을 문질러 주면서 너의 고통을 얼마라도 줄여주려고 했어. 밤에도 너는 기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나와 엄마는 번갈아 가면서 너를 안고 앉아있었어. 너의 장난감이 들어있는 서랍을 이불 위에 놓았는데, 장난감 중에 떨 수 있는 개구리는 누군가가 준 것이었고 형뿔으로 만든 인형은 엄마가 만든 것이었어. 인형의 머리카락은 검고 눈은 웃고 있었으며 얼굴에는 연지가 있었어. 그리고 아주 작은 장난감 상자가 몇 개 들어있었는데 너의 장난감은 그

게 전부였어. 사실 너는 계속 기침하다 보니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가 없었어. 고통스러워하는 너를 보는 나의 마음은 너무 아팠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었어.

기침을 시작한 지 19일째 되는 날 밤, 나는 여전히 엄마와 번갈아 가면서 너를 안고 있었어. 전보다는 기침이 줄어든 것 같기도 해서 나는 내 동생이 기침이 나을 줄 알았지. 그래서 기분도 좀 홀가분해졌고 계속 너의 부드러운 허리를 감싸고 있었어. 넌 나의 품에 꼭 안겨있었어. 그러다가 갑자기 눈을 뜨고 나를 쳐다보더니 다시 머리를 나의 품속으로 파묻었어. 나는 널 더 꼭 껴안았어. 너의 기침이 멎은 거야. 나는 너무 좋아서 엄마에게 알렸어. “엄마, 양루이가 기침을 안 해요. 다 나왔나 봐요.” 엄마는 매우 불안한 눈빛을 보이더니 손을 내밀어 숨을 쉬는지 확인하려 했어. 엄마의 손은 천근처럼 무거운 듯 부들부들 떨면서 너의 코앞에 닿았어. 그리고 엄마는 낮은 소리로 말했어. “내 아들, 결국은 죽었구나. 이런 날이 오게 될 줄 알았어.” 목소리가 너무 낮아서 거의 안 들릴 정도였어.

엄마는 나의 품에 있던 너를 건네받아 품에 꼭 껴안고 얼굴을 너의 볼에 갖다 댔어.

나는 멍하니 아무 생각이 없었어. 마음속에는 슬픔조차 없었고 심지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너를 위해 슬퍼하면서 울지도 않았어. 오히려 내가 고통에서 벗어난 것 같았어. 이젠 굶지 않아도 되니까 죽기보다 못한 굶주림을 겪을 일도 없겠구나 하고 생각했지.

날은 밝아지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지만 넌 더 이상 그걸 알 수 없었어. 너의 기침 소리가 사라진 집안은 너무 조용했어. 또 너의 기침 소리가 안 들리니 집안이 너무 허전하게 느껴졌어. 아빠는 문짝을 하나 뜯어서 너를 그 위에 올려놓았어. 문짝 위에 조용히 누워있는 너는 잠을 자는 듯 고통이 없어 보였어. 나는 너의 옆에 앉아있었는데 손에는 신발 한 짝을 들고 있었어. 슬프지 않았어. 전혀 슬프지 않았어. 그저 여전히 살기 위해 애쓰고 있었어.

아빠는 마침내 관으로 쓸 나무상자를 다 만들었어. 그리고 마치 네가 깨어나기라도 할 것처럼 너를 조심스럽게 안아서 나무상자 안에 넣었지. 그리고 뚜껑을 닫고 못을 박은 후 상자를 안고 집 옆의 산으로 걸어갔어. 나는 썩이를 들고 그 뒤를 따라갔어.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어.

상자를 품에 안은 채 풀더미에 앉아있는 아빠의 안색은 너무 처참해서 차마 볼 수가 없었어. 내가 구덩이를 파고 난 뒤 아빠는 나무 상자를 구덩이 안에 넣



있어. 너의 작은 집에 흠을 뿌리는 순간(그것을 너의 작은 집이라고 생각했어. 이후 넌 계속 거기서 살아야 하니까) 내 가슴은 산산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어. 흠날리는 흠처럼 말이야. 그래도 난 울지 않았어.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은 통곡하는 것보다도 더더욱 고통스러웠어. 내 심장을 한 입 또 한 입 삼키는 그런 느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었어.

온 가족은 아침밥도 먹지 않고 서리에 얼어서 상한 풀처럼 무거운 머리를 축 늘어뜨리고 있었어.

1958년 우리 집은 어쩔 수 없이 위자충(魚家衝) 마을로 옮겨가게 되었어. 이사 가기 전에 난 너를 보러 갔었어. 너의 작은 무덤은 더 낮아지고 작아져 있었어. 나는 다시 집에 돌아가 꿩이를 가져다 너에게 흠을 덮어주었어. 그것이 이사 가기 전에 널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어.

위자충 마을의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 탈곡장에 모여 앉아 바람을 쐬곤 했어. 몇몇 서너 살 되는 애들이 거기에서 뛰놀고 있었어. 엄마는 한 아이를 가리키며 “양루이가 살아 있다면 저 애만큼 컸을 거야.”라고 했어. 나는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어. 동생아, 우리는 항상 널 기억해.

동생아, 황천길에는 나이가 따로 없다지만 넌 이 세상에 너무 성급히 다녀갔구나. 이 누나랑 한마디 말도 못 했잖아. 글을 써 내려가다 보니 마치 오랜 꿈속인 것 같아. 아련한 꿈이지만 나는 우리가 다시 만날 것만 같아. 우리는 서로 부둥켜안고 오래오래 헤어지지 않을 거야. 그런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 텐쓰(田四)

—

텐쓰가 네 살이 넘었을 때, 한번은 감기에 걸려 열이 내리지 않았는데 약이 없어서 민간요법으로 열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낡은 흠집의 벽, 진흙으로 된 벽돌과 벽돌 사이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구멍이 여기저기 생기기 마련인데 말벌이 그 구멍 안에 벌집을 짓곤 한다. 말벌의 집은 매우 가지런하게 지어져 있어 마치 고구마나 무를 썬 채칼처럼 칸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다. 보통 두 줄이고

겹쳐져 있으며 한 줄에 칸이 네 개 아니면 다섯 개가 있다. 칸 안은 뚫리지 않고 막혀있다. 벽 구멍에서 조심스레 벌집을 뽑아내어 안에 있는 말벌의 날개나 죽은 말벌을 쏟아낸 후 생강을 성냥개비만큼 가늘게, 길이는 7~8센티미터 정도로 썰어서 넣으면 말벌집 구멍에 꼭 알맞다. 그리고 말벌집과 생강을 함께 아궁이에 넣고 빨갛게 달군 후 끓인 물에 담근다. 이런 민간요법이 때로는 효과가 있었다.

기억으론 내가 당시 찾아낸 벌집이 다섯 개였는데 어머니는 매번 벌집을 달군 후 끓인 물에 담가서 텐쓰에게 마시게 했다.

하지만 밤이 되었는데도 텐쓰는 여전히 열이 내리지 않았다. 달빛이 나무 창에서 안으로 비쳐 들어와 낮처럼 밝았다. 어머니는 텐쓰를 안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끊임없이 중얼거렸다. “나무아미타불, 자비로운 관세음보살님, 우리 텐쓰를 구해주세요.”

밤이 깊어지자 텐쓰는 온몸에 경련을 일으켰다. 이를 악물고, 주먹을 쥐고, 눈이 뒤집혀 인사불성이 되어 아무리 불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어머니는 얼른 인종을 눌렀다. 그러자 텐쓰는 서서히 눈을 뜨더니 낮은 소리로 어머니를 불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텐쓰는 또다시 경련을 일으켰는데, 이번에는 연속 세 번을 반복했다. 텐쓰를 세 번째 살린 후, 어머니는 이대로 있다가는 텐쓰가 죽을 것이라고 했다. 온 가족이 칼날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일분일초를 견디기 힘들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나무아미타불, 자비로운 관세음보살님, 우리 텐쓰를 구해주세요.” 멈추지 않고 빌고 또 빌었다.

나는 갑자기 방법이 생각났다. 텐쓰가 죽는 걸 보고 있을 수만 없으니 이창(一昌) 선생을 모셔오겠다고 어머니께 말했다.

이창 선생은 의사였으며 우리 집과도 대대로 친분이 있었다.

어머니는 “안돼. 이 야밤에, 열네 살밖에 안 되는 여자애가, 얼마나 위험한데 그래? 넌 살아야지, 한 명이라도 살고 봐야지.”라고 했다.

“어머니, 아버지는 발목이 상해서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셋째 동생은 나보다 여덟 살이나 어린데 제가 안 가면 누가 가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기도 전에 나는 문밖을 뛰쳐나와 날아갈 듯이 논밭 사이의 작은 길을 지나 산길로 향했다. 모래가 섞인 황톳길을 밟고 지나갈 때는 소리가 좀 났는데 자꾸 누가 뒤에서 따라오는 것만 같았다. 숲 쪽에서도 가끔 소리가 울려 나왔는데, 야생동물이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것만 같아 자꾸만 가슴이 두근

거렸다.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가자! 꼭 텐쓰를 구해야 해!

겨우 산길을 지난 후 또 밭길로 향했다. 밭 끝에는 경사진 언덕이 있는데 언덕 위에는 오두막집이 하나 있었다. 그 집안에는 빙썸 할머니가 홀로 살고 계셨다.

예순이 넘는 할머니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키는 작고 몸은 말라서 딱 봐도 불쌍한 사람이었다. 정부에서는 밭 20마지기를 할머니에게 나눠줬는데 할머니는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맡겼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리저리 이웃들 집에 다니면서 중매를 서며 생활비를 좀 벌기도 했다. 할머니는 자주 우리 집 앞을 지나갔는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할머니를 집에 불러 잠시 쉬었다 가게 했다. 그리고 콩과 깨로 만든 차 한 잔을 드리곤 했다. 그렇게 자주 만나다 보니 사이가 좋아졌다.

할머니의 오두막집에서 대략 400미터 떨어진 곳에 꽤 큰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연못가에는 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연못 옆에는 어른들도 안을 수 없을 만큼 굵은 단풍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단풍나무는 너무 오래되어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도 나무가 몇 살인지 몰랐다. 단풍나무는 가운데서부터 위로 구멍이 하나 있는데 구멍의 길이는 70센티미터 정도 되고 넓이는 30센티미터 정도였다. 전해져 내려온 말로는 그 안에 뱀 요괴가 살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연못에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가 빠져 죽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밤이 되면 물귀신들은 바람을 쐬러 물속에서 연못가로 올라오는데, 사람들은 그 옆을 지나갈 때면 귀신들이 풍당풍당 연못에 뛰어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자 무서워서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텐쓰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빨리 이창 선생을 모셔와야겠다는 생각에 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이제 대여섯 걸음 혹은 열 걸음만 내디디면 나무 밑까지 가게 된다. 나는 뱀 요괴가 사는 단풍나무를 보다가 또 물귀신들이 드나드는 수면을 보면서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살금살금, 더 살금살금, 뱀 요괴와 물귀신한테 들키지 말아야지. 바로 그때, 갑자기, 한순간에, 하늘은 마치 커다란 솔로 덮인 것처럼 캄캄하게 변해 눈앞이 완전히 보이지 않았다.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어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또 한순간에, 기다란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대지를 밝게 비췄다. 나는 그 틈을 타서 앞으로 뛰어갔다. 이제 곧 단풍나무 가까이에 가게 될 무렵, 갑자기 천둥소리와 평하는 큰 소리가 연이어 들렸다. 산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것만 같았다. 알고

보니 큰 단풍나무가 쓰러져서 눈앞에 작은 산처럼 가로 놓여 있었다. 폭우가 얼굴에 쏟아져 눈을 뜰 수 없었고 빗물은 머리에서부터 목으로 흘러내렸다. 넘어진 단풍나무의 큰 잎사귀가 폭우에 맞아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는데 마치 귀신들이 나를 향해 깃발을 흔드는 것만 같았다. 나는 온몸이 떨렸다. 귀신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지만, 귀신이 무서웠다.

나는 달팽이처럼 주춤주춤 더듬으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마침내 할머니 집 앞에 이르러 문을 두드렸다. 그런데 할머니가 문을 열더니 물귀신이 온 줄 알고 깜짝 놀라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정말로 물귀신처럼 온몸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사람들 말에 따르면 물귀신이 바로 그 모양이란단다.

그래서 나는 재빨리 말했다. 저는 즈화(之驥)예요! 할머니는 그제야 나를 집으로 들였다. 그리고 두 곳이나 형겅을 대고 꿰맨 낡은 옷옷과 바지를 가져다 나더러 갈아입으라고 했다. 또 얇은 판자만큼 딱딱한 수건을 가져다 머리를 닦게 한 후 빨리 침대에 가서 자라고 했다. 그리고 할머니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네 엄마도 너무하시다. 아들은 사람이고 딸은 사람 아니래? 남존여비 사상이구먼.”

그 말을 들은 나는 어머니가 오해받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걱정하실 거라고 집에 돌아가겠다고 했다.

그러자 할머니는 “길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돌아가려고? 수탉이 아직 울지도 않았어. 아직도 한밤중이야. 빨리 한잠 자. 내일 날이 밝아지면 돌아가.”라고 했다.

그제야 나는 졸음을 느꼈다. 밤새도록 눈을 붙이지 못한 나는 할머니 이불 속에 기어들어 가 잠시 후에 잠들었다. 잠에서 깬 때 날은 이미 흰히 밝아 있었다. 나는 젖은 옷을 안고 할머니께 인사를 한 후 날아갈 듯이 뛰기 시작했다. 텐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길에는 물이 여기저기 고여있었고 안개가 자욱했으며 나뭇잎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집 문 앞에 다다른 나는 문을 밀고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너무나 두려웠다. 텐쓰가 죽었을까 봐 두려워서 심장이 가슴에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나는 숨을 참고 문에 붙어 방안의 동정을 살폈다. 다행히 어머니의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문을 밀고 들어가 보니 텐쓰는 어머니의 오른팔을 베고 어머니와 함께 잠들어 있었다. 그제야 마음이 놓였다. 눈조차 제대로 못 뜨는 어머니의 지친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어머니, 빨리 주무세요. 저는 빙씨 할머니 집에서 한숨 푹 잤어

요.”라고 말했다.

어머니 방에서 나오니 벽에 걸려있는 깨진 거울이 보였다. 나는 얼른 걸어가서 거울을 들여다봤다. 할머니 옷을 입었지만, 할머니 모습이 아니어서 다행이었다. 여전히 내 모습이었다. 그래서 혼자 웃었다.

나중에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알게 되었는데 그날 내가 집에서 나간 후 어머니는 가까이에 사는 목수 유씨 아저씨를 데려왔다. 아저씨는 사람이 좋았고 병을 고치기도 했다. 아저씨가 집에 와서 앉기도 전에 텐쓰는 네 번째 경련을 일으켰다. 아저씨는 텐쓰가 혀를 깨물지 못하도록 입에 젓가락을 넣은 후 신발 밑창에 사용하는 바늘로 텐쓰의 혀를 찼다. 그랬더니 보는 이가 무서울 정도로 혀에서 새빨간 피가 흘러나와 입안을 가득 채웠다. 아저씨는 “될 수 있을지 정말 모르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볼게요.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네요.”라고 말했다.

텐쓰는 완전히 나왔다. 초승달같이 눈웃음을 짓는 그의 얼굴이 흰칠했다.

## 二

1960년, 아버지는 굶주림으로 인해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두 아들을 키우려고 고향을 떠나 후베이(湖北)로 갔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바로 한번도 물장난을 한 적이 없었던 텐쓰가 열다섯 살 되던 해에 후베이의 마커우(馬口)강에서 익사하여 짧은 일생을 마친 것이다.

유품을 정리할 때, 셋째 동생은 넷째 동생이 남긴 두툼한 일기장을 발견했다. 16절로, 공책에 시와 사, 그리고 대련이 뺄뺄하게 베껴져 있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종유천층철문함(縱有千層鐵門檻), 종수일개토만두(終須一個土饅頭<sup>2)</sup>”, 그리고 또 “대주당가(對酒當歌), 인생기하(人生幾何), 비여조노(譬如朝露), 거일고다(去日苦多<sup>3)</sup>”, “인생재세불칭의(人生在世不稱意), 하부산발농편주(何不散發弄扁舟<sup>4)</sup>)”……, 그런 것들이었다.

열네댓 살밖에 안 되는 소년이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까지 비관할까? 그러나 또 다른 시구 대련은 뜻이 완전히 반대였다. 예를 들면 “장풍파랑회유시(長風破

2) 사람이 오래오래 이름을 날리며 살아도, 죽으면 결국 흙 만두 같은 봉분이 된다. (속담)

3) 조조(曹操)의 《단가행(短歌行)》의 한 구절. 술 마시며 노래하세, 우리네 인생 살면 얼마나 산다고! 아침 이슬과 같은 우리네 인생, 흘러 가버린 세월 아까울 사.

4) 이백(李白)의 《선주사조루전별교서숙운(宣州謝朓樓餞別校書叔雲)》의 한 구절. 세상사 마음대로 되지 않느니, 차라리 머리 풀고 조각배 타고 떠나는게 좋지 않을까.

浪會有時), 직괘운범제창해(直掛雲帆濟滄海)<sup>5)</sup>”, “생당작인걸(生當作人傑), 사역위귀웅(死亦爲鬼雄)<sup>6)</sup>”, “임풍무검욕위악무목(臨風舞劍欲爲岳武穆), 파주음시원작두습유(把酒吟詩願作杜拾遺)<sup>7)</sup>” …….

셋째 동생 양관(楊寬)과 넷째 동생 텐쓰는 겨우 두 살 차이였고 어려서부터 함께 놀았다. 같이 장작을 패고,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진흙으로 옛 인물의 모습을 빚고……. 텐쓰가 어머니를 따라서 후베이로 간 후 둘은 오랫동안 편지를 주고받았다. 시간이 흘러 우리 모두 나이가 든 후, 나와 셋째 동생은 텐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셋째 동생은 종종 텐쓰가 살아 있는 꿈을 꾸었다고 했다. 꿈에서 고기잡이 노인이 텐쓰를 구해 집으로 데려왔고, 우리 형제자매는 나중에 다시 모였다고 했다. 셋째 동생은 이 꿈을 여러 번 꾸었다고 했다. 자고 일어나면 이불 한 귀퉁이가 젖어있었고 창밖에는 시원한 달빛이 보였으며 바깥에서 힘찬 산바람 소리가 들려왔다고 했다.

### 三

어머니는 66세에 후난으로 돌아왔다. 텐쓰가 죽은 지 오래됐지만, 마음속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은 어머니는 후난으로 돌아오자마자 여기저기 점쟁이를 수소문했는데, 뜻밖에도 집에서 30여 리 떨어진 평장에 점쟁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는 빙씨 할머니와 함께 아침 일찍 출발하여 마침내 점쟁이를 찾았다.

점쟁이는 흰 수염을 기르고 있었으며 파리하고 마른 모습으로 도사의 풍모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텐쓰의 사주를 알려주자 점쟁이는 손가락을 꼽으며 어머니에게 “어르신이 이러시면 안 되죠. 저보고 죽은 사람의 사주를 보라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말했다. “선생님, 저를 닦하지 마세요. 아들이 너무 그리워서 그랬어요. 후난에서 굶어 죽을까 봐 후베이까지 데리고 갔는데, 그렇게 착한 아들이 한 번도 물놀이를 한 적이 없었는데 글썽 열다섯 살에 물에

5) 이백(李白)의 《행로난·기일(行路難·其一)》의 한 구절. 멀리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이 물결을 일으키는 때가 반드시 있으려니, 직접 협력 관계를 맺고 멀리 구름 사이로 보이는 배로 넓고 큰 바다를 건너세나!

6) 이청조(李清照)의 《하일절구(夏日絕句)》의 한구절. 살아서 응당 인중 호걸이 되어야 하고 죽어서도 귀신 중의 영웅이 되려 했다.

7) 바람을 맞으며 검무를 추려 악무목이 되려 하고, 술을 시로 읊으며 두보가 되려 한다. (소원을 담은 작가의 글)

빠져 죽었어요. 아들이 꼭 죽어야만 했는지요? 선생님께 여쭙보려고 여기까지 찾아 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선생님은 “이렇게 슬퍼하시는데 어떻게 탓하겠어요. 원래는 어르신 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잘못 태어났어요. 네다섯 살 때 죽어야 했는데 어르신 과의 정이 깊어서 함께 10년을 더 살았을 뿐이에요. 어르신, 슬퍼하지 마세요. 아드님은 이미 환생했어요. 어차피 어르신보다 먼저 죽을 운명이었고, 붙잡을 수 없는 운명이었어요. 수명은 하늘이 정해 놓은 것이니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어찌 할 도리가 없어요.”라고 했다.

점쟁이가 몇 마디 더 위로해 주자 어머니는 고맙다고 인사를 한 후 돈을 내고 할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점쟁이가 했던 말들을 오빠에게 들려 주었는데 온 가족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다. 그 후에도 그 일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 나눴지만, 여전히 불가사의한 일로 남아있다.

## 오빠

—

1948년의 중추절, 여동생 시잉(夕瑩)이 급성 이질로 죽었다. 그때 오빠는 학교 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다녀갔다. 그 토요일, 오빠는 돌아오는 길에 비를 맞아 집에 도착하자마자 물 한 통을 떠서 급하게 발을 씻으러 갔다. 내가 오빠를 따라가자 오빠가 말했다.

“시잉 어디 갔어? 개 왜 안 보이지? 나 사탕 샀어. 이따가 같이 먹어.”

“시잉 죽었어.”

“뭐라고!”

오빠는 발을 씻던 대야를 팽개치고 어찌 된 일인지 나에게 물었다. 그리고 즉시 시잉의 무덤으로 데려가 달라고 했다. 그 작은 무덤 앞에 이르자 오빠는 울부 짖으며 두 손으로 무덤 위의 진흙을 필사적으로 파내기 시작했다. 잠깐 사이에 오빠의 손가락에서 피가 났다. 그래도 오빠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잉을 꼭 한 번 더 보겠다는 일념으로 계속 흙을 파내려고 애썼다. 나는 흐느껴 울면서 뒤에서

오빠를 끌어안고 계속하지 못하게 막았다.

1932년 난징(南京)에서 태어난 오빠는 다섯 살에 부모를 따라 후난의 시골에 내려갔다. 열두 살에 집을 떠나 공부하러 갔는데, 오빠가 열여섯 살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집에서 학비를 보낼 수가 없었다. 그때 마침 향 정부에서 문서 담당자가 필요해서 오빠는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 후 공군에 합격했지만, 어머니에게 발목을 잡혀서 가지 못했고 동북중공업 통계부서에 합격하고도 가지 못했다.

향 정부에서 일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의사와 교사를 모집하는 공고가 나왔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어느 세대에나 의사와 교사가 필요한 것이기에 둘 다 최고의 직업이었다. 의학을 배우려면 수년이 걸려야 배울 수 있었는데 우리 집에서는 학비를 낼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사범학교에 다니면 곧 졸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빠는 사범학교에 입학했다. 그리고 열아홉 살 되던 해에 시골 교사가 되어 평생 교사로 일했다.

열아홉 살인 오빠는 집에서 20리 떨어진 양씨 마을의 사당 초등학교에서 글을 가르쳤다.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오후 오빠는 번개처럼 이 길을 달렸다. 집과 학교 사이에는 논둑길이 있었는데 논둑길 양쪽은 다 논이었다. 어느 날 오빠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바짓가랑이가 거의 무릎까지 젖어있었다. 바짓가랑이를 높이 걸어 올리고 신발은 손에 쥔 채 맨발로 걸어왔었다. 결국, 어머니에게 들키고 말았다. 어머니는 “나이가 얼마인데 물놀이를 해?”라고 했다.

“물놀이를 한 게 아니라 양수기를 만났어요. 마침 지나가다가 바짓가랑이를 적셨어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너도 너무 착한 거 아니야? 좀 멈춰 달라고 하지. 네가 지나간 후에 다시 물을 뿌리면 되잖아.”라고 했다.

나는 오빠와 함께 땀감을 구하러 산에 올라갔다. 그제야 오빠는 얼굴을 붉히며 내게 말했다. 그 밭고랑 길에는 세 명의 아가씨가 매일 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오빠가 지나갈 때면 장난을 치면서, 일부러 물을 튀겨 지나가지 못하게 했다.

나는 몰래 그 일을 어머니에게 알렸다. 그래서 어머니는 “네가 가서 오빠를 배웅해. 그들이 네 오빠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함 봐.”라고 했다.

일요일 오후에 오빠는 학교로 돌아가게 되었다. 나는 “오빠, 내가 데려다줄게. 나도 그 세 아가씨를 보고 싶어.”라고 오빠에게 말했다.

길을 반쯤 걸었더니 오빠는 거의 다 왔다고 했다.



나는 걸음을 늦추고 일부러 오빠 뒤에 멀리 떨어져서 걸었다. 오빠는 앞에서 계속 걸었다. 오빠가 나타나자마자 세 아가씨는 야생마처럼 밭에서 뛰어나와 아무렇지도 않게 물보라를 사방으로 튀겼다. 그녀들은 오빠에게 소리쳤다. “진짜 잘생겼어! 저렇게 잘생긴 남자 처음 봐. 그렇게 서두르지 말고, 얼굴 좀 보여주고 가요.”

그리고 막내를 꼬드겼다. “셋째야, 빨리 저 남자랑 사귀어. 너는 예쁘니까 저 남자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오빠는 두 발에 바퀴라도 달린 듯 빨리 달아났다. 그녀들은 오빠 뒤에서 웃고 떠들면서 그 말을 되풀이했다. “저렇게 잘생긴 남자는 처음 보는데!”

나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오빠를 뒤쫓아가서 말했다. “오빠, 재네가 오빠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놀리지 마, 나는 재들이 무서워죽겠어. 토요일과 일요일만 되면 재들 장난치는 것 때문에 힘들어.”

또 오빠가 집에 돌아오는 토요일이 되었다. 나는 오빠가 또 바짓가랑이가 젖어서 집에 올까 봐 데리러 나갔다. 그 밭고랑 길에 이르렀을 때, 밭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조금 더 가니 오빠를 만났다.

오빠는 나에게 물었다. “그들 봤어?” 그래서 나는 못 봤다고 하고 오빠 옆에 붙어서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세 아가씨가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쫓아오지 않았다. 그 중 한 명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여동생인가 봐, 많이 닮았네.”

나는 궁금해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세 아가씨는 모두 검은 옷과 검은 바지의 남자 복장을 하고 있었다. 만이는 기껏해야 2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왼쪽 눈이 약간 사시여서 조금 흠이 있는 얼굴이었다. 둘째와 셋째의 얼굴은 다 예뻐다. 셋째는 열여섯 살 정도로 보였는데 들꽃처럼 싱그럽고 아름다웠다.

“저 아가씨들 괜찮지 않아? 혹시 저 가운데 오빠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 누군가를 보내서 혼담을 꺼내 봐. 어찌면 사랑이 이루어질지도 모르잖아.” 나는 웃으면서 오빠에게 말했다.

그러자 오빠는 “웃기지 마, 사랑은 뭐 사랑이야. 기회가 되면 공부도 하고 대학도 가고 싶어. 그런데 저 아가씨들 참 대단하다. 쟁기질, 씨레질, 모내기, 벼베기 모두 아가씨들이 직접 하잖아. 설마 재네 집에 남자 일꾼이 없는 걸까?”라고 했다.

오빠는 매우 잘생겼다. 하얀 피부는 어머니를, 반듯한 얼굴은 아버지를 닮았다. 또한, 구레나룻이 있어 볼이 파릇파릇하게 깎여 있는 것도 잘생김을 더했다. 오빠는 젊고 건장하며 어수룩하고 수줍음이 많았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장면은 아마도 오빠의 험난한 인생에서의 모처럼 즐거운 에피소드였던 것 같다.

## 二

오빠는 교사직을 몇 년 한 후 교도 주임이 되었다. 선비 기질이 흘러넘치는 오빠는 어쩌다가 인민공사의 부사장인 리씨의 미움을 샀다.

부사장의 조카는 민영학교 교사로 오빠의 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는데 글자도 몇 개 아는 게 없으면서 선생님 행세를 하고 다녔다. 하루는 학생들이 오빠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이 ‘후이천(灰塵)’을 ‘후이젠(灰尖)’으로 읽었고 ‘과지(髮髻)’를 ‘과구(發古)’로 읽었으며 ‘원푸(孕婦)’를 ‘나이푸(奶婦)’로 읽었다고 한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학생들이 ‘치서우바자오(七手八腳)<sup>8)</sup>’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에게 묻자 그는 “이 단어의 뜻은 말이야, 사람 네 명이 함께 있는데 한 명은 장애인이어서 손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손 일곱 개와 발 여덟 개 아니겠어?”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 말을 들은 오빠는 똥파리를 삼킨 것처럼 역겨웠다. 어느 날, 두 사람만 있는 틈을 타서 오빠는 그에게 말했다. “저녁에 수업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잘 모르는 글자가 있으면 사전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의 자식을 망치면 안 되죠!”라고 한마디 덧붙였다.

그 이후 리씨 부사장은 오빠를 만나면 예전처럼 웃으면서 인사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목을 높이 쳐들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빠는 집에서 더 멀리 떨어진 학교에 진출되었다.

더욱 큰 고난은 그 뒤에서 오빠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빠는 그림 그리기와 서예를 좋아했다. 어느 날 인민공사에서 칠판에 벽보를 내라고 오빠를 불렀다. 누군가가 오빠더러 칠판에 주석 상을 그리라고 했다. 오빠가 그린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다 잘 그렸다고 했지만 리씨 부사장만 입이 너무 크다고 다시 입을 작게 그리라고 했다. 오빠는 고치지 않으려 했다. 작은 것

8) ‘여러 사람이 합세하여 많은 일손으로 바쁘게 일하다.’라는 뜻이다.

을 크게 고칠 수는 있지만 큰 것을 작게 고칠 수는 없다고 했다. 고치면 고칠수록 커진다고 했다.

부사장은 버럭 화가 나서 오빠가 지도자의 형상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죄명이었다. 그때가 바로 1966년 ‘문화대혁명’ 초기인지라 조반파(造反派)<sup>9)</sup>는 바로 오빠를 ‘반동분자’로 몰아붙였다.

그런 상황에서 오빠는 텐쓰가 익사했다는 소식을 담은 어머니의 편지를 받았다. 오빠는 정말 괴로워했다. 지난 몇 년간 가족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머니는 후배이로 떠돌고, 여동생은 장시(江西)로 달아났으며, 지금 텐쓰는 익사했고, 셋째 동생은 학업을 중단했으며, 아버지, 시잉, 양루이는 이미 비참하게 죽었다. 그야말로 집안이 풍비박산된 것이다. 게다가 이제 자신은 또 ‘반동분자’로까지 몰리게 됐다. 아무리 의지가 굳센 사나이로 해도 그런 충격을 받으면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오빠는 구레나룻이 있었는데 수영이 너무 빨리 자라서 사흘 동안 면도하지 않으면 얼굴이 수영에 뒤덮여 마르크스 같았다. 그래서 오빠는 평소에 구식 면도칼을 반질반질하게 갈아서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

오빠는 그 면도칼을 손에 쥐고 문지르면서 매일 삶과 죽음의 문턱에서 허덕이고 있었다.

어느 날, 조반파가 오빠 머리카락의 반을 밀려고 했다. 오빠는 갑자기 용기를 내어 재빨리 주머니에서 접힌 면도칼을 꺼내어 단번에 켜었다. “‘반동분자’는 사람이 아니야? 모욕하지 마라! 누구든 내 머리를 깎기만 해봐! 같이 죽어 버릴 테니! 배짱이 있으면 한번 해봐!”

오빠의 두 눈은 불을 뿜을 것 같았고,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컸다. 오빠는 그 상황에서 정말 남과 필사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조반파는 정말 꼼짝하지도 못했다. 오빠의 머리를 깎을 엄두도 못 냈다. 그리고 오빠와 친했던 선생님을 데려와 온종일 오빠를 따라다니게 했다. 사람이 죽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낮에 ‘반동분자’들에게 일을 시키고 밤이 되면 차륜전술(車輪戰術)<sup>10)</sup>로 밤새워 범행을 자백하도록 강요했다. 오빠는 자신의 사상과 언행을 철저히 자백하여 설명하고 당에 충성을 표명했으나 그 난관을 넘기지 못했다. 오빠는 몇 년 전에 썼던 아무도 모르는 시 한 편까지도 들추어내며 조속히 해방되기를 원했다.

9) 중국 문화 대혁명 때 주자파(走資派)에 반대한 군중 조직 또는 그 조직에 참가한 사람.

10) 여러 사람이 번갈아 한 사람을 공격하여 지치게 하는 전술.

시는 이런 것이었다.

분필생애주십춘, 연화허도배상심. (粉筆生涯足十春, 年華虛度倍傷心。)  
유지문장성포영, 무단골육임표령. (有志文章成泡影, 無端骨肉任飄零。)  
단원제생근학업, 차빙조물주부침. (但願諸生勤學業, 且憑造物主浮沉。)  
연연강작아동낙, 도파한수부수빈. (年年強作兒童樂, 都把閒愁付水濱。)<sup>11)</sup>

조반파들은 이 시를 빌미로 오빠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 이 시가 반동언론이  
고 사회주의에 대한 불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오빠는 결국 소위 반동분자라는 죄명으로 교사 자리에서 내쫓겨 농촌으로 돌  
아가 노동 개조를 받아야만 했다.

### 三

이때 셋째 동생 양관(楊寬)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  
었다. 책을 읽는 일이 양관에게는 너무 익숙한 일이었다. 셋째 동생은 기억력이  
뛰어났고 그림 그리기에 소질이 있었다. 게다가 시험은 줄곧 현 내에서 일등이었  
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면 향 정부에서 발급한 가족 구성원 증명서를 제공해야  
했다. 보슬비가 내리는 어느 날, 양관은 노란 방수포를 쓰고 증명서를 발급받으  
러 향 정부에 갔다. 향 정부 입구에 이르자 지바오성(季寶生)과 마주쳤다. “양관,  
여긴 왜 왔어?”

“향 정부에 증명서 발급받으러 왔어요.” 양관은 솔직하게 말했다.

지바오성은 양관을 따라 향 정부 사무실로 들어갔다. 양관이 안에 있는 젊은  
사무원에게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자 지바오성은 “이 집안의 상황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어. 증명서는 내가 써줄게.”라고 나서며 말했다. 그 사무원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 지바오성은 다른 방으로 들어가더니 누런 봉투로 편지 한  
통을 단단히 봉인한 후 양관에게 주면서 열어보지 말고 학교에 직접 제출하라고

11) 글을 가르친 지가 십 년이 되는데, 세월을 헛되이 보낸 것 같아 더욱 슬프다. 포부가 있는 글은  
물거품이 되고, 혈육은 이유 없이 떠돌아다닌다. 다만 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하고 조물주에 의해  
부침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해마다 억지로 어린이를 놀이를 하면서 쓸데없는 근심을 물가에 떨쳐 버  
린다.

지시했다.

양관은 돌아가는 길에 일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우산 쓰는 것도 잊은 채 빨리 집으로 뛰어가 오빠를 만나고 싶었다. 증명서를 발급받은 과정을 오빠에게 들려주자 오빠는 말했다. “그놈이 결코 좋게 써줄 리가 없어. 보지 말라고 하면 기필코 봐야 해.” 그리고 봉투를 뜯어 보았다. 편지를 펼쳐보니 위에는 ‘본 학생의 아버지는 예전에 관리였고, 형은 반동분자이며, 어머니는 후베이성으로 누나는 장시성으로 도망쳤으며 온 가족은 사회에 대한 불만과 반동사상을 품고 있다.’라고 적혀 있었다.

닭 발자국 같이 쓰인 그 편지에는 우리 집안의 험담이 다 담겨 있었다. 그런 증명서를 제출하면 양관이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을 리 있겠는가?

오빠는 편지를 갈기갈기 찢었다. 새파랗게 질린 얼굴빛은 너무 무서웠다.

양관은 중학교 졸업장도 받지 못한 채 학교를 떠났다. 원래 양관은 모든 정신을 공부에 집중했었다. 학자, 화가, 작가가 되고 싶었고 자신감이 넘쳤으며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다. 양관은 기운을 잃은 채 머리를 푹 숙이고 발을 땅에 질질 끌면서 걸었다. 양관은 성미가 예민해져 툭 하면 오빠한테 화를 내거나 발광했다. 이유 없이 화내는 동생 때문에 오빠는 매우 힘들어했다. 자신도 정신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데다가 동생으로 인한 괴로움까지 더해져 오빠는 늘 밤잠을 설치곤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빠는 양관을 후베이성 어머니 집에 한동안 머물게 하기로 했다. 동생에게 어머니를 모시라고 했지만 사실 어머니에게 동생을 맡긴 셈이다.

#### 四

계속 이대로 살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한 오빠는 도망가기로 했다.

늦가을 어느 저녁, 오빠는 가까스로 그와 친한 시골의 쉬밍더(許明德) 의사를 만났고 장시에 여동생 찾으러 갈 거라는 사실을 그에게 알렸다.

쉬밍더는 “삼십육계 출행량이 상책이니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라고 했다.

그날 밤 쉬밍더는 오빠를 도와 마을을 탈출하여 밤새도록 평장까지 호위했다. 헤어질 때, 쉬밍더는 오빠에게 다섯 근짜리 식량 배급표와 3위안을 주었다.

후난 평장현은 내가 정착한 장시 용녕(永寧)진과 인접해 있었다. 두 지역은 아

직 차가 다니지 않아서 오빠는 장시까지 도보로 가기로 했다.

그때 오빠는 30대 초반이었고 몸이 건강하여 평소에 백여 근의 짐을 들어도 전혀 힘들어하질 않았다.

핑장현에서 용녕진으로 직통하는 좁은 산길 양쪽에는 뻗뻗한 푸른 소나무와 이름 모를 나무들이 우뚝 솟아 있었다. 핑장에서 하룻밤 묵은 뒤 동녘 하늘이 막 희끄무레하게 밝아오자 오빠는 길을 떠났다.

처음에는 길고 완만한 비탈길, 구름이 나왔고 그 뒤에 언덕이 보이고 또 좀 더 큰 산이 보이더니 천천히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가파른 낭떠러지와 수많은 골짜기를 지나가야 했다. 걸다 보니 구름과 안개가 피어올랐고 나무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마치 천지가 개벽하기 전처럼 탁하고 어렴풋했지만, 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신비로웠다.

안개가 서서히 물러간 후 눈길이 닿는 데까지 바라보니 먼 산, 가까운 산, 높은 산, 낮은 산…… 산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노출된 암석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오빠는 높은 산과 험준한 산봉우리 속에 있었다.

큰 산에서 햇빛은 정말 귀한 존재였다. 정오가 지나서야 비쳐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제야 온 산이 환하게 트였다. 밝은 빛줄기들이 숲을 지나 산길을 비추니 산길이 유난히 밝아 보였다.

산속의 길은 정말 가늠하기 어려웠다.

맞은편 산을 보니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았는데, 정작 걸어 가보니 멀리 떨어져 있었다. 정오에 도착할 줄 알았는데 저녁이 되어서야 도착한 것이다. 사방을 바라보니 산들이 저녁노을에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정말 산이 보인다고 가까이 있는 게 결코 아니었다. 저녁 무렵의 큰 산은 유난히 적막해 보여 사람을 공포에 떨게 했다. 사방을 둘러보니 사람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고 새들만 한동안 떠들어대고 있었다. 때로는 깃털이 선명한 큰 새 한 마리가 하늘에 날아오르고 때로는 들짐승의 울부짖음이 적막한 산속에 간간히 메아리쳤다. 가끔 관목숲에서 획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무엇이 휘휘 지나가는지 사람을 놀라게 했다.

첫날, 오빠는 가는 길에서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자 오빠는 이미 지쳐버렸고 마음은 매우 긴장되었다. 오빠는 사방을 둘러보다가 문득 멀지 않은 산꼭대기에 작은 집 몇 채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는 그 작은 집을 향해 힘차게 달려갔다.

그곳은 작은 식당이었는데 세 개의 방이 있었고 방마다 목재로 만든 침대로 딱 차 있었다. 가게 주인은 핑장에서 용녕진까지 가는 길이 이 산길밖에 없고, 길을 따라가면 숙식을 할 수 있는 작은 식당들이 있다고 오빠에게 말했다. 그 작은 식당들은 대부분 여기를 지나가는 짐꾼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기 위해 연 것이었다(1960년대 핑장과 용녕진 사이에서는 물건을 나를 때 전적으로 사람이 직접 날라야 했다).

오빠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다가 정말 가끔 두세 명의 짐꾼을 만날 수 있었다. 오빠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얼른 길을 물었다. 산속의 사람들은 착해서 물어볼 때마다 자세히 알려주었다. 오빠가 모를까 봐 설명하고 또 설명해 주었다. 창사(長沙) 사람들보다 훨씬 더 친절했다.

포박 사흘을 걸어서 마침내 용녕진에 도착했다.

오빠를 만나는 순간, 너무 말라서 내 오빠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나는 서둘러 기진맥진한 오빠의 짐을 넘겨받았다.

## 五

그때 나는 아직 일하러 다니지 않았고, 두 아이를 데리고 남편에게 의지해서 살고 있었다. 오빠는 며칠 머문 후 스스로 현에서 20여 리 떨어진 샤오수이(小水)촌의 대대를 찾아가 농민이 되었다. 가끔 생산팀에서는 오빠를 현에 파견해 석회를 옮기게 했는데 현에 가면 오빠는 늘 나에게 줄 장작을 짊어지고 왔다. 족히 70~80근은 되었다.

오빠는 곧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다. 지금은 장시에 와있고, 장시에 정착하여 농민이 되었으며 후난에 돌아갈 생각은 없다고 알렸다. 보름 후 어느 날, 양관(楊官) 후베이에서 나에게로 왔다. 어머니가 양관에게 오빠를 찾아가라고 한 것이다.

오빠는 양관을 데리고 황토편(黃田)촌의 인민공사 완리대대(彎里大隊)를 찾아가 정착했다. 그곳은 현에서 60~70리 떨어져 있었는데 밭은 많으나 일손이 적어서 청장년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완리대대의 본부는 큰 저택에 있었는데 3개의 출입구와 수십 개의 크고 작은 방이 있었다. 그리고 마당, 대청, 안채도 있었으며 기둥과 대들보는 채색화로 장식되어 있었다.

깊은 산골짜기에서 이런 집은 정말 보기 드물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청나라

때 이 마을에 무거인(武舉人)<sup>12)</sup>이 나왔는데 그곳이 원래 무거인의 집이었다.

큰 저택에는 일곱 또는 여덟 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대부분 독신남과 자식 없는 노부부였다. 그 산의 사람들은 산의 차가운 샘물을 마시고 살기 때문에 임신하지 못한다고 했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산속에는 논밭이 듬성듬성 흩어져 있었는데 밭은 매우 작아 어떤 것은 겨우 샷갓 정도의 크기였다. 매년 벼를 한 철 심는데 수확량은 대략 1마지기당 400여근으로 얼마 안 되었다. 평소 아줌마들은 산에 올라가 대나무와 나무 장작을 구해 길거리에 나가 팔아서 용돈으로 바꾸었다. 심은 벼가 부족해서 밭의 고구마로 허기를 채우곤 했는데 사시사철 고구마 밥만 먹었고 고기를 먹는 일은 거의 없었다.

오빠와 셋째 동생은 농사가 바쁠 때는 농사를 짓고, 농사가 한가할 때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었다. 흐리고 비 오는 날이 되면 산속에는 안개가 자욱하여 10미터 앞의 사람도 잘 보이지 않았다. 맑은 날조차도 태양은 나무 꼭대기에서 힘들게 떠올랐다. 날은 일찍 어두워졌다. 저녁 무렵, 안개가 산 중턱에 걸쳐있고, 모기 울음소리는 그치지 않았는데 정말 구양수(歐陽修)의 《취옹정기(醉翁亭記)》에 나오는 내용과 같았다. ‘해가 뜨면 숲이 피고, 구름이 돌아오면 석굴이 어둡다.’

오빠와 셋째 동생의 또 한 가지 일은 석회를 나르는 것이었다. 산속의 사람들은 베어낸 어린 대나무를 석회수에 담아 종이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현지 농민의 수입원이기도 했다.

어느 날, 셋째 동생과 오빠가 석회를 메고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광풍이 세차게 불고 천둥과 번개가 치더니 곧 폭우가 쏟아졌다. 갑작스러운 천둥소리에 땅이 떨리더니 새빨간 불덩어리가 셋째 동생을 향해 굴러왔다. 셋째 동생이 재빨리 피했기 다행이지, 아니면 감전되어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공 모양의 번개가 땅에서 마구 튀구는 것을 처음 본 오빠와 동생은 놀라서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문화대혁명' 폭풍이 서서히 다가오더니 그 폐쇄된 산골짜기를 맹렬히 덮쳤다. 처음에는 두 집이 완리대대로 끌려왔다. 한 집안은 절대 뉘우칠 줄 모르는 주자파(走資派)<sup>13)</sup>라고 했는데, 혼자서 열네 살짜리 딸을 데리고 있었고 또 다른 집안은 젊은 부부인데 '반동분자'라고 했다. 그들은 그곳에서 노동 개조를 받았는데, 신분은 범죄자와 비슷했다.

12) 청대(清代) 무과(武科) 향시(鄉試)에 합격한 사람.

13) 자본주의 노선을 걷는 자들.



다음에는, 대대의 유일한 젊은 선생님을 끌어냈는데 바로 그의 이름 '왕저싱(王者興)'이 이유였다. 그 이름이 봉건 제도를 회복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또 두 집안 사람을 끌어냈는데 한 집안은 류양(瀏陽)에서 이곳에 정착한 지 몇 년 되었고, 다른 한 집안은 대대의 회계사였다. 전자는 지주 집안이고, 후자는 횡령범으로 모두 잡혀서 집을 빼앗기고, 땀별에 여러 가지 끈으로 꿰뚫어 묶여있었다고 한다. 대대 관리 위원회의 간관이 혁명위원회의 간관으로 바뀌었고 혁명위원회의 첫 번째 혁명 사업은 바로 '사구(四舊)'를 타파하는 것이었다. '사구'는 옛 사상, 옛 문화, 옛 풍속, 옛 관습을 가리켰는데, 딱히 정해진 기준이 없었다. 어쨌든 청나라 무거인의 문양이 조각된 침대는 파괴되었다.

한동안 오빠의 '내력'은 아무도 몰랐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빠는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후, 후난 쪽 학교에서 편지를 보내왔는데 뜻밖에도 편지에는 오빠의 누명을 벗겨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다시 교원 자리를 주고 1년 월급을 보상해주겠다고 오빠에게 돌아오라고 재촉하는 내용이었다.

오빠는 곧 돌아가 한 중학교로 전근되어 교편을 잡았으며 따로 480위안의 돈을 보상받았다. 오빠는 돈을 받자마자 즉시 그중의 150위안을 나에게 보내왔다. 당시로선 적은 금액이 아니었다.

오빠는 후난에 돌아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돌아와 양관을 데려갔다.

## 六

1977년 어느 날, 학교에 있던 오빠는 양관을 찾으러 급하게 집으로 뛰어갔다. 오빠는 밭에서 일하고 있는 양관을 향해 큰소리로 외쳤다. “양관, 하지 마. 이젠 밭일 안 해도 돼. 대학 입시 제도가 회복됐어. 빨리 가서 증명사진을 찍고 대학 입시에 등록해.”

양관은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대학 입시가 회복되면 뭐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중학생이 11년 동안 농사만 지었는데. 전에 배운 것도 다 잊어버렸어. 대학은 뭘 대학이야? 가봐야 망신이나 당할걸.”

그러자 오빠가 말했다. “이런 기회가 잘 안 와. 복습할 시간도 아직 두 달 남았잖아. 그리고 너는 기초도 좋고 기억력도 좋아서 합격 될지도 몰라.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양관이 고집부리며 움직이지 않자 오빠는 화가 나서 즉시 밭으로 들어가 양관을 끌어냈다. “가자. 방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증명사진 찍으러 가자. 온몸이 진흙투성이잖아.”

양관이 “싫어. 귀찮으니까 가려면 이대로 가. 사진을 잘 찍으면 뭐해. 그런다고 합격되는 것도 아니고.”라고 하자 오빠는 양관을 억지로 끌고 사진관으로 데려가 사진을 찍고, 또 함께 향 정부에 가서 등록했다. 오빠는 양관이 정말 포기할까 봐 두려웠었다.

나중에 양관은 후난 사범대학에 합격했다. 전 인민공사에서 합격한 사람이 양관 한 명뿐이었다. 그리고 졸업 후 한 중학교에서 글을 가르쳤다.

오빠는 우리와 이야기할 때면 항상 “이번 생애 가장 잘한 일은 양관을 억지로라도 대학에 넣은 것이야.”라고 했다.

## 七

오빠는 중학교에서 계속 교편을 잡다가 퇴직했다.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오빠는 조기 퇴직을 택했다. 그해 어머니는 74세였고 오빠도 장년에서 노년으로 접어들었다. 세월은 것처럼 잔혹한 마력으로 가득 찬 채로 무정하게 흘러간 것이다.

생활은 지루하고 고독하며 쓸쓸했다. 오빠의 삶은 어머니를 모시는 것뿐이었다. 그것은 오빠의 책임이자 의무였다. 오빠의 주변에는 마음 통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오빠는 잘생기고 품위가 있었으며 언제나 예의 바른 태도를 잃지 않았다. 사람 됨됨이는 다소 신중한 편이었고 뻣속까지 지나치게 충직하고 성실했다.

어머니에 대한 오빠의 태도는 ‘순(順)’이라는 한 글자로 요약할 수 있었다. 어머니의 말과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도 오빠는 절대 거역하지 않았다. 되도록 모두 원하는 대로 맞추어주었고, 자신의 언행 때문에 어머니에게 상처를 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어머니는 여든이 넘자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다. 이때서야 어머니는 정말 늙은 것 같았다. 겨울 저녁, 오빠는 어머니의 이불을 편 다음 보온 물주머니를 이불 한쪽에 하나씩 넣어 이불 속을 후끈후끈하게 덥혔다. 어머니는 주무실 때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따뜻함을 느꼈다.

어머니는 연세가 많아지자 불편한 곳이 많아졌다. 어머니는 하룻밤에 네다섯 번씩 일어나 소변을 봐야 했는데 잠자리에 누워 잠이 들려 하면 또 소변을 보기 위해 다시 일어나야 했다. 그래서 오빠는 어머니를 위해 플라스틱 통을 준비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어머니 방에 들어가 어머니를 뵈 후 플라스틱 변기를 들고 나와 소변을 버리고 씻은 후 변소에 두었다.

나는 매번 어머니 집에 갈 때면 전날 어머니께 몇 시에 도착하는지 알렸다. 그러면 오빠는 107번 국도의 갈림길에 있는 작은 역까지 나와서 나를 마중하곤 했다.

내가 오는 날이 되면 오빠는 낮잠을 잘 수 없었다. 어머니가 오빠에게 나를 마중 가라고 재촉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지금 떠나서 천천히 가. 거기에 도착하면 시간이 거의 다 될 거야. 즈화가 널 기다리게 할 순 없잖아. 짐도 많을 텐데 널 못 보면 얼마나 초조하겠어.”라고 했다.

그러면 오빠는 “4시 30분에 도착해요. 제가 4시에 출발해도 충분해요. 제가 달팽이보다 느리겠어요?”라고 대답했다.

늘 사리에 밝은 어머니였는데 이 일에 있어서만은 고집을 부렸다. 결국에 오빠는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겨우 2시가 넘었을 뿐인데도 나를 데리러 출발했다. 그리고 작은 정거장에 두 시간 동안 앉아있었다.

어느 해, 어머니와 형제들을 찾아 고향에 갔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해가 희뿌옇게 떠 있었다. 점심때가 지나고 하늘의 먹구름이 이리저리 몰려오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더니 낮이 밤처럼 서서히 어두워졌다. 기온이 갑자기 낮아지고 광풍이 한바탕 불더니 큰비가 억수같이 쿵쿵 쏟아졌다. 바람이 훑훑 힘차게 소리를 냈고 나뭇가지가 바람에 미친 듯이 흔들렸다. 우리 일가족 세 명은 안채 한가운데 서서 문밖의 바람과 폭우를 바라보며 하늘의 위엄에 겁을 먹었다.

오빠는 “작은 바람이 불면 읍조리는 것 같지. 그런데 바람이 세면 소리 지르는 것 같아. 바람도 세고 비도 이렇게 많이 오니 지붕에 나뭇잎들이 많이 떨어지겠네. 이 집 주위에는 나무가 없으면 안 돼. 바람을 막을 수 없으니까. 하지만 나무가 있는 것도 번거로워.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한번 불면 사람이 지붕에 올라가 잎을 쓸고 새는 곳이 없는지를 검사해야 해.”라고 했다.

오빠는 잔뜩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오늘 셋째가 돌아올 수 없을 것 같네.”라고 말하자 오빠는 “당연히 안 돌아오겠죠. 학교에 있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어머니

가 또 “오늘은 저녁 먹고 일찍 자자. 천둥 때문에 텔레비전은 못 볼 것 같아.”라고 말하자 오빠는 “천둥 때문에 텔레비전이 망가질까 봐 제가 플러그를 뽑았어요.”라고 했다.

어머니가 부엌으로 가자 오빠는 즉시 따라나섰다. 어머니가 요리할 때마다 오빠는 꼭 어머니를 도와 불을 피웠다. 나도 따라가서 말했다. “제가 불을 피울게요.” 그러자 어머니는 “넌 손님이잖아. 오빠가 불을 피우게 해.”라고 했다. 나는 “제 솜씨가 어머니보다 못해도, 오늘은 제가 요리해 볼게요. 어머니는 옆에서 감독하세요.”라고 했다. 오빠는 즉시 일어나 안채에서 등받이 의자를 가지고 들어왔다. 그것은 어머니의 전용 의자인데, 위에는 두꺼운 스폰지가 깔려 있었다. 오빠는 의자를 자기 옆에 놓고 말했다. “어머니, 감독관 노릇을 하려면 위엄이 있어야 해요. 높은 곳에 앉아 우리가 일하는 것을 지켜봐야죠.”

비름 한 그릇, 연 죽순 달걀 볶음 한 그릇, 장아찌를 넣은 돼지고기찜 한 그릇, 시금치 국 한 그릇으로 요리는 금방 끝났다. 저녁 식사를 끝낸 후에도 비와 바람은 여전히 그치지 않았다. 어머니는 말했다. “텔레비전은 볼 수 없으니 일찍 잠자리에 들어가 책이나 봐.”

한밤중에 잠을 자는데 얼굴에 차가운 것이 느껴져 손으로 만져봤더니 빗물이 모기장을 통해 똑똑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를 흔들며 깨웠다. 어머니도 불을 켜고 자신의 얼굴을 만져봤더니 약간 젖어있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지붕에 물이 새고 있어. 빨리 가서 세숫대야를 가져와. 위층에 곡식을 놓았는데 젖으면 곤란해져.”라고 했다.

나는 재빨리 부엌으로 들어가 세숫대야 세 개를 가져왔다. 어머니가 손전등을 건네주자 나는 세숫대야를 가슴에 안고 한 손으로는 나무계단을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위층에서 손전등을 켜 후 비가 새는 곳을 찾기 시작했다. 마침내 새는 곳을 찾아서 세숫대야 세 개를 놓으니 똑똑 소리가 났다.

오빠도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전등을 켜고 각 방에 가서 확인해보니 텔레비전이 놓인 곳에 비가 많이 새고 있었다. 오빠는 “큰일 났네. 텔레비전이 젖었어.”라고 하면서 텔레비전을 옮기려 했으나 무거워서 옮기지 못했다. 나는 오빠가 허리를 다칠까 봐 얼른 말했다. “안 옮겨도 돼, 안 옮겨도 돼. 우산을 가져다 텔레비전 위에 덮으면 돼.” 그리고 마른걸레를 가져와 텔레비전을 닦았다.

빗물 때문에 줄음은 다 갇고 잠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우리 셋은 안채에 서

서 구석구석을 둘러봤다. 오빠는 “사는 게 재미있지 않아? 너무 짜릿하지 않아? 내일 제일 먼저 할 일이 셋째를 불러 나뭇잎을 쓸고 누수를 확인하는 거야.”라고 했다.

이튿날, 비는 그치고 해가 떴다. 햇빛이 나무 창문으로 비쳐 들어와 축축한 바닥에 부드럽게 퍼졌다. 나무는 하룻밤 세례를 받아 푸르른 방울이 떨어질 듯했고 공기는 달콤했다. 녹나무 위의 까치집 세 개가 바람에 날려 떨어져 탈곡장에는 까치집 잔해가 널려져 있었는데 그 부서진 까치집의 나뭇가지에는 까치의 흰 똥이 가득 묻어 있었다. 큰 까치 몇 마리가 녹나무 위에 서서 비참하게 지지귀며 그들의 아이들을 부르고 있었다.

오빠는 새 둥지 잔해를 주우며 탈곡장을 청소할 때 나한테 속삭였다. “이사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야. 나와 어머니는 이젠 늙어서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생활이 많이 불편해져. 근데 어머니께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네. 어머니가 여기를 너무 좋아하셔서. 서운하게 하고 싶지도 않고 말이야.”

새 둥지 잔해를 다 없앤 후 오빠는 또 집 뒤에 나뭇잎을 쓸러 갔다. 거기엔 집을 둘러싸고 있는 길이 있었는데 넓이는 1미터 정도이며 한쪽은 집터에 닿았고, 다른 한쪽은 산등성이에 닿아 있었다. 산등성이는 매우 가파르고 울퉁불퉁했다. 땅에는 붉고 푸른 나뭇잎이 두껍게 깔려 있었다. 아직 마르지 않은 나뭇잎은 햇빛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으며 밟으면 매끄러웠다. 산등성이에 있는 나뭇잎들이 조만간 지붕으로 떨어질 것 같았다. 그래서 오빠는 아예 그 나뭇잎들을 같이 쓸어버리려고 했다. 오빠는 한쪽 발을 산등성이에 올려놓은 채 손에 대나무 갈퀴를 들고 가능한 한쪽 팔을 길게 뻗어 그 나뭇잎들을 긁어냈다. 긁어모으다 보니 산등성이가 아래로 와르르 내려앉으면서 산사태가 일어나고 말았다.

오빠는 진흙더미에 파묻혀 허리를 뺐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다. 산등성이에 드러난 새 흙의 모습이 위험천만해 보였다. 다시 산사태가 일어났다면 오빠는 생매장되었을지도 모른다.

오빠는 사람을 부르기 시작했다. “살려주세요.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가 놀랄까 봐 차마 큰소리로 외칠 수 없어 그렇게 점잖게 소리를 질렀는데, 나와 어머니는 탈곡장에서 전혀 듣지 못했다. 다행히 어머니가 부집계를 가지러 부엌에 갔다가 오빠의 외침이 들렸는지 얼른 달려갔었다.

나와 어머니가 집 뒤에 도착했을 때, 오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나무 그루터기처럼 처박혀 두 손으로 진흙을 한 움큼씩 밖으로 던지고 있었다. 오빠는 우리

의 다급한 모습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진정하세요. 호미로 진흙을 파내면 제가 나갈 수 있어요.” 어머니는 웃으며 야단쳤다. “산등성이가 무너지려 하는데 도망갈 줄도 모르니?” 그러자 오빠는 “제가 어떻게 산등성이가 무너질 줄 알았겠어요? 제가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진흙 속에 있었어요.”라고 했다.

나와 어머니는 힘껏 진흙을 파내어 마침내 오빠를 구해냈다. 오빠는 허리 아래부터 옷에 진흙이 두껍게 묻어 있었는데, 펄쩍펄쩍 뛰면서 흙을 털어내려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기 그지없었다.

## 八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는 매일 오빠와 전화 통화를 하며 오빠를 어머니로 여기고 기억 속에 있는 어머니의 자질구레한 이야기들을 다 털어놓았다. 오빠는 “세상에 이별 없는 만남은 없어. 마음을 좀 편히 가져봐. 어머니는 네가 자꾸 우는 걸 보고 싶지 않을 거야.”라고 하며 날 위로했다.

어머니가 안 계시니 집에 가고 싶었던 강렬한 소망이 사라졌다. 2016년, 한 번은 오빠 집에 갔다가 짐을 내려놓은 후 2층으로 올라가 어머니 영정 앞에서 펑펑 울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일어나자마자 오빠의 방으로 갔다. 그런데 오빠가 보이지 않아 아래층으로 내려갔는데 마침 지팡이를 짚고 있는 오빠가 보였다. 오빠는 풍을 한 번 맞은 후 걸을 때 다리가 휘청거렸다. 오빠는 왼손에 스테인리스 찻주전자를 들고 있었다. 나는 오빠에게 물었다. “이렇게 일찍 어디 갔었어?”

“저 가게 만두가 맛이 괜찮아서 너 먹으라고 한 그릇 샀어.”

이번에 집에 갔을 때 나는 오빠에게 진지하게 말했다. “오빠, 우리는 언젠간 다 죽게 될 거야. 오빠 말대로 이별 없는 만남은 없어. 다만 누가 먼저 자리를 비울지 모를 뿐이야.”

그러자 오빠는 “내가 맏이니까 순서에 따라 내가 먼저 가야지. 상의할 필요도 없고 누구도 앞서서는 안 돼.”라고 했다.

“오빠가 먼저 떠난다면 난 배웅하러 오지 않을 거야. 난 오빠가 떠나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 오빠가 떠나는 것을 보지 않으면 마음속으로 여전히 아직도 후난에 우리 오빠가 있다고 생각하며 살 수 있잖아. 오빠, 나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때 내가 돌아오기를 바라지 마!”

어느 날 오빠는 나에게 전화를 했다. “즈화야, 오늘 나 벽에 붙이려고 글자 네 개를 썼어. 네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맞춰보렴.” “모르겠는데.”

오빠는 “살아, 삶을 (努力活着).”라고 나에게 알려주었다.

그래서 나는 “오빠, 잘 썼어. 우리는 다 잘 살아가야 해.”라고 했다.

2017년이 되자 오빠는 병세가 급격히 나빠져 침대에 누워있게 되었고 밖에 나갈 때는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었다. 오빠는 사람이 질병을 이길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그리고 오빠는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하루가 지나면 남은 날이 하루 적어진다는 사실을, 삶이 소중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 남은 하루하루는 매우 고통스러운 날들이었다. 그것은 사는 게 아니라 몸부림이었다.

오빠는 평생 깨끗한 것을 좋아했다. 피부에 기름기가 많은 편이라 목욕을 좋아했는데 목욕시간도 매우 길었다. 여름에 어머니는 항상 우리와 농담을 했다. “목욕할 때는 반드시 오빠보다 먼저 해야 해. 오빠는 목욕하는 시간이 돼지 잡는 것처럼 오래 걸려.”

침대에 누워있게 된 후, 목욕도 오빠에겐 사치였다. 그것은 오빠에게 큰 충격이었다.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다행히 오빠는 머리가 맑아 나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나는 매일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2018년 4월 초순, 나는 무릎 반월판 손상으로 통증이 생겨 한 의사의 말을 듣고 최소 절개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받고 나서 너무 힘들었다. 침대에 누워있는 나는 살 수도 죽을 수도 없이 매일 천장만 바라보았다. 그 작은 수술로 인한 고통은 끈질기게 나를 괴롭혔다.

그러던 중 4월 29일, 조카로부터 오빠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받았다.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멍해진 나는 그다지 울지 않고 가족 단톡방에 소식 하나만 올렸다. ‘너희들 다시는 외삼촌 얘기를 꺼내지 마.’

인생의 어려움은 단지 먹고 입는 것과 일상에 필요한 금전 같은 것에 그치는 게 아니었다. 정신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가족이 하나씩 떠날 때마다, 뼈저리게 가슴에 사무치고 비통한 그 느낌은 사람을 망연자실하게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만든다.

오빠는 떠나갔고 글만 남아있다. 오빠가 마을로 이사 간 해에, 내가 찾아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오빠는 나에게 시 한 수를 써 주었다.

희매매회가 (喜妹妹回家)<sup>14)</sup>  
 일연일도노장정(一年一度老章程),  
 복복풍진만리행(僕僕風塵萬里行).  
 중유구지향정독(重遊舊地鄉情篤),  
 희견신거소어빈(喜見新居笑語頻).  
 소지제진영골육(掃地除塵迎骨肉),  
 포어할육연친인(捕魚割肉宴親人).  
 태평성세풍광호(太平盛世風光好),  
 합가단취낙무은(闔家團聚樂無垠).

### 백 위안

오빠는 누명을 벗으면서 보상받은 돈으로 방을 몇 칸 지으려고 자재들을 샀다. 그리고 아직도 후베이에 계신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 알려드렸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리를 비울 수 없어 편지로만 계속 오빠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때로는 10 위안, 5위안, 최소 3위안을 편지지에 끼워 오빠에게 부치기도 했다. 그리고 답장할 때 돈 얘기는 꺼내지 말고 편지지의 오른쪽 위에 동그라미를 그리면 돈 받은

---

14) 복덩이 여동생이 집에 왔다.  
 일 년에 한 번 예전 그대로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어.  
 고향에 정을 두고 다시 돌아와  
 새집을 보고 계속 웃는구나.  
 깨끗한 집에서 새 생명을 맞이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족 연회를 하자.  
 태평성대에 살기가 좋아  
 한자리에 모인 온 가족은 즐겁기 그지없네.



줄 알겠다고 했다.

어머니가 보낸 돈을 받을 때마다 오빠는 마음이 울컥했다. 때로는 소리 내어 울기까지도 했다. 매번 답장할 때마다 어머니께 그러지 마시라고 했다. “어쨌든 저는 월급을 받잖아요. 어머니는 시골에서 돈 벌기도 쉽지 않겠는데 너무 고생하지 마세요.”라고 편지에 써서 보냈다.

그러자 어머니는 “나 아직 일할 수 있어. 솜도 팔고, 채소도 심어서 팔 수 있어. 부지런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후베이성에서는 무와 배추를 크고 넓은 경작지에 엄청나게 많이 심어. 팔 땐 100근 이상씩 팔아. 살림에 쓸 돈만 빼고 나머지는 아껴서 너희한테 줄게. 보잘것없는 액수지만 어쨌든 나의 마음이야. 자식도 안 도와면 난 엄마도 아니지. 다만 왕 아저씨가 눈치채게 하고 싶지 않아. 내가 돈을 모두 집으로 보낸다고 생각할까 봐 걱정돼. 몸은 여기 있으면서 마음은 그곳에 있는 줄 알고 날 오해할 수도 있잖아.”라고 답장했다.

그 후, 내 아이들이 연이어 대학에 합격했다. 어머니는 내가 생활이 힘들 것 같아 똑같은 방식으로 10위안, 5위안, 최소 3위안을 편지지에 끼워서 나에게 보내왔다. 마찬가지로 편지에 동그라미를 그려서 보내라고 했다. 나는 돈을 받을 때마다 펄펄 울었다. 어머니가 무를 팔고 배추를 파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밝기도 전에 채소를 정리해야 하고, 날이 밝으면 채소를 트랙터에 싣고, 어머니도 트랙터 위에 채소와 함께 앉아야 했다.

어머니는 트랙터에 앉아도 멀미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암돼지의 배 안에 앉은 것처럼 흔들거리는 게 어쩐지 편하다고 답장을 보내왔다. 한번은, 너무 궁금해서 어머니께 물었다. “돼지 배 안에 앉은 게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자 어머니는 “돼지가 임신하면 새끼 돼지는 어미 돼지의 배 안에 있잖아. 암돼지는 걸을 때 배가 움찔거리면서 흔들흔들 움직여. 내가 트랙터에 앉으면 마치 암돼지의 배 안에 앉은 것처럼 흔들거리는 거 있지. 그래서 아주 편하단 말이야.”라고 답장을 보내왔다. 나는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다른 때와는 달리 웃고 말았다.

왕 아저씨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후난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어머니 보러 집에 갔다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머니 방에 들어갔는데 어둑어둑하고 따듯한 빛이 나를 감쌌다. 어머니는 가장 안쪽에 있는 옷 주머니에서 슬그머니 100위안을 꺼내 나에게 건네주었다. 아주 작게 접힌 새 돈은 어머니의 체온을 띠고 있었고 펼칠 때 탁탁 소리가 났다. 나는 전혀 사양하지 않고 그 돈을 받아 내 지갑에 넣었다.

그 후 몇 년 동안, 매년 집에 가면 어머니는 나에게 100위안을 줬다.

매번 내가 장시로 돌아가는 날이 되면 어머니는 거듭 내게 말했다. “갈 때 울지 마라. 너는 너의 가정이 따로 있으니까 계속 나랑 살 수는 없잖아. 나는 네 오빠와 동생이랑 함께 살면서 개들도 나에게 호도하며 보살펴주니 생활도 편해. 내 걱정은 안 해도 돼. 매년 날 보러 오기만 하면 돼.”

울지 않기로 했지만, 결국 매번 울어버렸다. 문턱을 넘어가면서 차마 고개도 돌리지 못했고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말없이 뒤를 따라 나를 배웅했다. 한참을 가다가 어머니는 말했다. “가. 엄마 갈게.” 나는 우는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 머리를 힘껏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몇십 미터 걸어간 후 다시 마을을 돌아보았더니 뜻밖에도 굴나무 밑에 서서 울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드디어 창사로 가는 버스를 탔다. 나를 향해 손을 흔드는 오빠의 모습은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사라졌다.

내 자리 옆에서 대여섯 명이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다. 하트 킹과 스페이드 킹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났다. 한 사람이 하트 킹에 30위안을 걸자 다른 사람은 스페이드 킹에 40위안을 걸었다. 카드를 뒤집자 하트 킹이었다. 그래서 하트 킹에 돈을 건 사람이 40위안을 댔다. 돈 댄 사람은 얼굴에 웃음이 피었고 돈 잃은 사람도 의기소침하지 않고 한마디 내뉘었다. “너무 일찍 좋아하지 마세요.” 잃은 사람이 다시 돈을 걸었더니 과연 다시 돈을 되찾게 되었다.

차가 출발한 후, 나의 마음은 매우 허전했다. 카드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내 앞에 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몇 번 쳐다봤는데 쉽게 맞힐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남자가 내게 말했다. “돈 있어요? 저는 돈이 없어서 아쉽네요. 다른 사람이 돈 벌어가는데 눈 뜨고 보고 있을 수밖에 없네요.” 30대로 보이는 그 남자는 잘생기고 온화해 보였으며 그의 말에는 진솔함과 아쉬움이 담겨 있었다.

주위를 둘러봤는데 다들 구경만 하고 있었다. 나는 돈을 잃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좀 창피할 뿐이었다. 여자가 남자들과 카드를 하면 여자 도박꾼이 되지 않는가. 그러나 사실 나도 돈 좀 벌고 싶었다. 딸이 대학 입학까지 두 달 남짓 남았기 때문이었다.

그 남자가 또 나에게 말했다. “너무 많이 걸지 마세요. 그러면 이기나 지나 괜찮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얼굴을 붉히며 슬그머니 20위안을 걸었다. 그 돈은 창

사에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갈 때 쓰러던 차비였다. 하트 킹에 돈을 걸었는데 카드를 뒤집으니 스페이드 킹이었다. 그것을 본 나는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중얼거렸다.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이쪽이 분명히 하트 킹이었는데.’

한순간에 도박꾼이 되어버린 것이다. 나는 잃은 돈을 되찾고 싶어서 돈을 걸고 또 걸어서 결국 어머니의 체온이 담긴 100위안짜리 새 돈마저 잃고 말았다. 그것밖에 없는 게 다행이었다. 아니면 결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훔치려던 닭은 못 훔치고 공연히 쌀만 한 줌 손해 본 셈이었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창사에 도착하자마자 거래처를 찾아가 20위안을 빌린 후 차표를 사서 집으로 돌아갔다. 카드를 놀던 사람들은 창사에 도착하기 전에 차에서 내렸다. 알고 보니 그들은 한패였고 성실해 보이는 그 사람은 미끼였다.

그 일은 나만의 비밀이 되어버렸고 지금은 어머니에게 알릴 기회마저 사라졌다. 어머니, 죄송해요.

몇 년 후, 아이들에게 이 일을 얘기했더니 그들은 나를 비웃으며 말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더니 엄마가 그런 바보짓도 했었어?”

여행은 멈추지 않았다. 처음에는 1년에 한 번 어머니를 뵈러 다니다가 나중에는 1년에 두 번씩 어머니 뵈러 다녔다. 큰딸이 특별히 나에게 반바지를 사주었다. 반바지 가운데에는 숨겨진 주머니가 있었고 곁에는 지퍼가 달려있었는데 어머니에게 드릴 돈은 그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제일 안쪽이라서 매우 안전했다.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주머니 속의 돈은 차츰 액수가 커졌다. 나는 집에 도착한 후 어머니 방에 들어가 빙그레 웃으면서 주머니 속의 체온을 띠고 있는 돈을 꺼내 어머니에게 드렸다.

어머니는 돈을 받자마자 서랍에 넣었다. “내가 보관해 줄게. 필요하면 여기서 가져가. 차표 값도 여기서 가져가. 이 신문 밑에 놓았어. 나한테 자꾸 돈 주지 마. 난 늙어서 돈 쓸 일이 별로 없어. 너나 남겨서 써.”

나는 아직도 그 반바지를 간직하고 있다. 옷을 정리할 때 꺼내서 그 숨겨진 주머니를 살짝 매만졌다. 눈앞의 안개 사이로 어머니가 나의 맞은편 방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았다. 바지 지퍼를 열고, 또 숨겨진 주머니의 지퍼를 열어 돈을 꺼내 어머니께 드리는 그 순간이 내 머릿속에 꼭 박혀있다. 그렇게 나는 또 한 번 어머니를 기억했다.

## 영화 구경

70년대 초에는 영화 한 편을 보는 것도 사치였다. 첫 번째 이유는 영화표를 구하기 어려워서 암표를 사야 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으로 궁핍해 2마오 짜리 표 한 장을 사는 데도 머리를 쓰며 고민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볼까, 말까? 볼까, 말까?

어머니는 몇 년간 매년 서너 달씩 우리 집에 와 있었다. 어머니는 늘 아끼면서 살았지만, 영화라는 말만 나오면 안절부절못했다. 말로는 “안 봐. 보지 말자.”라고 했지만, 어머니가 얼마나 영화를 보고 싶어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어느 해, 어머니가 우리 집에 왔는데 마침 산림국에서 야외 영화를 상영하고 있었다. 산림국은 우리 집 길 건너편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3일 동안 계속해서 저녁마다 ‘정찰병’을 상영할 예정이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어머니는 “세 번이면 세 번 다 봐야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볼 거야. 공짜로 보는 영화는 몇 번이고 봐도 상관없어.”라고 했다.

그날, 한 꼬마가 아침 일찍 현장에 구경하러 갔는데 막이 산림국의 공터에 걸려있는 걸 보았다고 했다. 해 질 무렵 우리는 저녁을 먹고 목욕을 한 후 부들부채를 들고 산림국으로 달려갔다. 날개가 있어 그곳으로 빨리 날아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을 정도로 온 가족은 마음이 조급했다.

영화가 시작되기까지 아직 30분이나 남았는데도,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새까맣게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 소리로 요란했다. 어른들이 소리 지르고 어린아이가 울고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다. 우리는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곧장 비탈진 곳으로 걸어갔다. 그 비탈진 곳은 막을 향해 있긴 했지만 조금 멀리 떨어져 있었다. 산비탈 꼭대기에는 관목이 우거져 있었고 키가 큰 녹나무도 몇 그루 있었다. 달빛은 나무 사이로 비쳐와 산비탈에 얼룩덜룩한 검은 그림자를 떨어뜨렸다. 우리는 풀이 무성한 곳을 찾아가 앉았다. 달은 점점 높이 떠올랐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어머니는 가끔 부들부채를 흔들며 모기를 쫓았다. 마침내 막에 ‘정찰병’이라는 세 글자가 나타났고 수많은 머리가 빗줄에 이끌린 듯 일제히 앞을 바라보았다.

‘정찰병’을 세 번이나 봤는데도 전혀 지겹지 않았다. 영화를 볼 때는 잠시 모

든 고민을 잊을 수 있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영화 ‘홍루몽’이 상영된다는 말이 전해졌다. 영화 필름은 영사 기사가 고속버스를 타고 도시로 가서 겨우 얻어온 것인데 3박 3일, 24시간 동안 끊임없이 방영할 것이라고 했다. 영화표는 개인에게는 판매되지 않고 무조건 단체 구매만 가능했다.

내가 소속된 부서에서 발행한 표는 새벽 4시 것이었다. 어머니는 영화광이고 홍루몽도 좋아해서 이 영화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기뻐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새벽 4시 표를 받고 나서 나는 망설이게 되었다.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신 데다가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새벽 3시가 넘으면 잠자리에서 일어나야 했다. 그리고 상영 장소는 현이 아니라 현에서 10여 리 정도 떨어진 공장인데 단체로 큰 트럭을 타야만 갈 수 있었다. 나는 표가 없어서 물론 어머니와 함께 갈 수 없었고 어머니를 새벽에 혼자 영화 보러 보내려고 하니 너무 힘들어 할 것 같았다.

표를 받은 나는 고민에 빠져버렸다. 차마 어머니를 혼자 보낼 수 없었다. 어머니는 이미 소문을 들었는지 나에게 말했다. “홍루몽 영화를 볼 수 있다는데 시간이 중요해?” 그래서 나는 떠보면서 “어머니, 영화 보러 가세요. 그런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러는데…….”라고 말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곧바로 대답했다. “나 내일 갈 거야. 일찍 자면 되잖아. 내일 ‘홍루몽’ 보러 꼭 가야지.” 어머니는 들떠 있었다. 원래는 마지막 날까지 기다려보면서 시간이 더 괜찮은 표를 구해보거나 아니면 이번에는 보지 말고 나중에 또 기회가 생길 때 보시라고 말하려 했는데 기뻐하는 어머니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침 우리 옆집의 샤오허(小何)도 이 영화를 보러 가기에 샤오허에게 어머니와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다. 새벽 3시가 넘어서 몽롱하게 눈을 떴더니 어머니는 이미 일어나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은 후 조용히 문 앞에 앉아 샤오허를 기다리고 있었다.

샤오허가 어머니 팔짱을 끼고 걸어가자 나도 모르게 그 뒤를 따라갔다. 새벽 3시가 넘었는데도 밤은 조용하지 않았다. 달빛이 모든 것을 밝게 비쳤고 길가의 가로등은 쉼새 없이 반짝이고 있었다. 길에는 이미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어머니는 침착한 발걸음으로 그들 사이를 걸어갔다.

## 장시 땀나무 칼

내게서 장시 땀나무 칼을 발견한 어머니는 매우 기뻐했다. 굵고 단단한 막대기라도 땀나무 칼로 먼저 한 번 켜 후 꺾으면 쉽게 부러졌다.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되었다. 좀 큰 장작도 그 칼로 잘게 쪼개서 태울 수 있었다. 어머니는 두 번 시험해 보고 나서 나에게 말했다. “이 땀나무 칼 좋네. 장작을 썰 수도 있고 쪼갤 수도 있네. 후난에는 이런 칼이 없어. 돌아갈 때 하나 사서 가져가야겠다.” 어머니는 늘 나에게서 좋은 물건을 발견하곤 했다. 물건이 진짜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 것이라 모든 게 좋아 보인 건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어머니는 후난으로 돌아갈 때 장시 땀나무 칼 하나를 들고 갔다.

어머니는 그 장시 땀나무 칼을 귀중한 보물처럼 아꼈다.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그 칼은 생명 없는 쇠못치로 만들어진 것만이 아니었다. 그 칼은 어머니가 그리워하는 곳에서 가져온 것이고 그곳에는 어머니가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그 칼을 자주 사용했고 쓰지 않을 때는 신문지로 싸서 찬장 위에 올려놓았다.

어느 날, 아침을 먹자마자 이웃집 허 영감의 집사람 바론편(八蓮)이 우리 집에 찾아 왔다. ‘바론편이 아침 일찍 온 거로 봐서는 분명 무슨 일이 있을 텐데.’라고 오빠가 생각하고 있는데 바론편이 다가와서 말했다. “양 선생님, 장시 땀나무 칼 좀 빌려주세요. 우리 바깥사람이 장작을 하루만 썰게요.” 그러자 오빠는 “다른 건 괜찮은데, 그것만은 안돼요.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어머니가 그걸 보물처럼 여기세요. 너무 아끼는 거라서 안 되겠네요.”라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들은 바론편은 “그럼 직접 양 할머니한테 가서 빌릴게요.”라고 한 후 바로 어머니를 찾아갔다.

바론편은 부엌에 들어가 불을 피우고 있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양 할머니, 장시 땀나무 칼 좀 빌려주실래요? 우리 바깥사람이 장작을 하루만 썰게요.”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안 돼. 못 빌려줘. 내가 장시에서 어렵게 가져온 칼이야. 망가지면 어떻게 배상하려고? 파는 데도 없는데.” 그러자 바론편은 “양 할머니, 하루만 쓰고 저녁에 꼭 돌려드릴게요. 절대 망가뜨리지 않을게요.”라고 했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고, 이웃 사이에 칼 때문에 괜히 기분 상하

는 일을 만들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말했다. “알았어. 가져가. 대신 하루만 쓰고 저녁에 꼭 가져와. 알았지?” 그러자 바렌은 “양 할머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라고 대답했다. 바렌은 한쪽 눈은 멀었지만, 목소리가 참 듣기 좋았다. 목소리 톤이 낮고 굵어 마치 미지근한 물줄기가 마음속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바렌이 말하는 것을 듣기 좋아했다.

어머니는 찬장 위에서 장시 뿔나무 칼을 꺼내 바렌에게 건넸다.

저녁이 되었는데도 칼을 돌려주러 오지 않자 어머니는 오빠에게 말했다. “뿔나무 칼 가지러 갔다 올게.” 그러자 오빠는 “어머니, 오늘 가지러 가지 말고 내일 가지러 가요. 죽고 못 사는 일도 아니고. 우리를 무서워하겠어요.”라고 했다.

이튿날, 오빠는 또 어머니를 말렸다. “어머니, 아직 칼을 돌려주지 않은 거 봐서는 아마도 좀 더 써야 하는가 봐요.”

그렇게 사흘째 되던 날 저녁까지 미루어지자 어머니는 더 이상 오빠의 말을 듣지 않았다. 곧장 뿔나무 칼을 가지러 허 영감의 집으로 찾아갔다. “허 영감, 칼을 하루만 빌려 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벌써 사흘이나 지났어. 장작은 다 뿔했지?”

허 영감은 말했다. “양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칼을 잃어버렸어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말도 안 돼. 멀쩡한 사람이 칼도 못 지켜? 칼이 발 달린 것도 아니고.”라고 했다.

그러자 허 영감은 “정말 잃어버렸어요. 장작이랑 같이 놔둔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길에 떨어뜨린 게 틀림없어요.”라고 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올라 얼굴이 새빨개졌다. 허 영감의 따귀를 때려서 분을 풀고 싶었지만, 화를 억누르며 말했다. “그럼 찾지 않고 뭐 했는데? 잃어버리면 그만이야? 남의 거라고 전혀 아깝지가 않아?”

그러자 허 영감은 “계속 찾으러 다녔죠. 근데 못 찾았어요. 길에 떨어뜨렸나 봐요. 사람들이 오가면서 주워간 것 같아요.”라고 했다.

어머니는 화가 나서 계속 말했다. “그때 내가 안 빌려준다고 했는데 자네들이 억지로 빌려달라고 했잖아. 남의 물건을 빌려 가고는 아끼지도 않고, 잃어버리기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사든 만들든 장시 뿔나무 칼 내놔.”라고 했다.

허 영감은 수심에 가득 찬 얼굴로 “저한테 장시 뿔나무 칼이 있어야 배상하든지 하죠. 제가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라고 했다.

그 집 사람들은 정말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었다. 바렌은 늘 손자에게 옷을 꿰매어주거나 단추를 달아주었는데 바늘과 실은 한 번도 산적이 없다. 항상 어머니에게서 이것저것 빌려 가곤 했다. “양 할머니, 바늘과 실 좀 빌려주세요. 이따가 돌려드릴게요.”

어머니는 “알았어. 여기 있어.”라고 하며 바로 일어나서 바렌에게 바늘과 실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바렌은 한 번도 약속대로 돌려준 적이 없다. 며칠 못 가서 또 빌려 갈 거라서 어머니는 아예 바늘과 실을 신발 상자에 담아 창턱에 올려놓았다. 바렌이 다시 빌리러 와도 어머니는 일어나지 않고 한마디만 했다. “바렌, 바늘과 실을 창턱에 놓았으니 알아서 가져가.” 어머니는 처음에 ‘바늘과 실은 가격이 싸니 쓰고 안 갚으면 말고.’라고 생각했다. 차츰, 바렌은 바늘과 실을 다 써 버렸다. 장시 땀나무 칼을 잃어버린 후, 어머니는 그 집 사람들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다. 바렌이 또 바늘과 실을 빌리러 오자 어머니는 말했다. “요즘 눈이 잘 안 보여서 바늘을 꿰지 못하겠어. 바늘과 실이 떨어진 지 며칠이나 됐는데도 귀찮아서 사러 안 갔어.” 사실 어머니는 바늘과 실이 많았다. 다만, 땀나무 칼을 잃어버린 후 어머니는 몇 년 동안 대주던 바늘과 실을 대주지 않기로 마음먹었을 뿐이었다.

일 년 후 어느 날, 오빠가 탈곡장에서 옷을 말리고 있는데 짐을 진 한 사람이 오빠에게 길을 물었다. “실례지만 허빙성(何兵生)씨의 댁이 어딘가요?” 오빠는 허 영감의 집을 그 사람에게 가리켰다. “바로 이 집이에요. 몇 미터만 걸어가면 돼요.” 오빠는 그 사람이 메고 있는 짐 한쪽에는 풀무가 묶여있고 다른 한쪽에는 쇠덩이가 있는 것을 보고 말했다.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짐이 매우 무거워 보이네요.”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다. “대장장이입니다. 오늘 허 영감이 물건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여기 왔어요.”

오빠는 재빨리 빨래를 널고 부엌에 들어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오늘 허 영감이 물건을 만든다고 대장장이를 집에 불렀네요. 장시 땀나무 칼을 돌려줄 것 같아요. 이따가 제가 가볼게요.” 아침을 먹은 후 어머니는 오빠에게 빨리 가보라고 재촉했다. 이번 기회에 꼭 장시 땀나무 칼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오빠가 허 영감의 집에 들어섰을 때, 대장장이는 집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오빠는 허 영감에게 물었다. “어찌다가 대장장이를 집까지 불렀어요. 뭘 만들어요?” 그러자 허 영감이 대답했다. “갈퀴, 호미, 두루두루 다 필요해요.” 오빠가 “장시 땀나무 칼은 안 만들어요?”라고 묻자 허 영감이 말했다. “대장장이가 후난



사람이라서 장시 뿔나무 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못 만들어요.” 오빠는 화가 나서 말했다. “그렇다고 안 만들어요?”

허 영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빠는 대장장이에게 다가가 말했다. “저에게 장시 뿔나무 칼도 만들어주세요. 제가 돈은 따로 드릴게요. 이따가 제가 그림을 그려서 가져올게요. 곧은 거라서 우리 후난에서 쓰는 칼날이 흰 칼보다는 만들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오빠는 집에 돌아와 책상에 앉드려 뿔나무 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다가오더니 “뭘 그리고 있어? 장시 뿔나무 칼을 만든다는 건 어찌 됐어?”라고 물었다. 그래서 오빠는 “다 얘기해놓았어요. 대장장이가 장시 뿔나무 칼을 본 적이 없어서 그림을 그려서 주면 만들 거예요.”라고 대답했다. 오빠는 그림을 그리면서 어머니에게 말했다. 손에는 줄자를 들고 있었다. 뿔나무 칼은 칼자루를 포함해 길이가 대략 22센티미터이고 너비는 7센티미터이며 칼등의 두께는 1센티미터이다. 칼등에서 칼끝으로 가면서 얇아진다. 칼의 다른 쪽 끝은 뾰족한 갈고리 모양을 하고 있다. 칼자루의 지름은 4센티미터이고 대략 9센티미터 길이의 나무 손잡이를 하나 단다. “어머니 보세요. 제가 그린 것이 우리 그 장시 뿔나무 칼 맞죠?”

어머니는 이리저리 들여다보다가 말했다. “비슷해, 비슷해. 바로 이거야. 빨리 가서 우리 거 먼저 만들어 달라고 해.”

대장장이는 연속 3일 동안 작업했고 오빠도 3일 동안 허 영감의 집에 찾아갔다. 결국, 마지막 날까지 끝다가 제일 마지막에야 장시 뿔나무 칼을 만들었다. 오빠는 칼을 받고 나서 주머니 속의 5위안을 꺼내 허 영감에게 주었다. 허 영감은 조금도 미안함 없이 바로 그 5위안을 받았다. 오빠는 장시 뿔나무 칼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다. ‘뭘 영감이 저렇게도 뻔뻔스러워.’

오빠는 어머니에게 칼을 건네며 말했다. “끝내 우리 칼을 배상했네요. 쉽지 않네요.” 오빠는 그 5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서늘 맞이

무더운 여름, 땀방울이 사라지고 밝은 달이 떠올라 밤바람이 솔솔 불어오면서 하

루 더위가 풀리기 시작했다. 온 가족은 예전처럼 바람을 쐬러 탈곡장에 나갔다. 오빠는 어머니의 등나무 의자를 탈곡장에 미리 준비해 놓았다. 등나무 의자 위에는 부채가 놓여 있었고, 옆에 놓인 작은 사각 의자 위에는 식힌 물을 담은 짙은 녹색의 범랑 차 항아리가 놓여 있었으며 뚜껑은 잘 덮여있었다.

이윽고 온 가족이 탈곡장에 모였다. 각자 부들부채를 들고 있었고 가끔 부채를 흔들며 모기를 쫓곤 했다. 탈곡장 양쪽에 있는 나무들은 잎이 무성하고 덩굴이 숲처럼 얽혀있었다. 귀뚜라미가 귀뚫귀뚫 울고, 반딧불이 머리 위에서 반짝이는 것이 마치 용춤을 추는 것 같았다.

저녁 바람이 숲 사이로 불어와 몸에 스치니 시원하고 아주 상쾌했다. 탈곡장에는 큰 녹나무의 그림자가 있었는데 달빛에 생긴 그 나뭇잎 그림자는 마치 무늬가 그려진 천을 펼쳐놓은 것만 같았다. 갑자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노란 고양이 한 마리가 쥐를 입에 문 채 날래게 뛰어내렸다가 다시 조용한 곳으로 뛰어가서 숨어버렸다.

대화는 노란 고양이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며칠 전에 집에서 도둑맞은 닭 이야기까지 흘러갔다. 어머니는 “정말 속상한 게 뭐냐면 그놈의 도둑이 큰 수탉마저도 훔쳐 갔다는 거야. 참 지독한 놈이야. 나에게 씨암탉 한 마리라도 남겨줬으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 할 텐데.”

그 마을에서는 닭도 물고기도 키울 수 없었다. 우리 집에서 물고기를 기르던 연못은 바로 집 앞의 도로 아래쪽에 있었는데 재작년에 오빠는 읍내에서 초어 치어 20마리를 사와 연못에 넣었다. 그리고 평소에 밭에서 잡아 온 붕어도 연못에 넣었다. 새해가 다가올 무렵 초어는 한 마리 무게가 서너 근에 이를 만큼 크게 자랐다. 어머니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물고기를 보러 다녔다. 푸르스름한 물고기 등이 보일 듯 말 듯 연못에 가득 찬 물은 쉴 새 없이 출렁거렸다. 양어장 옆에 쭈그리고 앉아 그것을 보고 있는 어머니는 기분이 너무 좋았다. 어머니는 물고기가 팔딱팔딱 물 위로 뛰는 소리도 좋아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뛰어오르자 어머니는 갑자기 얼굴에 광채가 났고 눈빛이 반짝이었다. 두 아들이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는 늘 물고기에 대해 말했다. “올해 설에는 생선을 안 사도 되겠어. 남에게 진 빚도 생선으로 갚자. 그게 무엇보다도 실속 있을 것 같아.”

결국, 설도 되기 전에 큰 물고기는커녕, 작은 물고기마저도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어느 날, 어머니는 집안일을 마치고 물고기를 보러 양어장에 갔는데 평소에는

도착하기도 전에 들을 수 있었던 필력은 소리가 그날만은 들리지 않고 유난히 조용했다. 어머니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재빨리 양어장으로 걸어갔다. 아니나다를 가 양어장의 물은 다 빠지고 어초만 한구석에 쌓여 있었는데 위에는 작은 붕어 한 마리가 필사적으로 버둥거리고 있었다. 물고기는 도둑맞아서 한 마리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어머니는 너무 화가 나서 두 발에 맥이 빠져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점심도 먹지 않은 채 의자에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다.

저녁 무렵 두 아들이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는 물고기를 도둑맞았다고 일러주었다. 두 형제는 그 말을 듣고도 믿기지 않았다. 그래서 연못에 달려가 봤지만 역시 헛수고였다.

우리는 닭과 물고기를 훔쳐 간 사람이 누군지 짐작이 갔다. 이웃집 허 영감의 아들이 손버릇이 매우 나빴다. 어머니는 “오늘 아침 아주 일찍, 나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연못에서 빨래하고 있었어. 너무 이른 시간이라 하도 조용해서 다듬이질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 누가 이렇게 일찍 빨래를 하나 싶어서 대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는데 바렌이 옷 한 통을 들고 연못에서 걸어 오더니 고개를 숙인 채 황급히 지나가는 거야. 그때는 물고기를 훔쳐서 옷을 더럽혔을 거라고는 누가 생각했겠어. 낮에는 사람들이 볼까 봐 아침 일찍 와서 빨래했던 거였네. 그런데 우리가 그 집 사람들이 물고기를 훔치는 걸 현장에서 잡은 것도 아니고, 아무런 증거가 없잖아. 인제 와서 어찌하겠어.”라고 했다.

불과 며칠이 지난 후, 허 영감의 아들은 전선을 훔친 죄로 감옥에 갇혀 4년을 선고받았다.

어느 날 밤, 탈곡장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쐬고 있는데 허 영감이 걸어왔다.

허 영감은 기가 죽어있었다. 셋째 동생이 담배를 건네고 라이터를 켜자 허 영감은 담배에 불을 붙여 겨우 한 모금 빨더니 말을 멈추었다. 허 영감은 그 담배의 빠는 쪽을 입술 가까이에 댄 채로 멍하니 있었다. 한 줄기 푸른 연기가 그의 머리 위를 지나 나른하게 사방으로 흩날렸다. 한참 후 허 영감은 입가에 쓴웃음을 지으며 뜬금없이 한마디 내 던졌다. “사는 게 참 힘드네요. 내세를 위해 착하게 살아야겠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 큰둥이

그때, 어머니 뵈러 집에 갔었다. 하루는 어머니와 함께 장터에 가려고 문을 나섰는데 막 도로에 들어서자 이삿짐을 실은 차가 스쳐 지나가더니 차에서 새끼고양이 한 마리가 떨어져 내렸다. 나는 재빨리 다가가 고양이를 손에 받쳐 들었다. 어머니는 “고양이가 아직 살아 있네. 가져가서 기르자.”라고 했다.

내가 “우리 시장 봐야 하니까 일단 길가의 풀더미 속에 숨겨놓고 표시를 해뒀다가 돌아갈 때 다시 데려가요.”라고 하자 어머니는 말했다. “안 돼. 고양이가 얼어 죽을 거야. 시장 보지 말고 그냥 집에 가자. 새끼고양이가 너무 가엽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고양이를 손에 감싸고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즉시 면으로 된 방석을 꺼내 난로 옆에 놓은 후 고양이를 그 위에 재웠다. 고양이는 방석 위에 웅크린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마침 집에 미꾸라지를 사 놓은 게 있었다. 어머니는 큰 것을 두 마리 골라 폭 삶아서 국물을 걸쭉하게 만든 후 작은 그릇에 담아 고양이 옆에 가져다 놓았다. 고양이는 맛있게 먹으면서 계속 작고 빨간 혀를 내밀어 좌우로 입술을 훑었다. 어머니는 그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이젠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잘 먹기만 하면 돼. 고양이가 잘 클 것 같아. 크면 집에서 쥐를 잡아도 되고, 목숨까지 구했으니 일거양득이지 뭐. 이름 지어주자. 그냥 순둥이라고 할까? 우리 집에서 얌전히 자라서, 크면 얌전히 쥐를 잡고, 몰래 훔쳐 먹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름을 짓자.”

그 후, 고양이는 아주 잘 컸다. 온몸에 덩실 덩실 노란 털은 번쩍번쩍 윤이 났고 앉아있는 모습은 마치 산천을 다스리는 호랑이처럼 위풍당당했다. 어머니는 고양이의 이름을 큰둥이라고 고쳤다. 큰둥이를 부를 때마다 큰둥이는 달려와 어머니 옆에 앉았고 어머니도 큰둥이를 안아주고 쓰다듬어주며 아이처럼 대했다.

큰둥이가 다 크자 사생활이 생겼는지 1년에 며칠씩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처음에 우리는 큰둥이가 다시 집에 들어오지 않을까 봐 매우 걱정했었는데 며칠이 지나자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한 번은, 큰둥이가 또 밖에 다녀왔는데 상처투성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심하게 다쳐서 앞발과 입술이 온통 피투성이였다. 딱 봐도 다른 고양이와 크게 싸운 것이다. 또 한 번은, 돌아왔을 때 꼬리가 좀 끊어져 뽕죽했던 꼬리가 뭉툭하게 변해 있었다.

큰둥이가 제일 마지막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는 우리가 아침을 먹고 있었다. 입에는 뱀을 물고 있었는데 뱀 꼬리는 큰둥이 입 밖에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있었다. 그것을 본 오빠는 즉시 부집계를 가져왔고 나는 얼른 가서 문을 닫았다. 어머니를 포함한 우리 셋은 큰둥이를 붙잡은 후 집계로 입 안에서 뱀을 집어내려 했다.

큰둥이는 그것도 모른 채 집안에서 우리를 피해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우리는 하나같이 지쳐서 숨을 헐떡거렸지만, 여전히 큰둥이를 붙잡지 못했다. 오빠는 화가 나서 큰둥이를 내리치려 했다. 그것을 본 어머니는 “됐다. 됐어. 뱀 머리는 이미 배속에 들어갔고 꼬리만 남았으니 아마 괜찮을 거야.”라고 했다. 온 가족은 문 뒤에 숨은 큰둥이가 한낮의 시간을 들여 뱀을 모두 삼키는 것을 뻔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큰둥이의 배가 불룩해지자 오빠는 “저 뱀이 작지 않네. 배가 커진 거 봐봐.”라고 했다.

그런데 그게 독뱀인 줄 누가 알았으랴. 이튿날, 큰둥이가 배탈 났는지 엉덩이 털이 잔뜩 젖어있었다. 나흘째 되던 날, 큰둥이는 활기도 없고 살도 많이 빠져 병들어 나른해 있었다. 어머니는 오빠 몰래 닭 국물에 밥을 한 사발 말아 큰둥이에게 먹였다. 큰둥이는 게걸스럽게 먹어버렸다. 그것을 본 어머니는 ‘큰둥이가 아직도 이렇게 잘 먹는 거 봐서, 차차 괜찮아질 것 같아.’라고 생각했다.

뜻밖에도 이튿날 대문을 열자 큰둥이가 탈곡장의 굴나무 아래에 죽어있었다.

우리 마을에는 죽은 고양이를 땅에 묻으면 송곳니 귀신으로 변해 사람을 해친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고양이가 죽으면 묻어 버리는 대신 나무에 매달아 썩게 해야 했다. 나와 엄마, 그리고 오빠는 미신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 나무에 걸어 놓으면 썩으면서 고약한 냄새가 날 거고 또 얼마나 많은 파리가 몰릴까.

오빠가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말했다. “밖에 가서 고양이가 죽었다고 하지 말고 집에서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세요. 내일 날이 밝기 전에 몰래 산에 가서 묻어 버릴게요.”

그 후 한동안 어머니는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나중에 또 얼룩 고양이 한 마리를 사서 키우게 하자 어머니는 좀 나아졌다.

어머니는 새끼 고양이의 이름을 샤오화(小花)라고 지었다. 어머니에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이름이었다.

## 부(富)들이

부들이는 우리 집에서 키운 암개인데 온몸이 노란 털과 검은 털로 덮여있다. 지인 집에 강아지 여섯 마리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중의 한 마리를 골라서 데려온 것이다. “어미 개가 아주 예쁘게 생겼어. 강아지가 어미 개랑 털 색깔도 똑 같으니 크면 예뻐 거야.”라고 어머니가 말했다.

개가 집에 재물을 들여오길 바랐던 마음에서 어머니는 강아지에게 부들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그리고 집안이 도둑맞지만 앓으면 다 부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부들이가 우리 집에 오기 전에, 어느 해인가 어머니는 닭 16마리를 길렀다. 그 16마리의 병아리를 키우느라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력을 들였는지 모른다. 닭 한 마리가 서너 근까지 자랐을 때였다. 어느 날 아침, 오빠가 닭장에 갔더니 닭이 모두 도둑맞아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 도둑은 흙벽돌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닭을 훔쳐 간 것이다. 오빠는 너무 놀라서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가 속상해할 것 같아서 걱정되었다. 도둑맞은 게 이번이 두 번째라서 닭도둑이 누군지 잘 알고 있었지만, 딱히 증거가 없어 어쩔 수 없었다.

어머니는 “집에 개 한 마리라도 있으면 도둑이 감히 못 올 텐데.”라고 했다. 그래서 개를 키우게 된 것이다.

부들이는 주인에게는 충실했고 남한테는 매우 사나웠다.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놓치지 않고 짖어댔는데 그럴 때면 좀 알밋긴 했다. 누가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도 부들이는 한참을 쫓아가곤 했다.

이웃집 다섯째가 우리 집 근처에 밭이 좀 있었는데, 매년 밭을 갈고 나면 농기구는 우리 집에 두고 가곤 했다. 어느 날, 다섯째가 농기구를 가지러 우리 집에 왔는데 마침 부들이가 수사자처럼 위엄있게 탈곡장에 앉아있었다. 다섯째는 키도 크지 않고 바짝 말랐으며 회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그런 상의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바지는 종아리까지 걷어 올리고 발에는 현 신발을 신고 있었다. 부들이는 다섯째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나쁜 사람 같아서 갑자기 짖어대기 시작했다. 그래서 다섯째는 길 한복판에 선 채 감히 우리 집에 농기구를 가지러 들어오지를 못했다.

부들이가 짖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뛰어나갔더니 다섯째가 젓가락보다 좀 더 굵은 막대기를 손에 들고 좌우로 흔들면서, 뒷걸음치며 애원하듯 소리치고 있었

다. “물지 마, 저리 가.” 부돌이는 말을 듣지도 않고, 위풍당당하게 다섯째에게 다가가고 있었는데 나조차도 막을 수가 없었다. 내가 몸을 돌려 막대기를 가져다 부돌이를 때리려고 하는 사이에 다섯째는 이미 부돌이에게 쫓겨 눈에 빠져 있었다. 눈의 물은 매우 깊었고 도로로부터 3미터 넘게 떨어져 있었다. 다섯째는 온몸이 흠뻑 젖어 진흙투성이가 되었다. 나는 난감하기 그지없는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너무 웃어서 배가 아프고 허리가 굽을 지경이었다.

그때 오빠가 밖에서 돌아와서 어떻게 된 일이나고 물었다. 나는 일의 경과를 상세히 오빠에게 알려주었다. 오빠는 “아직도 웃어? 그게 웃을 일이야?”라고 나에게 말했다.

오빠는 얼른 방으로 달려가 옷 한 벌과 수건, 신발을 가지고 발로 달려갔다. 발독에서 진흙을 씻고 있는 다섯째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빨리 씻고 내 옷과 바지로 갈아입어. 빨리 발을 갈자. 내가 가서 쟁기를 메어올게. 지체하지 마. 옷은 내가 가져가서 널어 말릴게. 일 마치고 입고가면 돼. 점심에 우리 집에서 밥 먹자. 많이 놀랐겠는데, 마음도 좀 달랠 겸.”

그날 점심밥은 매우 푸짐했다. 생선, 돼지고기, 당면, 채소가 한 상을 차지했다. 다섯째를 불러도 기어코 오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빠가 겨우 끌어서 집안으로 데려왔다.

뜻밖에도 식사 중 나는 다섯째의 먹는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랐다. 다섯째는 너무 점잖고 침착한 사람이었다. 음식을 천천히 입에 넣는데 씹는 소리도 전혀 나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가 가르쳤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가르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방면에서 다섯째가 교육을 잘 받았구나’라고 속으로 경탄했다.

식사 중에 나는 다섯째에게 말했다. “미안해! 오늘 너를 비웃지 말았어야 했는데. 화내지 마!”

그랬더니 다섯째가 말했다. “못난 사람들이 화를 잘 내거든요.”

밥 먹을 때 다섯째는 딱 그렇게 한마디만 했다.

## 치과 진료

어머니가 일흔여덟이 되던 해에 어금니 하나가 흔들리면서 다른 치아보다 조

금 더 튀어나와 있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음식을 씹을 때 많이 불편했다.

어머니는 전에도 치아가 두 개 빠졌지만 아파하지도 않았고 밥을 먹다가 딱딱한 것에 받혀 떨어져 나갔다.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번 치아는 진작 떨어져야 했었는데, 하필이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빠지지 않았다. 어머니가 손으로 잡아당기니 또 움직이지도 않았다.

오빠와 동생은 어머니에게 꼭 치과에 가라고 권했다. 그 치아 때문에 식사도 제대로 못 하니 참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셋째 동생은 “듣자 하니, 동네 치과의사인 황 선생님이 의술이 아주 뛰어나다고 하네요. 우리 거기 진찰받으러 가요.”라고 했다. 셋째 동생은 또 말했다. “황 선생님이 술을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술 한 병 가져다드리고 어머니가 아프지 않게 살살 해달라고 부탁해 봐요.”

어머니는 봉지에 사특주(四特酒)를 담았다. 그건 장시의 명주인데, 내가 집에 가져간 것이었다. 마을에 도착한 후 또 피단(皮蛋) 열 개를 샀다. 그 두 가지를 챙기고 나서야 어머니는 그나마 용기가 생겼는지 주저하지 않고 치과로 향했다.

진료소에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분이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눈썹은 까맣고, 홀꺼풀의 가느다란 눈은 습관적으로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셋째 동생은 다가가서 말했다. “황 선생님 맞으세요?”

의사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네, 제가 바로 황징타이(黃景臺)입니다.”

그래서 셋째는 말했다. “우리는 선생님이 의술이 뛰어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치아를 치료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시고 아픈 것을 못 견디세요. 여태껏 이를 치료받은 적이 없으세요.”

셋째 동생은 술을 꺼내어 살며시 탁자 위에 놓았다. “선생님, 듣자 하니 술을 잘하신다고요. 한번 맛보시라고 장시 사특주를 가져와 봤어요.” 셋째 동생은 피단(皮蛋)도 탁자 위에 놓았다.

황 선생님은 “안 그러셔도 되는데, 미안해서 어떡하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사특주와 피단을 집어 들고 허리를 굽혀 탁자 아래에 있는 장에 넣었다.

황 선생님은 어머니에게 다가와 말했다. “어머님, 치아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어머님’이라는 말에 어머니는 마치 전쟁터에서 구원병을 만난 사람처럼 마음이 편해졌다.

어머니는 치아를 보는 침대식 의자에 앉아있었는데 불안한 시선이 시도 때도



없이 셋째 동생에게 쏟렸다.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었다. 황 선생님은 “괜찮아요. 입을 벌려 봐요.”라고 말하고는 어머니 입에 족집게를 집어넣고 두드리며 물었다. “아파요?” 목소리는 상냥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조금 아파요.”라고 답했다.

황 선생님은 또 말했다. “이 치아는 안 뽑으면 안 되겠어요. 살에 붙어 있는 부분이 거의 떨어질 것 같네요.” 그리고 다른 치아도 확인해보고 말했다. “다른 치아 3개도 조금 흔들리네요.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음식을 최대한 꼭 씹아서 드세요. 나이 들면 누구나 잇몸이 위축되어 어쩔 수 없어요. 제 치아도 곧 그렇게 될 거예요.”

어머니가 다시 입을 벌리자 황 선생님이 족집게를 들이밀었다. 황 선생님은 족집게를 꺼내면서 말했다. “어머님, 이것 보세요.” 족집게에는 이가 하나 집혀 있었다.

어머니는 그걸 보고 “이미 뽑았어요? 전혀 몰랐네요. 아무런 느낌도 없었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라고 했다.

우리가 떠날 때, 황 선생님은 친절하고 호소력 있게 웃으며 말했다. “잘 가세요. 치아에 문제가 생기면 꼭 찾아오세요. 아프지 않게 해드릴게요.”

어머니는 황 선생님이 환자에 대해 인내심 있고 아프지도 않게 하며 ‘어머님’ 이라고 불러주기도 해서 참 좋은 의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후에는 치아를 치료하려면 그를 찾아와야겠다고 했다.

어느덧 어머니가 황 선생님에게 다닌 지 몇 년이 지났다. 어느 날 어머니는 달걀 20개, 죽엽청주(竹葉淸酒) 한 병을 가지고 오빠와 함께 치아를 치료받으러 갔다. 그런데 치과에 들어서니 한 젊은 의사가 다른 고객의 이를 봐주고 있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그것을 보고 매우 실망했다.

어머니는 그 젊은 의사에게 물었다. “황정타이 선생님은 아직 안 나오셨나요?” 그러자 젊은 의사가 말했다. “저의 아버지는 두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고 잠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오빠가 말했다. “아버님이 몸이 정정하시던데 무슨 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아프신 것도 모르고 찾아뵙지도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황 선생님의 아들은 “평소에는 아무 병도 없으셨는데 뇌혈관 파열로 쓰러지더니 그만 돌아가셨어요. 구할 방법이 없었어요.”라고 대답했다.

그제야 어머니는 “하느님도 참 너무하신다. 나보다도 열 살 넘게 젊은 분을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어요? 내 치아를 평생 도맡아 치료해줄 거라고, 끝까지 신

경 쓸 거라고 했었는데, 그 약속은 다 어찌고 벌써 가다니요.”라고 하더니 흐느끼면서 눈물을 흘렸다.

젊은 황 선생님은 어머니의 치아를 본 후, 어머니에게 틀니를 새로 박을 것을 건의했다. 어머니는 “얼마나 더 살다 죽을지 몰라요. 선생님의 아버님을 봐요. 저보다 먼저 세상을 뜨실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라고 했다.

어머니의 앞니는 85세에 드디어 다 빠져버렸다. 어머니는 평생 가꾸기를 좋아해서 언젠가 앞니가 다 빠져버릴까 봐 매우 걱정했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번 일로 큰 타격을 받았다.

어머니는 “사람이 늙은 후 앞니가 없어지면 정말 기괴하기 짝이 없어. 입이 오그라들어 먹지 않고 오래 놔둔 사과처럼 쭈글쭈글해져. 입은 다물 수 없고 말을 하면 침이 튀겨 나와. 이젠 말도 못 하겠네. 사실 사람이 너무 오래 살면 안 좋아. 하느님이 별을 주는 거야.”라고 했다.

앞니가 다 빠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익숙하지 않아서 말할 때는 침이 나올까 봐 항상 손으로 입을 가렸다. 텔레비전을 볼 때도 손으로 입을 가렸다. 밥 먹을 때는 그릇을 높이 들어 밥을 씹는 모습이 보이지 않게 했다. 어머니는 말했다. “치아가 없으니 먹을 수 없는 것은 안 먹을 거야. 난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계속 씹고 싶지 않아.”

어머니는 여든이 넘어도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항상 깨끗했으며, 머리는 깔끔하면서 단정했고, 목에 있는 흰 옷깃이 언제나 어머니의 주름져도 청초함을 잃지 않은 얼굴을 돋보이게 했다.

## 이사

2001년, 가족들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원래 살던 집을 떠나 양춘가(陽春街)에 집을 사기로 했다.

어머니가 원래 살던 집을 너무 좋아해서 이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 같아 걱정되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사리에 밝은 분이였다. 어머니는 문 앞의 탈곡장을 바라보며, 계속 여기서 살다가는 오빠와 셋째 동생의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때의 농촌은 쇠퇴하고 있었다. 여든이 넘은 어머니는 여전히

아들을 아꼈고 자신이 아들에게 부담을 줄까 봐 걱정했었다.

오빠는 마침내 양춘가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골랐다. 3층짜리 작고 낡은 아파트인데 한 가구가 살기에는 딱 좋았다. 1층과 2층에는 모두 방 2개와 거실 2개, 화장실과 주방이 있었고 가격은 8만 위안밖에 되지 않았다.

오빠가 저축한 돈은 너무 적어서 집을 사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게다가 간단한 실내 공사도 해야 했다. 그러나 오빠는 집을 꼭 사려고 결심했다. 그 집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그리고 병원에서 불과 200미터쯤 떨어진 곳에 있었다. 시장이 근처에 있었고 주변에는 상점과 음식점이 매우 많았다. 은행이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매달 월급은 거기서 찾을 수 있어서 매우 편리했다. 그 마을은 또 교통요충지여서 창사, 미뤄(汨羅), 웨양(岳陽), 핑장, 우한(武漢)으로 가는 차는 모두 그곳을 지나므로 차를 타기 편리했다.

오빠가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고 어머니에게 알렸더니, 어머니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여든이 넘어서 새로운 환경에 다시 적응하려고 하니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반드시 이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빠는 마지막으로 집을 보러 가서 계약금을 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 분필 한 갑을 사 왔다. 오빠는 바로 안채 땅바닥에 인쇄심 있게 한 획 한 획 집을 그렸다. 한 획을 그릴 때마다 어머니께 여기가 어디인지, 어디로 가는 길인지, 어머니는 어느 방에서 주무시고, 침대는 어떻게 놓고, 부엌은 어디에 있는지, 화장실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다.

어머니는 작은 걸상을 들고 와 오빠의 옆에 앉아 자세히 보고 자세히 들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눈은 초점도 없이 흐릿했다.

그래서 오빠는 말했다. “아니면 언제 차를 불러서 어머니를 모시고 한번 가볼게요.” 그러자 어머니는 “안 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너희 생각은 바뀌지 않을 거잖아. 계약금도 다 냈는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고 했다.

한참 후 어머니는 오빠에게 말했다. “아직도 집 구조를 잘 모르겠어.” 그러자 오빠는 인쇄심 있게 다시 그림을 그려서 어머니에게 보여주었다. 그렇게 몇 번이고 어머니가 묻기만 하면 오빠는 그림을 그렸는데 몇 번을 그렸는지 모른다. 나중에 어머니는 끝내 다시 묻지 않았다.

2001년 꽃피는 봄날, 나는 집에 어머니를 뵈러 갔다. 그때 새집은 간단한 공사 중이었다. 어머니는 내게 말했다. “너 내일 고생 좀 해야겠어. 나 대신 양춘가에 가서 집 한번 보고와. 네 오빠는 너무 착해서 다른 사람이 뭐라 하면 다 믿어.

손해 보기 쉬워.” 그래서 나는 “어머니도 내일 나랑 같이 가요.”라고 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난 안 가. 네가 보면 안심이 돼.”라고 했다.

나는 집을 보고 와서 말했다. “집이 아주 좋아요. 어머니가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어머니가 “다시 얘기해 줄래? 기억이 잘 안 나네.”라고 하자 나는 어머니에게 다시 알려드렸다. “대문 앞에는 60평방미터가 넘는 큰 평지가 있어요. 오빠는 거기에 시멘트를 깔아 깨끗이 만들 것이라고 했어요. 평지의 오른쪽에는 키가 크고 우뚝 솟은 녹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무성하여 녹음이 평지의 절반을 덮고 있어요. 평지 밖은 바로 큰길이라 폭이 넓어서 차가 다닐 수 있어요. 시장은 바로 집 근처에 있고 크고 작은 가게도 많아요. 아침을 먹을 수 있는 가게도 몇 개 있는데 만두, 찌빵, 국수 외에도 여러 가지 음식을 팔고 있어요.”

어머니가 “내 방은 봤어?”라고 묻자 나는 “물론 봤죠. 어머니와 오빠는 2층에 살아요. 2층이 그나마 조용해요. 1층은 장사 때문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라고 대답했다.

어머니 방에는 침대 두 개를 놓고 저녁에 셋째 동생이 돌아오면 어머니랑 같이 한방에서 자고 셋째 동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오빠가 어머니와 한방에서 자기로 했다. 어쨌든 어머니를 혼자 방에 둘 수는 없었다.

오빠는 말했다. “어머니의 거울 달린 옷장은 옷을 담은 그대로 옮길게요. 어머니가 쓸 때 익숙해서 좋을걸요. 부엌의 텔레비전을 올려놓는 작은 궤짝도 옮겨가서 어머니가 드실 것을 안에 넣으면 돼요. 그리고 위에는 컬러텔레비전을 사서 올려놓고 어머니가 보고 싶은 것은 다 보세요. 책상 하나 더 사서 셋째 동생이 수업 준비할 때 쓰게 하지요. 등나무 의자 하나를 가져다 놓아도 방이 매우 넓어요. 어머니, 의자는 필요할 거잖아요. 나중에 다른 물건도 필요하면 살게요.”

어머니는 나에게 말했다. “이사할 때 너 꼭 돌아와야 해. 너 없으면 이사를 할 수 없어. 물건의 어디에 있는지 아무것도 찾을 수 없어.”

나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사할 때 일찍 와서 정리할게요. 새집에서 어머니랑 며칠 더 지내다 갈게요.”라고 답했다.

어머니는 마침내 표정이 온화해지더니 눈에 웃음을 띠면서 말했다. “네가 있으면 난 두려울 게 없어. 뭐든지 너에게 의지해야 하는구나. 늙으니 참 쓸모가 없네.”

시간은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 어느덧 10월 소춘이 됐다. 어느 책에서 봤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데, 누군가가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나는 그걸 절실

하게 느꼈다.

나는 어머니 곁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는 내게 말했다. “오늘은 일찍 자. 쓰지 않는 물건은 어제 이미 포장해 놓았어. 며칠 후에 옮기면 돼.”

오빠는 이미 수십 개의 자루를 준비해 놓았다. 나와 어머니는 물건을 종류별로 나누어 자루에 넣은 후 어머니의 겨울옷이나 여름옷, 두꺼운 이불과 얇은 이불이 적혀 있는 종이 한 장을 자루 안에 넣었다. 오빠와 셋째 동생의 물건도 그렇게 적어 넣었다. 자루 곁에는 어머니 것, 오빠 것, 셋째 동생 것이라고 써놓았다.

이사할 날짜는 미리 정해 놓았는데 비가 와서 이사하지 못할까 봐 걱정되었다. 하늘이 소원을 이루어 준 듯 이사하는 날은 햇살이 따사로웠다. 산들바람이 불어 굴나무 가지가 살살 흔들리는데 어머니와 손짓하는 듯했다. 2.5톤짜리 화물차가 집에서 40~50미터 떨어진 곳까지밖에 올 수 없어서 물건은 들어 옮겨서 차에 실어야 했다. 생각지 못했던 것은 그토록 몸을 아끼던 허 영감의 온 가족이 모두 나와서 가장 무거운 물건들을 날라주었다. 바렌은 억누를 수 없는 눈물을 펄펄 흘렸다.

물건을 차에 실은 후 어머니는 각 방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방에는 허 영감에게 줄 가구가 많이 남아있었다. 모두 평소에 어머니가 자주 쓰던 물건이었다. 어머니는 떠나기 아쉬운 표정을 보였다. 하기가 그럴 수 있지. 어머니는 그 집에 얼마나 많은 정이 들어있을까. 나는 어머니의 팔짱을 끼고 탈곡장에 걸어갔다. 어머니는 주위를 둘러보고 잠시 주춤거리더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중얼거렸다.

마침내 어머니는 평온해 보였고 편안한 모습으로 나더러 부축하라 하고 차를 향해 걸어갔다.

나와 어머니가 금방 차에 탔을 때 바렌이 눈물을 흘리면서 차 문 옆에 나타났다. 망가진 눈은 한참 지나 한 번씩 깜박이고 있었다. 바렌의 머리카락은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먼지가 가득했으며 귀밑머리는 이미 흰머리가 되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어머니는 따스한 눈길로 바렌을 바라보며 말했다. “바렌, 잘 지내. 이제 우리 집에 놀러 와. 오전에 와서 점심 먹고 가.”

차는 비틀거리며 마을 길을 지나 도로로 향했다. 30분 정도 지나자 새집에 도착했다.

오빠는 열심히 물건을 옮기고 있는 셋째 동생에게 말했다. “먼저 어머니 짐부

터 옮겨. 어머니가 설 수 있게 어머니 방부터 먼저 정리해내.” 곧 두 개의 침대가 놓이고 옷장도 옮겨졌다. 어머니는 옷장의 거울을 은처럼 광이 나게 닦아놓았다.

어머니가 등나무 의자에 앉자 나는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집 괜찮죠?” 그러자 어머니는 짜늘하게 말했다. “위층으로 올라가기가 좀 귀찮아. 그래도 원래 살던 집이 더 편해.” 나는 또 “그런데 원래 살던 집은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문제예요. 비가 새기 시작하면 큰일이에요. 물건 사라 다니기도 불편하고요. 어머니는 여기서 차츰 익숙해질 거예요.”라고 했다.

새집으로 이사한 후 나는 17일 동안 어머니와 함께했다. 그동안, 어머니는 적적하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의 팔짱을 끼고 시장에 장 보러도 다니고 상점에도 다녔다. 어머니가 쓸 물건을 다 샀다. 나는 어머니에게 여러 번 말했다. “저를 그리워하지 마세요. 몇 달 후에 또 올게요. 어머니가 없으면 저는 안 와요. 그러니까 잘 지내셔야 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좀 지나서 다시 나에게 말했다. “너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또 헤어질 때가 되었는데.”

매번, 만남은 짧고 헤어짐은 너무 힘들었다.

### 어머니가 양춘가에서의 나날들

1년에 두 번 후난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뵈는 것은 내가 스스로 정한 규칙이었다. 그 당시 어머니는 이미 여든이 넘었기 때문에 백 살까지 산다 해도 나는 어머니를 30번 정도밖에 볼 수 없었다. 한 번 보면 한 번이 줄어드는 셈이었다. 그렇게 계산해보니 너무 슬펐다.

매번 집에 도착한 첫날 밤이 되면, 어머니는 늘 끝없이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몇 달 동안 못 한 말을 하룻밤에 다 해버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나에게 말했다. “양춘가에서 사니까 안 좋아. 처음 이사 왔을 때는 네가 있어서 그걸 못 느꼈어. 네가 가자마자 댁이 나간 것처럼 의지할 곳이 없어졌어. 원래 살던 집에서는 밥도 짓고, 반찬도 하고 했었는데, 음식을 꼭 삶아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 그렇게 할 일이 좀 있으면 시간 보내기가 수월하잖

아. 여기에 오니 내 집이 아니고 매일 손님인 것 같아. 가끔 부엌에 가도 지적하  
기가 좀 그래. 마음속으로는 밥을 딱딱하게 짓지 말고, 반찬은 좀 흐물흐물하게  
삶았으면 하고 생각되어 말을 하려 해도 괜히 잔소리 같아 말도 못 했어. 네 오  
빠와 셋째 동생은 내 자식이니까 뭐라고 해도 괜찮지만, 개들 대하는 것처럼 남  
에게 요구할 수는 없잖아. 원래 살던 집에 있을 때는 많은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여러 명이 함께 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말을 많이  
하면 안 돼. 완전히 다른 생활이야.”

어머니는 계속해서 말했다. “살면서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열에 아홉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 이런 작은 일로 불평을 부릴 수는 없지. 누구를 탓하겠  
어? 결국은 내가 늙어서 쓸모가 없어 그렇지.”

그 말을 들은 나는 마음이 쓰리고 아팠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  
니, 우리 집에 와서 살아요. 제가 모시고 살게요.”

어머니는 “칠십불유숙, 팔십불당찬(七十不留宿, 八十不當餐<sup>15</sup>)이라고 내가 이제  
여든이 넘었어. 너의 집에서 살다가 죽게 되면 너한테 안 좋아.”라고 했다.

어머니는 또 말했다. “난 나약한 사람도 아닌데 늙으니 강건해지지 않네. 밥  
한 숟가락에 목이 메어 한참 동안 소리도 내지 못할 때가 있어. 가끔 오이가 먹  
고 싶어서 부엌에 가서 오이를 푹 삶아 달라고 말했는데 식탁에 올라온 오이는  
여전히 먹을 만하지가 못했어. 속상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

나는 무슨 말을 해서 어머니를 위로해야 할지 몰라서 계속 말했다. “우리 집에  
가서 살아요. 거기서 살다가 돌아가셔도 괜찮아요. 그곳에 묻으면 되죠. 우리 서  
로 의지하면서 살아요.”

그 말이 어머니를 웃길 줄이야.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사람을 묻을 수 없  
는 곳이 어디 있겠어? 어디에서 죽으나 마찬가지야. 나는 상관없어. 죽으면 아무  
것도 모르니까. 살아 있는 사람이 괴로울까 봐 그러지. 내가 내 딸을 괴롭히면  
안 되지.”

어머니는 마음속에 많은 고충이 있었지만, 여태껏 얼굴에 드러내지 않았다. 차  
림새는 여전히 점잖고 깔끔했으며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올렸다. 어머니의 머리  
는 지금까지 부스스 흘날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머리를 감은 후, 항상 기름을  
조금씩 바랐다. 그 기름은 내가 특별히 어머니에게 사드린 것인데, 브랜드는 기  
억나지 않는다. 5위안에 샀는데 작은 병에 들어있었고 투명하고 은은한 향이 났

15) 나이가 너무 많은 사람이 외출에 불편을 겪는 것을 말하며, 가능한 한 친척이나 친구 집에서 숙  
박하거나 연회에 가는 것을 피해야 한다. (속담)

다. 그리고 바이올렛 파우더도 있었다. 분홍색이고 바이올렛 향기를 풍겼는데 냄새가 너무 좋았다. 어머니는 파란색 체크 무늬가 있는 작은 손수건에 파우더를 조금 부어 외출할 때면 그 손수건을 꼭 챙겼다. 가끔, 어머니는 손수건을 꺼내 먼저 가루 없는 면으로 얼굴을 깨끗이 닦은 후 다시 가루 있는 면으로 얼굴을 툭툭 두드렸다. 그러면 얼굴이 하얗고 상쾌해졌다. 어머니는 말했다. “이미 습관 되어서 고칠 수 없어.”

그런 습관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 바이올렛 파우더도 물론 내가 사드린 것이다. 한 봉지에 1위안 2마오였는데 한 봉지를 사면 어머니는 1년 넘게 쓸 수 있었다. 지금은 구할 수가 없다.

어머니는 말할수록 신이 나서 눈이 반짝거렸다. 그러나 8시간 동안 차를 타고 온 나는 견딜 수 없는 피곤함에 계속 하품을 했다. 나는 황급히 손으로 입을 가렸다. 차마 어머니 흥을 깨지 못해서였다.

어머니는 계속 말했다. “이 집에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밥 먹는 거실이 넓은 거야. 다른 집도 가봤는데 다 우리 집보다 작아. 네 세대가 함께 앉아도 비좁지 않을 만큼 큰 식탁을 놓을 수 있어. 창문도 거의 한쪽 벽을 차지할 만큼 커서 바람이 잘 통하고 매우 환해. 창문 밖을 내다보면 논밭이고, 더 멀리 바라보면 작은 산들이 겹겹이 있어. 바깥 경치가 계절마다 달라. 아침저녁에도 다르고, 맑은 날, 흐린 날이 다 달라. 나는 늘 저쪽에 서서 창밖을 내다봐. 마치 옛날 집에 있을 때 대문 앞에 서서 밖을 내다보던 것처럼 말이야…….”

나는 “네”, “네”라고 두 번 대답한 후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 자리에서 바로 잠들어 버렸다. 결국, 어머니는 내가 온종일 차를 타서 피곤하므로 잠을 자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말했다. “빨리 자, 빨리 자. 내일 계속 이야기하자.”

## 수술

2002년 하반기 어느 날, 어머니의 전화를 받자마자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들었다. 어머니가 슬픔을 억누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어머니, 무슨 일 생겼어요? 빨리 알려줘요.”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천천히 말했다. “내가 시력이 심하게 떨어져 맞은편에 있는 사람 얼



굴도 잘 보이지 않아. 그리고 밥 먹을 때도 탁자 위에 있는 음식이 잘 안 보여. 책은 아예 볼 수 없어. 산송장이 된 거지. 먹고 자고, 자고 일어나면 앓아있고, 이려고 어떻게 살아.”

그 말을 들은 나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병원에는 가봤어요?”

어머니는 말했다. “네 오빠와 함께 현 병원에 갔었는데, 의사가 백내장으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 나이가 많아서 수술해도 별로 소용이 없을 것이니 헛돈을 쓰지 말라고 하더라. 의사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의사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니. 곧 눈이 멀 것 같아.”

그러자 나는 말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백내장은 아주 간단한 수술을 하면 돼요. 현 병원에서 수술을 안 해주면 난창(南昌)에 와서 해요. 성 일급 병원은 아마 기술이 더 나을 거예요. 어머니, 이 일은 미루면 안 돼요. 고민하지도 말고 빨리 갈아입을 옷들을 준비하세요. 내일 표를 사서 모레 집에 모시러 갈게요. 난창에 와서 수술해요”

어머니는 내 말을 듣고 나서 “정말 난창에 가서 눈이 나아지면 좋겠건만, 나아지지 않으면 돈도 낭비하고 고생만 하는 거잖아.”라고 했다.

나는 또 말했다. “어머니,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일단 난창에 오기만 하세요. 나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최선을 다해야 해요. 누가 가망이 없다고 말해도 우리는 일단 노력은 해야죠. 제 말을 들으세요.”

그제야 어머니는 희망이 보였는지 힘차게 말했다. “알았어.”

고향에 급히 돌아가 어머니를 보고 나서야 마음이 놓였다. 어머니는 눈이 보이지 않아도 초조해하거나 잔소리를 하지 않았다. 여전히 조용했고, 옷차림은 단정하고 깨끗했으며, 머리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품위가 있었다. 다만 식사할 때가 되니 다른 사람에게 반찬을 집어달라고 했다. 어머니는 눈앞의 음식이 보이지 않았다. 세수하고, 발 씻고, 머리 빗는 일들은 어머니가 스스로 하겠다고 고집했다. 가장 큰 문제는 책이나 텔레비전을 볼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어머니에게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어머니는 하루하루를 힘겹게 지냈다.

그날 밤 나는 어머니와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머니의 눈은 상반기부터 잘 보이지 않기 시작했지만, 나이가 들어 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늙은이가 젊은이와 똑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시력이 그렇게 빨리 떨어질 줄 몰랐단다. 그래서 많이 놀란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나는 “어머니, 조급해 마세요. 저는 웬지 어머니가 눈이 멀지 않

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치료받으면 나아질 것 같아요. 겨우 현 병원에 다녀왔을 뿐인데, 별거 아니에요. 우리 내일 바로 난창으로 떠나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너 오늘에야 돌아왔는데 내일 바로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 이틀만 있다 가자. 네 오빠와 셋째 동생과 상의도 해봐야지.”라고 했다.

나는 상의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설마 오빠와 셋째 동생이 수술을 못 받게 할까.

어머니는 말했다.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내가 이번에 가면 돌아오지 못할까 봐 걱정돼서 그래.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는데 함께 이틀 더 머물다 가자.”

어머니는 이미 연세가 여든여덟 이셨고 남은 인생이 길지 않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삶과 죽음에 대해 일찍이 깨달아 죽음을 일종의 귀향으로 보았다. 어머니는 늘 우리에게 말했다. “인생은 연극과 같고, 죽음이야말로 진정한 귀결이야. 산다는 건 아직 무대 위에 있다는 거야.”

나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난창에 가면 난난(큰 딸)이가 저의 든든한 후원자이죠. 난난이는 출근 시간이 정해지지 않아서 휴가를 신청할 필요도 없어요. 어머니와 함께 눈 치료받으러 갈 시간이 있어요. 어머니가 저를 의지하면 마음 든든한 것처럼, 저는 또 난난이를 의지하죠. 저는 난난이가 곁에 있으면 모든 게 두렵지 않아요.”

어머니는 웃으면서 내 말을 따라 했다. “나는 네가 하자는 대로 하고 널 의지하지. 넌 또 난난이가 하자는 대로 하고 난난이에게 의지하지. 그야말로 대를 잇는구나!”

난창에 가서 하루만 쉬 후 난난이와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장시 무장경찰 종합병원 안과 센터로 갔다. 전문가는 백내장으로 인한 시력 저하이고, 수술은 할 수 있지만, 수술의 성공 여부는 확신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했다. 또 나이가 많아 수술 후 일주일간 입원해야 했다. 어머니는 평생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어서 그 말을 듣자 수술을 안 받으려고 했다.

우리는 또 94병원에 갔다. 94병원에서 하는 말은 무장경찰병원과 거의 똑같았다.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 않고 또 보아이(博愛)안과병원으로 갔다.

보아이안과병원에서 의술이 제일 뛰어난 허하나(何娜娜) 선생님이 어머니를 위해 꼼꼼히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가 끝나자 허 선생님은 어머니 맞은편에 앉아 잠시 망설이다가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는 “여든여덟이에요.”라고 답했다.

선생님은 또 말했다. “여든여덟인데, 아직도 이렇게 품위가 있으시네요. 어르신은 예전에 무슨 일을 하셨나요?”

나는 “어머니는 예전에 교사였어요.”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선생님이 말했다. “어쩐지 학식이 있어 보인다 했어요” 그리고, 얼른 말머리를 돌려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르신의 눈은 백내장으로 인한 실명이에요. 그리고 눈 밑에 황반이 많아서 매우 심각해요. 기계가 오래되면 녹이 스는 것처럼, 사람도 연세가 들면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어요. 수술은 해드릴 수 있지만,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난달에, 92세 어르신에게 수술을 해드렸어요. 그 어르신은 다섯 세대가 함께 살았는데, 가족 십여 명이 자신만만하게 병원에 왔었어요.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으니 어르신이 볼 수만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수술하니 빨리 나왔고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자 저를 찾아와 또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기계가 노화되어 고칠 수 없는 것처럼, 어쩔 수 없다고 알려드렸어요. 어르신도 똑같이 돈은 돈대로 쓰고 오래 유지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 사실 우리도 돈을 벌고 싶지만, 돈을 버는 데도 일리가 있어야지 헛돈을 쓰게 할 수는 없잖아요.”

허 선생님이 매우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고 우리도 집중해서 들었다. 결국, 수술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답답한 얼굴로 연거푸 말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술하지 않겠습니다. 늙으면 현실을 받아들여야죠.”

어머니는 정말 마음이 강한 분이였다.

그에 비해 나는 감사하다는 말조차 하지 못한 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실망감이 안개처럼 내 마음을 흐리게 했다.

어머니는 나의 그런 모습을 알아채고 말했다. “너도 나를 따라 배워야 해. 넘지 못할 고비는 없어. 세상에 시각 장애인이 그렇게 많은데 다 살아가잖아. 하물며 내 이 나이에 얼마나 살겠다고.” 그 소리는 나뭇잎 사이로 새어 나오는 바람처럼 가볍게 내 얼굴을 어루만졌다.

나와 난난이는 아무 말도 없이 어머니를 부축하고 계단을 내려갔다. 세 번째 계단까지 내려왔을 때 난난이가 갑자기 말했다. “병원 벽에 있는 예약란에 오늘 베이징에서 의사가 온다는 글이 있었어요. 그 의사를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제가 줄 서서 접수할 테니 대기실에 앉아서 기다리세요.”

한참 후에, 난난이가 기뻐하며 달려왔다. “할머니, 접수했어요. 우리 베이징에

서 온 의사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아요.”

의사는 40대의 남자로, 피부가 하얗고 깨끗했으며, 매우 잘생겼고 상냥했다. 어머니의 눈을 검사한 후 말했다. “빨리 수술해요. 수술하면 나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허 선생님이 했던 말을 그에게 알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베이징에서 온 그 의사는 웃으며 말했다. “장시 의사는 좀 신중합니다.”

나는 가슴이 기쁨으로 가득 차서 연거푸 말했다. “꼭 수술할게요. 지금 바로 가서 예약할게요.” 눈앞의 모든 것이 마치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 느낌은 너무 좋았다.

국산 인공수정체는 3,500위안이고 수입품은 5,500위안이었다. 우리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수입품을 선택했고 그 자리에서 바로 보증금 3,000위안을 냈다. 그러나 수술은 19일 뒤에나 가능했다.

어머니를 모시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검사를 하면서 층계를 여러 번 오르내렸다. 병원은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짜리 건물이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는 이미 기진맥진해졌다. 모든 것을 마치고 차 옆으로 걸어갈 때 어머니는 발걸음이 매우 느렸다. 그러나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 위로 비추어진 햇빛은 마치 어머니의 얼굴에 금빛 너울을 드리운 듯 아름다웠다.

열아흐레는 너무 길게 느껴졌고, 우리는 하루하루 지나는 날을 세어가며 기다렸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고 어머니는 석양처럼 서서히 지고 있었다. 몸은 점점 말라 갔고,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으며, 목소리는 점점 힘이 빠졌다.

수술 일자를 기다리는 동안 어머니는 늘 책꽂이에서 책을 꺼내 흐린 눈을 뜨고 애써 표지에 있는 그 몇 개의 큰 글자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손으로 표지를 앞뒤로 매만졌다. 그리고 다시 한 권을 뽑아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매번 어머니의 그런 행동을 볼 때면 슬픔이 밀려 들어와 눈물이 쏟아졌다. 내가 신문을 가지고 돌아와도 어머니는 그 제목들을 보려 했다. 어머니가 어떤 제목에 끌리는 것 같으면 나는 어머니에게 내용을 읽어 드렸다. 내가 어머니께 책을 읽어드리려 하자, 어머니는 내가 할 일이 많으니 그렇게 많은 시간을 어머니에게 낭비하지 말라고 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무언가를 흥얼거리고 있는 것 같았다. 자세히 들어보니 경극 ‘사랑탐모(四郎探母)’중의 한 곡조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새장에 갇힌 새처럼 날개가 있어도 펼치기 어렵고, 나는 산을 떠난 호랑이처럼 외롭네. 나는 남쪽에서 온 기러기가 무리에서 떨어진 것처럼, 나는 물에 사는 용이 모래사

장에 갇힌 것처럼…….” 그 몇 마디의 가사를 듣고, 나는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드디어 수술하는 날이 되었다.

수술실의 에어컨이 온도가 낮게 설정되어있어 어머니가 추울 것 같았다.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가 어머니에게 조끼를 건네려고 간호사에게 알렸다. 난난이가 조끼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수술실 모자를 쓴 채 조용히 앉아있었다. 난난이는 작은 소리로 물었다. “할머니, 무서워요?” 그러자 어머니는 “아니.”라고 답했다.

드디어 어머니가 수술할 차례가 되었다. 간호사는 나와 난난이를 수술실 문 앞으로 불러냈다. 문은 살짝 열려있었다. 베이징에서 온 의사가 온화한 눈빛을 하고 문 앞에 나타났다. 의사는 진료차트를 들고 우리에게 말했다. “어르신이 연세가 좀 많으셔서 눈 밑에 황반이 좀 많아요. 수술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수술 동의서를 건넸다. 위에는 “수술이 실패하면, 결과는 본인이 책임진다.”라는 문구가 있었고 의사는 우리에게 서명하라고 했다.

나는 즉시 그 위에 서명했다.

마침내 수술이 끝나자, 의사는 고개를 내밀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말했다. “수술이 매우 성공적입니다!”

어머니의 눈은 거즈로 덮여있었다. 나와 딸은 어머니를 부축해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차를 타고 곧장 집으로 갔다.

내일, 내일은 경사로운 날일 것이다.

이튿날, 나와 어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어머니는 말했다. “오늘 어차피 병원에 가서 거즈를 벗기고 시력검사 할 건데 차라리 지금 그냥 거즈를 벗겨 볼까?”

나는 너무 불안했다. 만약 어머니의 시력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후에는 어떠한 희망도 없었다.

어머니를 마주한 나는 손이 떨리고 심장이 빨리 뛰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거즈를 벗겨낸 후 숨을 죽이고 말했다. “어머니, 눈 떠보세요.”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뜨더니 놀람과 기쁨에 넘쳐 말했다. “보여! 네 눈과 코가 똑똑히 보여!”

그리고 바로 가까이에 있는 신문을 가져다 보았다. 신문의 작은 글씨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수술은 성공했다. 나는 감격하여 기쁨의 눈물이 솟구쳤다.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딸, 오빠와 셋째 동생에게 희소식을 알렸다.

병원에서 시력검사를 하니 어머니의 시력은 0.8이었다. 일주일 뒤 어머니는 책을 보기 시작했다. 휴식을 많이 취하라는 나의 말에 어머니가 말했다. “여기 있는 책들 다 마음에 들어. 내가 갈 때 몇 권 챙겨줘. 지금은 적당히 볼게.” 그러자 나는 말했다. “다 해드릴게요. 하지만 지금은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눈을 혹사하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말한 후부터 어머니는 많이 자제했다. 책은 적게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텔레비전을 보곤 했다.

## 성묘

셋째 동생은 아침 일찍 두 번씩이나 찾아와 도대체 몇 시에 어머니 묘소에 갈 거냐고 물었다.

상의 끝에 10시에 묘소에 가기로 했다. 이때 태양은 이미 구름을 뚫고 나와 대지를 환하게 비췄다.

나와 셋째 동생은 조카의 차를 타고 가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어느 길 입구에 이르자 차가 더는 앞으로 갈 수 없었다. 조카가 차를 세우자마자 나는 쓴살같이 차에서 내려 곧장 산으로 걸어갔다. 나는 분명히 기억한다. 어머니가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농촌에서는 이젠 나무를 뿔감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산에는 뻑뻑한 나뭇가지가 서로 엉켜 오솔길을 덮고 있었다. 울퉁불퉁한 산길은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지곤 했다. 나는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다. 다시는 어머니를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내 가슴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어머니의 묘지는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고 묘비는 매우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었다. 무덤은 시멘트로 해놓아 잡초도 없었으며 위풍당당하고 장엄했다. 나는 무덤에 엎드려 통곡하면서 꿈속에 나타나 달라고 어머니께 부탁했다.

나는 동생과 조카의 위로를 받으며 아쉬움이 가득한 채로 어머니를 떠났다. 그

리고 다른 오솔길을 거쳐 옛날에 살던 집을 보러 갔다.

예전에는 옛집으로 통하는 그 오솔길을 걸으면 금방이라도 어머니를 만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 오솔길은 마치 내 마음으로 통하는 길처럼 내가 어디를 가거나, 아무리 멀리 가도 항상 내 마음을 집으로 끌어당겼다.

피약별이 내리쬐던 어린 시절의 한여름, 맨발로 그 길을 수없이 뛰어다녔던 기억이 난다. 땅이 너무 뜨거워서 발이 매우 아팠지만, 그때는 즐거웠다. 집에 가면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낡은 집은 이미 무너져 내려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니었다. 저녁 무렵의 노인 같기도 하고,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외판 아이 같기도 했다.

시멘트로 된 깨끗했던 탈곡장의 바닥은 채소밭에서 뺏어온 흙덩굴로 가득 찼으며 부채만큼 한 줍있는 피약별에 허영게 되어 웅크려져 생기가 없었다.

어느 나쁜 놈이 잘랐는지는 모르겠는데 여섯 그루의 큰 굴나무는 이미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과일나무마저도 놓아 주지 않다니…….

휴! 모든 것이 과거가 되어버렸다. 현실이 그렇고 인생도 그렇다. 별수 없는 일이다.

오직 문 앞에 있는 큰 녹나무만 여전히 우뚝 솟아 있고 활기가 넘쳤다. 나무 꼭대기의 가지가 푸른 하늘로 치솟았고, 높은 곳에 까치집 네 개가 보였다.

## 제2장 고향

떠다니는 나무처럼, 지푸라기처럼



## 원시우(文秀)

—

우리 집에서 5리가량 떨어진 곳에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는 허씨 성을 가진 십여 가구가 살고 있었다. 그중 한 집에는 모자가 살았는데 아들의 이름은 송린(松林)이라고 했다. 송린은 대나무로 물건을 만드는 솜씨가 있었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스물일곱 즈음에야 장가를 갔다. 그 젊은이는 얼굴이 넓적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해 잘생긴 얼굴이었다. 송린은 천성이 착하고 온화한 젊은이이며 지역에 손꼽히는 훌륭한 대나무 장인이었다.

송린의 집사람 원시우는 평장 위안자동(袁家洞) 깊은 산골 출신 아가씨였는데 그런 깊은 산속에서 놀랍게도 엄청난 미인이 나온 것이다. 원시우는 매우 예쁘게 생겼다. 계란형 얼굴에 하얀 피부, 그리고 입과 코는 단정하게 생겼고 성격은 밝고 친절했다.

그들 부부는 마을에서 매우 인기가 많았다. 두 사람이 함께 나타나면, 사람들은 부러움의 눈길을 보냈고 작은 소리로 말하기도 했다. “저 두 사람 좀 봐요.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해, 원시우가 임신한 지 4개월이 되던 때였다. 시골 사람들은 임신해도 별반 다름이 없이 그대로 일을 했다. 게다가 원시우는 부지런한 사람이라 절대 쉬지 않았다.

어느 상쾌한 날, 하늘에는 구름이 두둥실 떠다니고, 햇빛이 구름층 사이에서 비쳐 들어와 그다지 뜨겁지 않았다. 일하기 딱 좋은 날씨라고 생각한 원시우는 장작을 구하려고 땔나무용 칼을 들고 오솔길을 향해 산으로 걸어갔다.

산간 평지의 장작은 이미 다 잘라갔기에 원시우는 계속 앞으로 걸으며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그러다가 산꼭대기에 있는 뾰뾰한 관목들을 발견했는데 자른 흔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곳에 장작을 구하러 올라간 것이다.

산꼭대기를 향해 올라가던 원시우는 순간 부주의로 튀어나온 돌을 밟아 다리가 휘청거리며 비틀하더니 그만 넘어져 버렸다. 주위의 관목은 다 잘라가서 미처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산 아래로 굴러 내려갔다. 그렇게 3~4미터 굴러떨어져 나무 그루터기에 얼굴을 부딪쳤는데 그루터기의 비스듬한 단면이 마치 날카로운 칼 같아 그녀의 뺨을 깊숙이 찢어버리고 말았다.

원시우는 처음에 정신이 없어서였는지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다가 얼굴을 만져 보았더니 손이 온통 피투성이가 되었다. 차츰 피가 턱을 지나 목으로 흘러들어갔고 입안에서 주룩주룩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다. 맛은 비리고 째다. 원시우는 그대로 얼굴을 가린 채 다급하게 집으로 달려갔다.

시어머니는 즉시 타박상을 치료하는 의사를 모셔와서 원시우에게 약초를 발라주었다. 그때에야 원시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아픔을 느꼈다. 그녀는 음식을 먹을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었고, 입안에는 수만 갈래의 철사가 얽혀 있는 것처럼 조금만 움직여도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원시우는 매일 앉거나 누워있기만 했다. 그러다 밥 먹을 때가 되면 시어머니가 미음을 한 사발 가져와 머리를 젖힌 원시우에게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먹였다. 원시우는 미음을 천천히 목구멍으로 흘려보냈다.

쑹린이 일을 마치고 집에 올 때, 마침 원시우에게 미음을 먹고 있으면 그때마다 그 옆에 가서 조용히 앉아있었다. 그녀에게 말을 하려고 몇 번이나 입술을 달싹거렸으나, 무슨 말로 원시우를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그저 애뜻하게 바라보고만 있다가 음식을 힘겹게 삼키는 원시우의 모습을 보고는 눈물을 삼키곤 했다. 쑹린의 눈빛만으로도 원시우는 마음이 따뜻해지고 통증을 덜 느꼈다.

어느 날, 의사가 원시우의 약을 갈아주며 말했다. “이제 5일 지나면 한 달이 되네요. 이젠 상처가 거의 아물어서 5일 후에 스스로 약초를 제거하면 됩니다. 저는 다시 안 와도 될 것 같습니다. 약초를 제거하고 세수할 때는 손으로 살살 씻으세요. 상처가 아직 완전히 굳어진 건 아니라서 좀 아프긴 할 거예요. 그래도 이젠 큰 문제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간은 달팽이처럼 느릿느릿 지나갔고 간신히 5일을 견디어 냈다. 찢기고 날카로운 아픔은 어느 정도 사라졌다. 이제 원시우는 자신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만 알고 싶었다. 방에 앉아있는 그녀는 마음이 매우 조마조마했고 두려움이 이따금 엄습했다. 그날, 원시우는 조용히 창가에 앉아 쑹린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계란 노른자 같은 거대한 석양이 천천히 몰려가며 노란빛의 옅은 구름 몇 가닥이 연기처럼 주위를 휘감고 있었다. 마침내, 타박타박 박자가 있는 발걸음 소리가 멀리에서부터 차츰 가까워졌다. 그것은 쑹린

의 발걸음 소리였다. 송린에게 부탁해 약초를 제거하려 했다.

방안으로 들어온 송린은 다정하게 원시우의 이름을 불렀다. 원시우는 재빨리 일어나 송린의 허리를 껴안고 말했다. “여보, 빨리 약초 좀 뜯어줘요. 거울을 보고 싶어요.”

송린은 순순히 약초를 제거했다.

약초를 제거했을 때, 송린의 애뜻한 눈빛은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미처 거울을 치울 생각도 하지 못했다. 원시우는 탁자 쪽으로 걸어가서 거울을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아악! 내가 괴물이 되다니.”

원시우는 불붙은 기름을 가슴에 한 통 들이부은 것처럼 고통스러워하며 필사적으로 송린을 잡아당기며 울고 또 울었다. 심장이 찢어질 듯이 까무러칠 정도로 울었다. 그러다가 원시우는 손을 놓고 갑자기 땅바닥에 주저앉더니 자신의 머리 카락을 쥐어뜯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자신의 배를 향해 내리치려고 했다. 눈치를 챈 송린은 원시우의 손을 덥석 잡은 후 원시우를 품에 껴안았다. 그리고 원시우의 힘에 밀려 땅에 주저앉았다.

원시우의 흉터에는 소용돌이가 생겼는데 깨끗하고 맑은 호수 위에 더러운 물을 뿌린 것만 같았다. 소용돌이는 깊이 꽤어 주변 피부를 잡아당기면서 쭈글쭈글한 물결을 형성했고, 가다가다 주름들로 얽혀어있었다. 소용돌이는 흑자색을 띠었고 주변은 약초가 물들어 피부가 노랗게 변해 짓밟힌 나뭇가지 꺾길처럼 반쪽 얼굴을 얼룩덜룩하고 불완전하게 만들었다.

송린은 땅바닥에 앉은 채 원시우를 꼭 껴안고 말했다. “여보, 두려워하지 마. 슬퍼하지도 마. 살았으면 됐어. 그날 당신이 넘어져 죽었다면 나는 지금 당신도 잃었고, 당신 뱃속 아이도 잃게 되었을 거야.”

원시우는 울다가 지쳤는지 흐느끼며 말했다. “여보, 제가 싫지 않아요? 지금이 모양인데 창피하지 않겠어요? 당신은 젊고 잘생긴 데다가 솜씨도 좋아서 누구나 당신을 좋아하잖아요.”

송린은 그 말을 듣고 “나 맹세하는데, 내 마음이 변한다면 벼락 맞아 죽을 거야.”라고 했다.

그러자 원시우가 말했다. “여보, 마음이 변해도 당신을 닮지 않아요. 지금 저의 이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역겨워 할거예요.”

송린은 또 말했다. “바보 같은 소리 그만해. 앞으로 당신을 더 아낄 거야. 뱃속 아이가 딸이면 얼마나 좋겠어. 눈이 당신 눈처럼 까맣고 반짝거리면 좋을 텐

데 말이야. 더 이상 뱃속 아이를 가지고 화풀이하면 안 돼.”

원시우는 “뱃속 아이 때문이 아니었으면 손으로 배를 감싼 것이 아니라 얼굴을 가렸겠죠. 그랬으면 이런 꼴이 되지도 않았겠죠.”라고 하면서 또 흐느끼더니 훌쩍이기 시작했다. 더는 울 힘이 없었던 것이었다. 송린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 화는 피할 수 없고, 피할 수 있는 것은 화가 아니야. 팔자라고 생각하자. 얼굴 좀 상해도 괜찮아. 열심히 살면 되지. 더는 나쁜 생각하지 마. 알겠어?”라고 원시우를 위로했다. 그리고 원시우의 얼굴을 감싸 들어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었다. 마음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서로에게 몸을 기댄 채 바닥에 한참 앉아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지칠 줄 모르는 가을벌레들만 쉴 새 없이 울고 있었다. 원시우는 또 한 번 속으로 중얼거렸다. ‘화는 피할 수 없고, 피할 수 있는 것은 화가 아니다. 모든 것은 내 팔자다.’

송린은 잠시 조용해진 틈을 타서 원시우를 끌어안고 침대로 올라가며 말했다. “그만 자자. 당신도 너무 울어서 지쳤을 거고, 나도 내일 일하러 나가야 해.”

송린은 어머니가 아이를 재우듯이 따뜻하고 상냥하게 원시우를 달랬다.

원시우는 힘이 빠졌는지 곧 잠들었다. 달이 떴다. 달빛은 창문으로 비스듬히 비쳐 들어와 얇은 이불을 비쳤고 원시우의 얼굴을 비쳤다. 그 반쪽 얼굴을 바라보던 송린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탁자 가까이 와서 담뱃갑 속의 값싼 담배 한 대를 뽑아 천천히 피우며 가볍게 연기 뭉치를 내뿜었다. 연기 속에서 그의 미간에 또렷한 팔자가 그려졌다.

## 二

그 뒤로 원시우는 거실에서 같이 밥을 먹는 것을 꺼렸다. 시어머니와 송린은 원시우의 뜻대로 음식을 방으로 가져다주었다. 원시우는 온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볼까 봐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며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했다.

마을 사람들이 집에 병문안 오자 원시우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저를 보지 마세요. 보면 역겨우실 거예요.” 병문안을 온 사람 중에는 진심으로 마음 아파서 조금이나마 원시우를 위로해 주려고 온 사람도 있었고 그녀의 아름다움을 질투하는 심보가 고약한 사람도 있었다. 한 여자는 문을 나서며 말했다. “원래 이곳

에 제일 못생긴 사람이 나왔는데 지금은 나보다도 못생긴 사람이 생겼네.” 그 말을 원시우도 들어버렸다. 그래서 또 펑펑 울고 말았다.

어느 날 아침, 원시우는 어렵게 입을 열고 송린에게 말했다. “친정에 가고 싶어요. 같이 가줘요.” 그러자 송린이 대답했다. “내일 가면 안 될까? 마침 오늘이 맑은 일 마감날이야. 내가 좀 서두를게. 그러면 저 사람들이 현장을 청소하기 편해. 방에 대나무 쓰레기가 너무 많아.”

그러자 원시우는 대뜸 안색을 바꾸며 말했다. “그냥 시험해 봤어요. 듣기 좋은 말만 하지 말아요. 막상 저와 함께 걷는 게 싫어서 못 간다고 핑계 대는 거잖아요.”

송린은 입이 있어도 변명할 수 없었다. 원시우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게 아니야. 그런 뜻 없어. 지금 바로 가서 오늘 일 안 나갈 거라고 전하고 올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와서 밥 먹기를 기다릴 거야.” 원시우는 듣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기 시작했다.

송린이 그 집에 달려가서 사정을 말하고 오자, 원시우는 친정에 돌아갈 면목이 없으면서, 아까는 송린을 시험한 것이라며 어떻게 해도 친정에 안 가려 했다. 송린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말했다. “다음에는 시험 안 해도 돼. 내 마음은 변함없어. 그거 봐, 오늘 일도 못 하게 됐잖아.”

그러자 원시우는 거칠게 말했다. “다 저 때문이에요. 다 저 때문이에요. 됐죠?”

이튿날 송린은 아침 일찍 그 집에 가서 나머지 일을 끝냈다. 점심에 시어머니는 밥을 지어 방으로 들어가 원시우와 함께 먹었다.

식사를 마친 시어머니는 먹은 걸 치우고 방에 들어가 원시우에게 말했다. “상점에 잠깐 다녀올게. 집에 소금 다 떨어졌네. 소금 두 근 사야겠어.”

시어머니가 등을 돌리자마자 원시우는 또 생각에 빠졌다. ‘평소에 물건 살 때는 나한테 시키더니, 이젠 시어머니도 날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려 하시네. 내가 집안을 망신시킬까 봐 두려우신가 봐. 이런 나날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시어머니가 날 내보낸다고 해도 나갈 면목이 없잖아. 차라리…….’

사고가 난 그날 이후부터 흘리기라도 한 듯이 죽을 ‘사(殺)’자는 원시우의 머리에서 한시라도 지워진 적이 없었다. 원시우는 ‘차라리 죽어버리자. 시간을 끌수록 죽을 용기가 더 안 생겨.’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짹짹 일어나 뒷산으로 걸어갔다. 산에 이르니 황련(黃連)이 한눈에 들어왔다.

황련 덩굴은 길게 늘어져 관목에 엉켜 있었는데 무성하고 싱싱했으며 푸른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는데 마치 그녀에게 손짓하는 것만 같았다. 원시우는 성큼성큼 걸어가 손을 뻗어 등나무 가지를 한 움큼 꺾은 후 두루마리 모양으로 감았다. 그리고 손살같이 집으로 돌아와 깡통 하나를 꺼내 황련을 달인 후 그릇에 부었다. 너무 뜨거워서 그릇 두 개로 번갈아 얹으면서 빨리 식기를 바꿨다. 더는 기다릴 수 없었다. 좀 지나서 원시우는 목을 젖히고 황련을 담근 물 한 그릇을 깨끗하게 마셔버렸다. 그리고 깡통에서 황련 찌꺼기를 꺼내 아주 먼 곳에 버린 후 깡통을 깨끗이 씻어놓고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조용히 죽기를 기다렸다.

그때만 해도 농촌에서는 농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자살하려는 사람은 목을 매달거나 황련을 먹었다. 황련은 맹독성 식물로 산에서 자라는데 나팔꽃 덩굴처럼 다른 나무에 기어 올라가 있어 쉽게 구할 수 있었다.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데, 죽기 전에 배가 매우 아프고, 대여섯 시간 정도는 아프다가 결국 창자가 끊어지면서 사람도 죽게 된다.

시어머니는 소금을 사고 집에 돌아온 후, 먼저 원시우 방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원시우가 자는 줄 알고 자기 일을 하러 갔다.

저녁밥을 다 해놓은 후, 시어머니는 원시우 방문 앞에 다가가서 말했다. “원시우, 깻어? 또 저녁밥 먹어야겠네. 내가 밥 가져올게.” 원시우는 시어머니를 불렀다. “어머니...” 그리고 더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쑹린에게 시집온 후부터, 시어머니는 나를 친딸처럼 대했지. 얼마나 좋은 어머니신데, 다 내가 복이 없는 탓이지.’라고 원시우는 생각했다.

시어머니는 소리를 듣고 목소리가 평상시와는 달라서 문지방을 넘어 침대로 바로 뛰어갔다. 원시우가 몸을 웅크린 채 배를 끌어안고 있는데 아파서 얼굴이 새파랗게 되어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큰소리로 외쳤다. “아가야, 이게 무슨 바보짓이니? 얼굴 좀 상하면 어쩌서? 좀만 참아, 죽으면 안 돼!”

시어머니는 동유(桐油)를 구하려고 미친 듯이 집집에 찾아다녔다. 동유를 마시게 하면 황련을 토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집에도 동유가 없었다. 그래서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더니 침대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남녀 모두 한숨을 쉬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누군가가 이미 쑹린을 불러왔다.

그때 80대 중반으로 보이는 어르신이 다가왔다. 허씨 가옥에서 가장 존경받는 연장자였다. 어르신은 체형은 컸지만, 몹시 야위어서 골격만이 너털너털한 옷을

받쳐주고 있었으며 두 발도 그다지 기운이 있는 편이 아니었다. 어르신은 지팡이를 짚은 채 사람들 속을 헤치고 곧장 침대 앞으로 걸어가 원시우의 눈꺼풀을 벌려 보고는 연거푸 말했다. “살릴 수 있어. 아직은 살릴 수 있어.”

사람들이 어르신을 따라 거실에 이르자 누군가가 말했다. “살릴 수 있는 거 알죠. 동유를 먹여야 황련을 토해낼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동유가 없잖아요. 상점이 너무 멀어서 사 온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 말을 듣고 어르신은 말했다. “똥 먹이는 것 외에는 재를 살릴 방법이 따로 없어.” 어르신은 송린에게 눈길을 보냈다.

송린은 눈을 번쩍 뜨더니 말했다. “살릴 수단 있다면 똥이라도 먹여야죠. 두려울 게 없어요. 제가 떠올게요.”

송린은 즉시 변소에 가서 똥을 한 그릇 떠 왔다. 어르신은 안에 있는 구더기를 열심히 가려냈다.

어르신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걸상 두 개와 굵은 밧줄을 가져오게 한 후 원시우를 안방에서 들어내게 했다. 원시우는 그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모르고 있었다. 아파서 숨도 거의 못 쉬는 원시우는 큰 소리로 애원했다. “침대에서 죽게 내버려둬요. 밖으로 들어내지 마세요.” 자신을 들어 올리는 사람들을 향해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며 안간힘을 다 썼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 그 순간, 원시우는 자신의 운명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치 처참한 악몽에 빠진 것처럼, 주위 사람들 모두 그녀에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자신을 아끼던 남자마저도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그녀의 애원을 무시하며 제멋대로 하고 있었다.

원시우를 걸상에 올리는 데는 정말 큰 힘이 들어갔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게 되면 연약한 여자라 할지라도 알 수 없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원시우의 손과 발을 걸상에 묶은 후, 어르신은 원시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그녀의 머리를 꼭 누르게 했다.

원시우는 땀을 뻘뻘 흘리며 걸상에 반듯하게 누워있었는데 얼굴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표정이었다. 모두가 침묵을 지키고 긴장되어 있었다. 송린은 두려움에 몸을 떨면서 똥 한 사발을 들고 원시우 앞으로 걸어갔다. 얼굴은 눈물과 땀범벅이었다.

원시우는 이때야 비로소 웬일인지 알아차리고 갖은 힘을 다해 비명을 질렀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죽을지언정 똥은 안 먹어요. 곧 죽을 거예요. 똥을 먹여도

못 살아요. 깨끗하게 죽고 싶어요.”

원시우가 입을 벌린 틈을 타서, 어르신은 한 젊은이에게 젓가락 두 개를 그녀의 입에 쑤셔 넣게 했다. 그러자 송린은 즉시 뚱을 담은 숟가락을 원시우의 입에 밀어 넣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뚱이 거의 다 입 밖으로 흘러나와 입에는 얼마 들어가지 못했다. 그것을 본 어르신은 말했다. “송린, 두려워하지 마. 원시우를 살리려면 이럴 수밖에 없어. 마음 독하게 먹고 몇 숟가락 더 먹여. 내가 장담하는데, 원시우를 꼭 살릴 수 있어.” 송린은 그 말에 힘이 생겨 마음을 모질게 먹고 뚱을 몇 숟가락 더 부어 넣었다.

그 순간에 원시우는 오히려 조용해졌다. 어차피 죽을 텐데 마음대로 해. 날 산산조각내도 상관없어. 원시우의 의식은 한 줄기 연기가 되어 창밖으로 멀리 날아간 듯했다. 한참 후, 원시우의 배가 불룩해지자 어르신이 말했다. “빨리 뱃줄을 풀고 일으켜. 토할 것 같아.”

사람들이 뱃줄을 풀자 송린은 원시우를 일으켜 덩석 품에 안았다. 원시우는 크게 토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노란색의 끈적끈적한 물질을 토해냈고 나중에는 맑은 물을 토해내더니 그 후에는 아무것도 토하지 못하고 헛구역질만 했다.

그것을 지켜보던 어르신이 말했다. “이젠 됐어. 배 안에 있는 거 다 토해냈어.”

원시우는 드디어 살아났다. 송린은 원시우를 품에 꼭 껴안았다. 그 모습은 마치 짓밟힌 이삭 한 다발을 품에 안은 것만 같았다.

어르신은 송린의 어머니에게 뜨거운 물을 가져다 원시우를 깨끗이 닦아준 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라고 했다.

날은 서서히 어두워졌다. 그때에야 사람들은 비로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다.

송린 집안의 세 식구는 방금 악몽에서 깨어난 듯 여전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서늘한 기운이 밀려왔다. 송린은 원시우를 안아서 침대로 옮긴 후 자기 품에 눕혔다. 원시우는 마치 뼈가 없는 것처럼 온몸이 호물호물했다. 고른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는데 송린과 시어머니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숨소리였다. 송린은 전에 말아놓은 담배를 연거푸 피우기 시작했다. 가을밤은 매우 길었고 담뱃재는 눈송이처럼 침대 옆에 흩어졌다.

한꺼번에 두 생명을 건져낸 셈이다. 그 이후로 송린은 원시우와 딱 붙어서 다녔다. 원시우가 또 바보짓을 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송린은 원시우의 성격



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온순해 보이는 그녀는 사실 황소보다 더 고집이 센 사람이었다.

어느 날, 송린이 원시우에게 말했다. “난 사람마다 팔자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 당신도 그렇잖아. 어르신 말씀에 살아났잖아. 그날 어르신이 집에 안 계셨다면 당신은 아마 원혼이 되었겠지. 죽는 팔자가 아니니까 이젠 어떻게 잘 살지만 생각해. 우리 마을에 성씨가 위안(袁)인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당시에 지주 집안 출신이라는 비난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죽으려고 마음먹었어. 그래서 집 뒷산에 가서 목을 매달았는데 하필이면 장작을 하러 간 아이에게 발견되어 죽지 못했어. 그래도 또 죽으려고 성냥갑의 인을 세 갑이나 끊어 먹어버렸지. 그렇게 많은 인이 배 속으로 들어가니까 마치 배 속에 불이라도 난 것처럼 뜨거워서 정말 견딜 수가 없었대. 선생님은 빨리 죽으려고 강으로 달려갔어. 빠져 죽으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물을 몇 모금 들이킨 후, 배속의 화기가 사라질 줄 누가 알았겠어. 강물도 알아서 빠져 죽지도 못했어. 여러 번이나 죽으려고 시도했는데도 안 되니 별수 없이 살았는데 지금은 이미 80세도 넘었어. 자식 셋이다 직장에 다니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어. 큰 재난에도 죽지 않으면, 반드시 후에 복이 온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 당신 절대로 다시 바보짓 하면 안 돼. 꼭 배 속의 아이를 잘 낳아야 해.”

송린의 집안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원시우는 전보다도 더 부지런해진 것 같았다. 일하러 나가면 항상 어두워진 후에야 집에 돌아왔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마음이 편했고 많은 어색함도 피할 수 있었다.

### 三

어느 날,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원시우는 돼지풀 한 바구니를 메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어디선가 갑자기 불빛이 반짝이더니 사라진 것 같았다. 그 빛은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느낀 것이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보이지 않았다. 원시우는 뭔가가 이상하게 느껴져 웬일인지 살펴보려고 나무 뒤에 숨어서 한참 동안 그 불빛 쪽을 지켜보았다.

드디어 불빛이 다시 나타났다. 어슴푸레한 불빛 속에 두 사람이 보였는데 앞에서 걸어가는 것은 남편-송린이었고 그 뒤에는 마을의 젊은 과부 신화(新花)가 따라가고 있었다. 신화는 서른 살 좀 넘었는데도 여전히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있었으며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은근히 추파를 던지곤 했다. 그래서 마을의 유부녀들은 자기들의 남편이 유혹을 당할까 봐 모두 그녀를 싫어했다.

그 당시 신화는 아름다운 처녀 같았다. 원시우는 치밀어오르는 화를 참으며 계속 나무 뒤에 숨어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지 지켜보았다. 불빛은 마침내 나무 앞으로 지나갔고 원시우도 분명히 보았다. 신화가 손전등으로 정성껏 송린에게 길을 비춰주고 있었다. 전등 빛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면서 깜박이고 있었다. 송린은 성급히 앞에서 걸어갔고 신화는 바짝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 원시우는 즉시 돼지풀을 메고 그들의 뒤를 따라갔다.

송린은 아무 데도 가지 않고 곧장 집으로 돌아갔다. 신화도 그 뒤를 따라 들어갔다. 원시우는 탈곡장에 한참 머물러 있다가 돼지풀을 내려놓은 후 안채로 들어갔다. 문지방을 넘어서자마자 신화와 눈이 부딪혔다. 신화는 의자에서 일어나 친절하게 말했다. “원시우, 어디 갔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집에 돌아와요?”

원시우는 쳐다보지도 않고 한마디 던졌다. “늦은 시간인 걸 알면서 우리 집에는 왜 왔어요?” 그러자 신화는 “송린에게 이틀 동안 집일 좀 부탁하려고요. 광주리와 집기를 만들어야 해서요.”라고 했다. 원시우가 물었다. “그럼 일찍 좀 오지, 왜 이렇게 늦은 밤에 찾아 왔어요?”

그랬더니 신화가 말했다. “일찍 오면 송린이 집에 없잖아요. 낮에는 밖에 일하러 다니잖아요. 언제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날짜를 정해주면 제가 대나무와 음식을 준비해 놓으려고요.” 그러자 원시우는 “그것도 말이라고 해요? 송린을 만나지 못할까 봐 그랬다고요? 송린을 못 보면 저와 얘기하면 되잖아요. 꼭 송린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뭔데요? 우리 집 송린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꿈도 꾸지 마세요. 다른 집 일은 다 할 수 있어도 그 집 일만은 절대 안 돼요. 잘못 배울까 봐 걱정이예요.”라고 했다.

신화는 원시우가 말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화를 내며 말했다. “원시우, 말 똑바로 해요! 아니면 나 오늘 안 가요. 뭘 잘못 배운다고 그래요? 내가 뭘 어쩔길래 그렇게까지 말을 심하게 해요?”

그러자 원시우가 말했다. “참 웃기네. 무슨 짓 했는지는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을 거잖아요. 뭘 나한테 물어봐요. 내가 말하면 그쪽이 창피해서 숨을 곳도 못 찾을까 봐 걱정돼요.”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그러더니 주먹까지 불끈 쥐었다. 시어머니는 기세등등한 두 사람을 보고 싸움이 크게 벌어질 것 같아서 급히 자기 방에서 나와 신화를 밀어내며 말했다. “빨리 집에 가. 늦었어. 이젠

그만해. 다들 참, 아무 일도 아닌 걸 갖고 왜 그래?”

그렇게 밀려서 안채 밖으로 나온 신화는 손전등을 켜고 집으로 돌아갔다. 원시우가 싸우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신화는 그녀의 말이 칼날일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아직 화가 풀리지 않은 원시우는 등유 등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쑹린이 침대에 누워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원시우는 또 화가 치밀어 올라 침대 앞으로 가서 쑹린을 밀치며 말했다. “제랑 신화가 한 말 들었어요? 싸울 뻔했잖아요. 당신 어찌면 방에 숨어서 모르는척해요. 설마 당신, 저 과부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못생긴 제가 싫어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쑹린은 피곤한 듯이 말했다. “원시우, 그만 좀 해. 나 피곤해. 당신도 피곤할 텐데 빨리 자. 내가 몇백 번을 얘기했잖아. 당신이 못생겼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 당신은 얼굴이 좀 상했을 뿐이지 못생긴 게 아니야. 얼굴 좀 상한 게 뭐 어때서? 오늘 밤, 신화가 나한테 일을 부탁하려고 집에 찾아오다가 길에서 나랑 마주쳤어. 손전등으로 길을 비춰주는데 밀어낼 수도 없었어. 나한테 달라붙으면 내가 변명도 못 하게 되잖아. 그래서 따라오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어. 난 신화같은 사람이 별로야. 남편이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아무렇지 않은 듯이 잘 살기만 하잖아. 저런 사람은 인정이 없어. 그래서 방에 들어와 숨었던 거야.”

원시우는 쑹린의 말을 듣고 나서야 마음이 놓였다. 그래서 애뜻한 눈길로 쑹린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쑹린의 얼굴은 정말 보기 좋았다. 원시우는 또 본능적으로 자신의 왼쪽 얼굴을 만졌다. 울퉁불퉁하고 흉터가 가득했다. 원시우는 또 흐느끼기 시작했다. “여보, 저는 당신이랑 안 어울려요. 저는 너무 못생겼어요. 죽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자 쑹린이 말했다. “여보, 다시 어리석은 말을 하면 당신 안 볼 거야. 나 정말 화낼 거야.” 쑹린의 그 말은 그래도 꽤 효과가 있었다. 원시우는 “말 안 할게요. 말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라고 했다.

이튿날은 중추절이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쑹린은 원시우에게 말했다. “오늘은 일하러 안 나갈 거야. 집에서 중추절이나 보내자. 좀 있다가 닭 한 마리 잡아 삶을 테니 많이 먹어. 조만간 아이도 낳아야 하니까 몸보신해야 해. 그래야 아이 낳을 때 힘을 쓸 수 있어.”

쑹린은 닭을 잡아 털을 뽑은 후 어머니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몸을 돌리는데 어머니가 부르더니 말했다. “약방에 가서 한약 몇 가지 사와. 닭 삶을 때 넣자. 임산부가 먹는 것이라고 꼭 알려줘야 해.” 그 말을 들은 쑹린은 원시우를 불렀

다. “여보, 우리 약방에 가자. 한약을 좀 사서 닭과 함께 끓이자. 몸에 더 좋아. 우리 함께 가자.”

원시우의 마음은 위로가 되었다. 시어머니와 송린이 여전히 자신을 좋아하고 아낀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로 방에서 대답했다. “네. 머리 빗고 나갈게요.” 얼굴이 상한 후, 원시우는 모처럼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오늘 약사러 가야 하기에 머리는 빗어야 했다. 테이블 쪽으로 걸어가서 거울 속의 얼굴을 보더니 갑자기 원망이 북받쳐 올랐다. 긴 속눈썹 밑에 감춰진 슬픔과 원망은 갈수록 깊고 커지기만 했다. 원시우는 송린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여보, 나 안 갈래요. 이 모양으로 어떻게 사람을 만나요? 괴물인 줄 알고 괜히 놀림만 당할 거예요. 나 안 되겠어요.” 송린은 원시우의 가련한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 얼른 원시우의 손을 잡았는데 하도 마음이 급해 관자놀이의 핏줄까지 드러났다. 송린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아무리 번거로워도 수백 번 반복했던 말을 다시 한번 해야겠다.’ “원시우, 누가 당신을 괴물로 보겠어. 이 지역에 당신이 예쁘다는 걸 누가 몰라. 지금 얼굴 한쪽이 좀 상해서 그렇지. 그 외 눈, 코, 입, 그리고 한쪽 얼굴은 아주 예쁘잖아.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말할지 걱정할 필요 없어. 당신을 홍보는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 아니야. 심보가 고약해서 그래. 옛말에 그랬어. 아무리 오래 살아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비웃지 말라고. 당신을 비웃는 사람은 벌 받을 거야.” 송린은 계속해서 말했다. “여보, 약 사러 안 가도 돼. 가지 말자. 약을 안 넣고 끓이면 닭이 더 맛있어. 약 냄새가 없어서 더 신선해.”

송린의 말에 원시우는 눈물이 샘물처럼 쏟아졌다.

#### 四

원시우는 원래 출산 예정일까지 보름이나 남았었는데 늘 화를 냈던 탓인지 아기는 보름이나 일찍 태어났다. 아기는 어머니의 몸을 떠나자마자 학대라도 받은 듯이 크게 울어댔다.

원시우가 낳은 딸은 한눈에 봐도 원시우를 똑 닮았었다. 송린은 너무 좋아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초등학교 때 배운 아름다운 낱말들이 그의 머리에 한꺼번에 떠올랐다. 곱다, 예쁘다, 아름답다, 귀엽다……. 아이의 이름을 ‘메이리(美麗)’로 하자. 송린은 침대 옆에 앉아 원시우를 보며 말했다. “여보, 나 우리 딸한테 예

뿐 이름 지어주었어. 영(英)자나, 화(花)자나, 연(蓮)자를 부치지 말고 메이리(美麗)라고 부르는 게 어때? 집에서는 메이리라 부르고 학교에 가면 성을 합쳐서 허 메이리라고 하는 게 어때?”

원시우는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좋아요. 이름이 너무 예뻐요.” 그런데 원시우는 아기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순간 눈빛이 어두워졌다. 잠시 후 또 맥빠진 눈으로 멍하니 다른 곳을 바라보았다. 아기의 아름다움이 모두 자신의 고통 위에 지어졌다고 생각했던 것이었다. 당시 임신한 몸이 아니었다면 걸려서 넘어지는 일도 없었을 거고, 발이 걸려 넘어졌을 때 만약 아이를 감싸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면 그토록 배를 끌어안고 그루터기에 뺨을 찢리지도 않았겠지. 그렇게 생각하자 마음속에서 원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메이리가 태어난 후 집안에는 활기가 넘쳤다. 특히 송린과 시어머니는 예쁜 아기와 놀아주면서 자기도 모르게 웃음소리를 냈다. 하지만, 원시우는 늘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있었다.

시간은 빨리 흘러갔고 메이리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메이리는 어려서부터 엄마의 품에서 응석을 부려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다가갈 때마다 원시우는 메이리를 밀쳐냈다. 다른 집 엄마들이 아이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메이리는 늘 부러움에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을 보는 엄마의 눈빛이 두렵기도 했다. 메이리는 할머니와 아빠가 엄마 앞에서 고분고분하게, 조심조심 말하는 것도 보았다.

메이리가 할머니에게 귓속말로 물었다. “저는 엄마가 낳았어요? 아니면 주워왔어요?”

그 말을 듣고 할머니가 말했다. “메이리, 넌 엄마가 낳았어. 네 엄마 왼쪽 얼굴 봤지? 네가 아직 배 속에 있을 때, 엄마가 장작을 구하러 산에 갔다가 굴러떨어졌는데 네가 다칠까 봐 필사적으로 배를 끌어안았지. 그래서 얼굴이 나무 그루터기에 찢려 피를 많이 흘려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 아마 널 보면 슬픈 일이 떠올라서 그럴 거야. 원망하지 마.”

메이리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원래보다 더 말을 잘 들었다. 항상 엄마를 도와 많은 일을 했다. 소몰이, 돼지풀 베기, 소풀 베기, 흙 파기, 이것저것 다 했다.

어느 날 정오, 사람이 타 죽을 정도로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원시우가 말했다. “메이리, 빨리 채소밭에 가서 완두 좀 꺾어 와. 점심 해 먹어야 해.” 메이리는 알았다고 대답한 후 안채로 들어가 낡아서 거무스름해진 밀짚모자를

꺼냈다. 원시우는 모자를 쓰고 있는 메이리를 보고 욕설을 퍼부었다. “고작 완두 몇 개를 꺾으러 가는데 타는 게 두려워? 어린 것이 이제부터 예쁜 것을 알아서 크면 어떻게 하려고.” 메이리는 감히 대꾸도 못 하고 탈곡장으로 갔다. 그제야 작은 목소리로 한 마디 중얼거렸다. “햇볕이 너무 뜨거워. 모자 쓸래.” 나무 대야에 물을 담아 모시를 적셔 삼꾼을 꼬고 있던 원시우는 그 말을 듣고 대야에서 모시 한 다발을 집어 들어 메이리를 향해 때리면서 욕설을 퍼부었다. “감히 말대꾸해! 어린 나이에 벌써 엄마한테 말대꾸나 하고. 커서 뭐가 되려고.” 물에 적신 모시에 채찍을 맞은 메이리는 얇은 옷웃이 찢어지고 살갓에 붉은 채찍 자국이 생겼다.

메이리는 갈수록 원시우가 무서웠다. 가능한 한 원시우를 피했고 감히 정면으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엄마가 화낼까 봐 두려웠다. 어느 날, 메이리는 어린 친구들과 장작을 구하러 산에 갔다가 장작을 한 짐 가득 채운 후 정신없이 놀기 시작했다. 모두 한바탕 즐겁게 웃고 있을 때 뜻밖에도 원시우가 그 웃음소리를 들어버렸다. 메이리가 집에 돌아온 후, 원시우는 메이리를 침대에 눌러 불쏘시개로 몇 대 세계 후려쳤다. 계집애는 그렇게 미친 듯이 웃는 게 아니라는 이유였다. 메이리의 엉덩이는 보라색으로 변해 걸을 때 아팠고 앉으면 더 아팠다.

메이리가 초등학교를 곧 졸업할 때가 되었다. 메이리는 학교에 다니는 동안 항상 일찍 일어나 소를 방목하고, 돼지 먹이 풀과 소먹이 풀을 베러 다녔으며 한가하게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5학년 마지막 학기가 되어, 두 달만 지나면 졸업하게 되는데 메이리의 학비는 아직도 내지 않았다. 담임인 위안(袁) 선생님은 젊은 남자였는데 글을 잘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매우 상냥한 분이였다. 단지 출신 성분이 안 좋았을 뿐이다.

어느 날, 위안 선생님은 학비에 대해 묻기 위해 메이리의 집을 방문했다.

저녁 무렵인지라 허씨 마을 사람들은 탈곡장에서 물건을 거두고 있었다. 마침 그때 원시우도 콩을 거두고 있었다. 위안 선생님은 원시우와 몇 마디 인사를 나눈 후 말했다. “허메이리가 아직 이번 학기 학비를 안 냈네요. 다음에 메이리 편으로 학비 좀 보내주세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큰일이 나고 말았다. 원시우는 화를 이기지 못해 펄펄 뛰면서 말했다. “이 지주 집 자식아, 아직도 예전 그대로야? 지금이 옛날인 줄 알아? 집에까지 찾아와서 빗 독촉을 하다니. 돈 있어도 메이리의 학비는 안 낼 거다. 네가 개한테 공부하라고 한 건데 내가 학비를 왜 내야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위안 선생님은 얼굴부터 목까지 빨개진 채 두말없이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메이리는 것처럼 좋은 선생님을 다시 볼 면목이 없었다. 저녁밥도 먹지 않은 채 계속 침대에 숨어서 그칠 줄 모르고 울기만 했다. 쫓린이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었다. 학비를 내리 갈 거라고 해도 먹히지 않았다. 두 달만 지나면 초등학교를 졸업하는데도 메이리는 다시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 선생님을 볼 면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 五

시간은 빨리 흘러 어느덧 메이리는 여자아이에서 처녀로 자랐다. 타고난 좋은 피부, 평온하고 성실한 눈빛, 온화하고 착한 마음씨, 야생화처럼 순수한 처녀로 자랐다. 허씨 마을의 사람들은 누구나 메이리를 좋아했다.

그동안 메이리는 항상 참으면서 살아왔다. 어머니의 마음을 풀어주지 못했기에, 어머니에게 잘 보이고 용서를 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일만 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일 때문에 늘 밖에 나갔고 항상 어머니와 둘만 집에 있었다. 메이리는 원시우의 화를 돋울까 봐 감히 말도 하지 못했고 둘 다 침묵을 지켰다. 집안은 매일 쥐 죽은 듯이 조용했고 원시우의 얼굴에는 그늘이 가득했다. 메이리는 밖에서 혼자 일을 하고 있을지언정 어머니를 마주하여 집에 있고 싶지 않았다.

원시우는 더욱 근검절약하고 부지런해졌다. 집에서 기르는 돼지는 두 마리에서 여섯 마리로 늘어났고 밭일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두 도맡아 했다. 집에서 쫓린에게 일을 시킨 적이 없었다. 쫓린이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원시우는 대야에 물을 담아 앞에 가져다 밭을 씻게 했고 차도 우려서 가져다주었다. 사실 쫓린은 진심으로 원시우를 아꼈기 때문에 원시우가 자신에게 시중을 드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하지만 원시우가 자기를 싫어하는 줄 알고 오해할까 봐 감히 말도 하지 못했다. 가끔 말을 할 때도 항상 조심스러웠다. 원시우 역시 거절당할까 봐 쫓린에게 조심스럽게 시중을 들었다. 두 사람은 여태껏 다투고 욕한 적 한번 없이 매우 평온하게 지냈지만, 너무 지나치게 조용하고 억압적이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메이리는 늘 산속의 개울가에 돼지풀을 베러 다녔다. 허씨 마을의 십여 가구에

는 크고 작은 돼지가 사오십 마리나 있어 주변의 돼지풀은 사람들이 거의 다 베어갔다. 그래서 메이리는 멀리 갈 수밖에 없었다. 메이리는 매일 바구니를 등에 메고, 산속의 나무 잎사귀에 아직도 촉촉한 이슬이 드리워져 있을 때 이미 산비탈을 넘어 산길을 가로지른 후 가지가 무성한 봉황죽을 지나 개울가에 이르렀다. 봉황죽은 가늘고 길며 막 떠오르는 햇빛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개울 폭은 6미터 정도였고, 개울물은 거울처럼 맑고 비단처럼 부드러웠다. 개울가의 촉촉한 흙에는 대나무 마디풀, 옹초, 미나리가 가득 자라 있었는데 모두 돼지가 즐겨 먹는 것들이었다. 그런 신천지를 발견한 이후로, 메이리는 매번 그곳에 다녔고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도 항상 가득 싣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어느 날, 메이리는 평상시처럼 바구니를 메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개울가에서 풀이 뺨뺨한 곳을 찾은 후 바구니를 내려놓고, 낫을 꺼내 허리를 굽혀 열심히 풀을 베기 시작했다. 동작이 너무 능숙해 마치 걸음을 걷는 것처럼 여유로웠다. 메이리는 베어낸 풀을 한쪽에 가지런히 쌓아 놓았다. 그 과정에서 거의 허리 한 번도 펴지 않았다. 다른 곳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말소리가 들렸다.

“일에 너무 몰두하는 거 아니에요? 비가 올 것 같은 데 집에 안 가요?” 한 남자의 말소리였다.

놀라서 고개를 돌리자 호감이 가는 젊은 얼굴이 싱글싱글 웃으며 그녀를 보고 있었다. 메이리는 어리둥절해 있다가 수줍게 말했다. “안 돼요. 한 짐도 못 채우면 돼지 여섯 마리가 먹기에는 부족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젊은이는 여전히 싱글싱글 웃으며 말했다. 그의 웃음은 메이리의 마음을 편하게 했다. 메이리는 “그쪽도 돼지풀 베러 왔어요? 여기 돼지풀은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쪽 몫은 없어요.”라고 했다.

젊은이는 더욱 활짝 웃으며 너그럽게 말했다. “저는 돼지풀 필요하지 않아요. 곧 비가 올 것 같아서 집에 돌아가라고 귀땀하러 왔어요.”

그 젊은이는 계속해서 말했다. “매일 오리를 몰고 여기 오면 항상 혼자 여기에서 돼지풀을 베고 있더군요. 몇 번이나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쑥스러워서 다가오지 못했어요. 오늘은 큰비가 올 것 같아서 비 맞을까 봐 알려주러 왔어요.”

메이리는 얼굴을 붉히며 자신의 당황함을 감추려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저 오리들이예요? 아마 40~50마리는 되겠네요.”

그 젊은이는 “55마리에요.”라고 하면서 허리를 굽혀 바구니를 가져다 풀을 담



기 시작했다. 그러자 바구니는 바로 채워졌다. 마침 한 짐 가득 담겼다. 그는 짹 짹 바구니를 메고 앞으로 걸어가면서 말했다. “곧 비가 올 것 같아요. 빨리 가요. 제가 좀 데려다줄게요.”

젊은이는 앞에서 성큼성큼 걸어갔고 메이리는 그 뒤에서 뛰어갔다. 한참을 걸은 후 메이리는 바구니를 빼앗았다. “빨리 돌아가요. 비가 내려요.”

젊은이가 “집이 어디죠? 어느 쪽으로 가요?”라고 묻자 메이리는 언덕 아래에 있는 허씨 마을을 그 젊은이에게 가리켰다.

그러자 젊은이가 말했다. “저는 리춘성(李春生)이라고 해요. 리씨 마을에서 살아요.”

그때부터 메이리의 마음은 늘 개울가에 쏠려있었다. 날이 어두워지자마자 다시 날이 밝기를 고대했다. 날이 밝아 돼지풀을 베러 개울가에 가면 춘성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집을 나서자마자 그녀는 손살같이 개울가로 달려갔다. 그날 이후로 춘성이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개울가에서 메이리를 기다렸다.

18세의 메이리는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다.

하루는 춘성이가 말했다.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안 들어줄까 봐 두려워서 감히 말을 하지 못하겠어.”

그러자 메이리가 말했다. “말을 해보지도 않고 내가 안 들어줄지 어떻게 알아? 얘기해봐. 무슨 일인지 한번 들어보자.”

사실 메이리는 춘성이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알고 있었다.

춘성이는 손을 비비며 메이리를 보고 말했다. “메이리, 난 널 너무 좋아해. 나와 결혼해줄래?”

메이리는 얼굴을 붉히며 나직이 말했다. “나도 네가 너무 좋아. 널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어.”

그 말을 들은 춘성이는 말했다. “평생 잘해줄게. 힘든 일 안 시킬게. 힘든 일은 모두 내가 하면 돼. 나는 힘 좋아. 널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속엔 오직 너밖에 없었어. 꼭 너와 결혼하고 싶었어.” 춘성이의 얼굴은 열정적이고 감동적인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러자 메이리는 말했다. “나도 널 너무너무 좋아해. 너 아니면 시집가지 않겠어. 우리 앞으로 싸우지 말고, 욕하지도 말고, 사랑하면서 함께 노력하자.” 메이리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부끄러워 얼른 고개를 숙였다. 춘성이는 “메이리, 네 말이 맞아. 우리 평생 사랑하면서 살자.”라고 했다.

그들은 그렇게 평생을 약속했다. 두 사람 모두 전에 없던 행복과 즐거움을 느꼈다. 곧 풀을 가득 벤 후 메이리가 말했다. “늦었어. 돌아가야 해.” 춘성이는 전처럼 메이리를 산비탈까지 데려다준 후 아쉬워하며 돌아갔다. 그날 밤 메이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랑에 빠진 메이리는 항상 들떠있었다. 늘 시간개념이 없이 제정신이 아니었다. 아침에는 더 일찍 집을 나갔고 저녁에는 더 늦게 돌아왔다. 그러다가 원시우의 의심을 사게 됐다.

어느 날, 메이리가 밤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가슴 벅찬 행복이 아직 가시지 않아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원시우가 다가와 그녀의 뺨을 때리며 소리 질렀다. “밖에서 뭐 하고 다녀? 무슨 좋은 일 있길래 집에 와서까지 웃고 있는 거야? 내가 모를 줄 알아?!” 메이리는 비로소 수심 가득한 얼굴로 돌아오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되었음을 깨닫고 갑자기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원시우가 “너, 몰래 밖에서 수치스러운 일 하지 마. 내가 모를 줄 알지.”라고 하자 메이리는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인 채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메이리는 또 잠을 설친 채 내내 생각했다. 메이리는 춘성이와 계속 사귀기로 했고 결혼까지도 결심했다.

매일, 메이리는 원시우가 주의하지 않는 틈을 타서 바구니를 들고 원시우를 피해 일찍 집에서 나갔다. 피하는 게 점점 더 능숙해져 원시우는 메이리가 나갈 때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메이리가 개울가에 갔을 때 멀리서부터 고개를 숙인 채 풀이 죽어있는 춘성이의 모습이 보였다.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메이리는 마음이 조마조마해져 급히 춘성이 쪽으로 달려갔다. 바구니가 그녀의 등에서 흔들거렸다. 춘성이 앞에 도착하기도 전에 메이리는 소리쳤다. “춘성씨, 무슨 일 생겼어?”

춘성이는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네 어머니가 어제 오후에 우리 집에 찾아 왔었어. 알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메이리는 “어제 오후 산에 장작을 구하러 갔었어. 난 전혀 몰랐어.”라고 대답했다.

“네 어머니는 우리 부모님께 절대 우리를 결혼시키지 않을 거라 했어. 내가 너와 또 만나면 불을 질러 우리 집을 날려버릴 거라 했어. 부모님이 너무 두려워해. 집을 지은 지 겨우 1년밖에 안 되는데 불태우겠다니…….”

메이리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엄마가 날 그렇게까지 미워할 줄은 정말 몰랐네. 나 때문에 얼굴이 망가졌으니, 내가 잘살지 못하게 복수하려나 봐. 그래도 날 낳은 친엄마인데 저렇게 독하게 나올 줄 몰랐어.” 메이리는 절망에 빠져 울기 시작했다.

그들은 여전히 풀을 바구니에 채운 후 집으로 향했다. 춘성이는 바구니를 메고 앞에서 걸었고 메이리는 말없이 그 뒤를 따라갔다. 산비탈에 이르자 춘성이는 풀을 내려놓고 감정이 북받쳐 메이리의 손을 잡았다. 그녀를 잃을까 봐 두려웠다. 메이리는 평평 울며 말했다. “춘성씨, 돌아가. 늦었어. 나 늦게 돌아가면 엄마한테 매 맞아.”

그날, 메이리는 자신이 어떻게 집으로 걸어갔는지도 모른다. 대문에 들어서자 원시우와 눈이 마주쳤다. 늘 엄마라고 먼저 불렀는데, 이날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다. 메이리는 얼른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의 흉악하고 추한 모습이 마치 마귀 같기만 했다. 그리고 몸서리를 치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메이리는 다시는 개울가에 풀을 베러 가지 않았다. 어머니가 춘성이의 집을 태울까 봐 두려워했다. 춘성이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에 미칠 것만 같았다. 메이리는 다시는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매일 조용히 자기 일만 하더니 한 달 만에 수분이 빠진 꽃처럼 수척해졌다.

1년 후, 원시우는 메이리를 이웃집 다섯째에게 시집 보내기로 했다. 바로 우리 집 부들이에게 쫓겨 논밭에 떨어진 그 이웃집 다섯째다.

메이리는 싸우지도 않았고 난리를 치지도 않았으며 반대하지도 않았다. 어머니가 또 죽느니 사느니 할까 봐 두려웠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어머니가 춘성이의 집에 불을 지르는 것이었다. 메이리는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 천씨 마을 사람들

우리 집에서 2리가량 떨어진 천씨 마을에 삼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우리 집과 오랫동안 왕래가 있었다. 그런데 집 뒤편의 산비탈 길을 지나면 모두 논길이라서 그쪽으로 다니기가 힘들었다. 원래는 논길이 매우 넓었는데 집집에서 논을 나누

어간 후 각자 자기 집 쪽으로 눈을 파내는 바람에 자칫하면 눈을 밝게 될 만큼 길이 매우 좁아졌다.

어머니가 시장에 나가실 때 지름길로 가려면 반드시 천씨 마을 앞을 지나가야 했기에 다들 잘 아는 사이가 되었다. 그렇지만 길이 좁아져 다니기가 불편해진 이후로 어머니는 그 지름길을 별로 다니지 않았다. 천씨 마을의 맏이 천유량(陳友良)은 겸허하고 무뎠하게 생겼으며 사람을 만나면 늘 싱글벙글 웃었다. 하지만 얼굴은 온통 곰보 자국이었고 자국은 콩알만큼이나 컸다. 유량의 눈은 매우 검고 커서 자갈 속에 박힌 두 개의 검은 구슬 같았다.

매번 어머니를 뵈러 집에 갈 때 지름길로 가기 위해 천씨 마을 앞을 지나가야 했는데 지나갈 때면 십중팔구 탈곡장에서 서 있는 천유량을 볼 수 있었다. 내가 유량 오라버니를 부르면 싱글벙글 웃으며 걸어와 나를 집까지 바래다주곤 했다. 20미터가량 더 가면 바로 유량 오라버니의 동생 집이었다. 유량의 제수 얼바오(二寶)도 소리를 듣고 얼른 나와 인사를 했다. 나도 그녀를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했다.

가는 길에 유량 오라버니에게 물었다. “어떻게 집에 갈 때마다 오라버니를 만날 수 있죠? 매번 저를 데려다주게 해서 미안하네요.” 그러자 유량 오라버니가 말했다. “자네가 언제 돌아오는지 이미 알고 있었지. 비가 오는 날에는 집사람과 함께 자네 집에 텔레비전 보러 다니는데 자네 어머니가 알려주시더라고. 그리고 시간 되면 자네를 데려다 달라고 하셨어. 그래서 그 며칠은 오후 3시가 되면 집 앞이나 탈곡장에서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지.”

나는 “어쩐지 매번 오라버니가 보인다 생각했죠. 폐를 끼쳐드려서 정말 미안하네요. 길이 점점 좁아져서 매우 걷기 힘드네요. 몇 년만 더 지나면 길이 없어질까 봐 걱정이네요.”라고 했다. 그러자 유량 오라버니가 말했다. “각자 길을 파서 자기 밭을 넓히니 길이 없어지는 거지.”

유량 오라버니의 제수인 얼바오는 나이가 마흔셋 또는 마흔넷 정도 되는데 아이가 없었고 매우 뚱뚱했다. 시골 사람은 브래지어를 잘 입지 않아 두 개의 주머니만큼 한 큰 젓가슴이 옷을 꽉 채웠다. 여름에는 빨아서 아주 얇아진 연한 색의 옷을 입으면 짙은 갈색 젓꼭지가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의 엉덩이는 매우 컸고 걸을 때 흔들거렸다. 그로 인해 그녀의 뒤에서 걷는 사람은 옷음을 참느라고 너무 괴로웠다. 웃고 싶어도 웃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얼바오는 씩씩하고 목소리는 거칠었으며 사람을 보면 바로 친해졌다. 동글동글

한 얼굴, 짙은 눈썹과 큰 눈, 두툼한 입술, 웃을 때는 입이 매우 컸다. 어린애처럼 순진한 구석이 있는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다. 얼바오의 바깥사람 천유화(陳友華)는 키가 컸지만, 눈이 사시였다. 그는 정직한 농민이었는데 말수가 적은 편이었다. 얼바오와 유화는 매우 다정한 부부였다.

어느 날, 얼바오가 낫선 할머니와 함께 우리 집에 왔었다. 어머니에게 소개하면서 말했다. “이분은 리씨 마을의 할머니예요.”

리씨 할머니는 농촌의 다른 할머니들과는 좀 달라 보였다. 할머니는 몸체가 훌쩍했고 머리를 반듯하게 빗어 올렸으며 이마에는 골짜기 같은 주름이 보였다. 옷차림은 단정했고 깨끗했으며 감췄던 길고 뽀족한 발에는 직접 만든 형걸신을 신고 있었는데 잘 맞아 보였다. 말할 때 소리는 가늘고 은은하여 쓸쓸한 느낌이 들었다. 첫 만남부터 리씨 할머니는 어머니와 이야기가 잘 통했고, 하소연 상대를 찾은 것만 같았다. 할머니는 팔자가 고달프다고 했다. 친정은 대지주이고 시댁도 부잣집이라서 해방 후 지주 집안으로 몰려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한다. 남편은 할머니를 두고 50세가 되기 전에 돌아가셨다. 할머니는 당시 늙지도 않고 젊지도 않아 다시 시집가기도 힘들었고 아이 셋을 데리고 애달픈 나날을 보냈다고 한다. 지주 집안으로 몰렸기 때문에 아들 셋은 장가도 못 갔고 큰아들은 올해 벌써 마흔일곱 살이 되었다고 했다. 그러다가 할머니는 많은 슬픔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몰려와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때 얼바오가 다가와 말했다. “할머니는 정말 안 됐어요. 아들 셋이 다 장가도 못 갔고, 남들은 이 나이면 벌써 자손이 가득한데.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은 나와 같이 부처님을 믿고 자식이 장가를 가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빌 수밖에 없네요. 저는 부처님께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빌고 있어요.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상관없어요. 바깥사람이 저한테 너무 잘해줘서 아이를 못 낳으면 너무 미안해요.”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다. “얼바오, 내가 보기엔 자네가 애 없을 사람 같지 않아. 바깥사람 데리고 병원에 가봐. 누구 문제인지 한번 검사해봐.”

얼바오는 그 말을 듣고 앉은 의자가 움직일 만큼 크게 웃더니 연거푸 말했다. “제 바깥사람은 문제없어요. 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그날 리씨 할머니와 얼바오는 우리 집에서 점심을 먹었다. 밥을 먹고 나서 얼바오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전에 없던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오늘 두 분께 부탁할 일이 좀 있는데요. 절에 가서 관음보살을 흠쳐다가 집

에서 공양하려고 해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듣기로는 흠쳐 온 부처님이 더욱 영험하다고 하네요. 난 아이를 갖고 싶어 미치겠어요. 자비로운 관음보살을 집에 모시고 매일 공양하면 언젠가는 영험하여 아이를 낳게 해주시겠죠.”

어머니는 궁금해서 물었다. “어떻게 흠치려고? 절에 스님이 지키고 있을 텐데.” 그러자 얼바오가 대답했다. “우리 셋이 향을 들고 부처님께 절할 때면 스님이 자리를 뜰 거예요. 그때 가서 제가 그 관음보살을 옷 밑에 숨기고, 두 분이 앞에서 걷고 제가 그 뒤를 바짝 따라가면 스님도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어머니가 또 물었다. “들키면 어떡하려고?”

그러자 얼바오가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문제도 없을 거예요. 그 스님은 연세도 있고 눈도 잘 안 보여서 전혀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어머니는 흔쾌히 따라나섰다. 절에 도착하자 세 사람은 향을 피우고 부처님 앞에 엎드려 합장하고 절했다. 얼바오는 절하면서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어머니는 얼바오가 어떻게 관음보살을 옷 속에 숨겼는지 전혀 눈치채지도 못했다. 얼바오의 말만 들었다. “이젠 늦었네요. 집에 갑시다.”

세 사람은 방석 위에서 일어났다. 얼바오는 얼굴이 발그레해지고 눈이 환한 빛을 띠면서 두려움 속에서도 은밀히 희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의 얼굴은 온통 의아함과 의혹이었다. 설마 얼바오가 이미 관음보살을 흠쳤단 말인가? 어머니와 리씨 할머니는 앞에서 나란히 걸었고 얼바오는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갔다. 세 사람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절에서 나왔다.

탈곡장을 지나면 울퉁불퉁한 좁은 내리막길이였다. 얼바오는 주위를 둘러본 후 리씨 할머니에게 말했다. “봉지를 꺼내주세요.”

그랬더니 리씨 할머니가 재빠르게 허리에서 희끄무레한 자물쇠 달린 길고 좁은 봉지를 풀어내더니 두 손으로 벌렸다. 얼바오는 본능적으로 사방을 둘러보았다. 석양빛 속에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자 바로 저고리 자락에서 한 자 남짓한 관음보살을 꺼냈다. 관음보살은 온몸이 금빛으로 빛났고 연꽃 위에서 있었으며 왼손에는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다. 웃는 얼굴은 매우 자상했다. 얼바오는 얼른 봉지를 봉했다. 그제야 세 사람은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일은 비로소 끝났다.

그때부터 얼바오는 집에서 경건하게 관음보살을 공양하였고 여러 곳에 다니면서 부처님께 빌었다. 그렇게 또 1년이 지났다. 하지만 그녀의 배는 군살 외에는 그다지 변화가 없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그것을 보고 답답하기 그지없었다. 미

신만 믿고 과학을 믿지 않는 그녀에 대해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어느 날, 얼바오가 기쁨으로 가득 찬 얼굴로 찾아와 비밀스럽게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곧장 침실로 들어가 앉더니 “양 할머니, 제 배를 만져봐요. 예전보다 더 커진 것 같지 않아요? 임신한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옷을 걷어 올리고 어머니에게 배를 만져 보게 했다.

어머니가 얼바오의 뱃가죽을 만지자 마치 부드러운 비단을 만진 듯 촉감이 매우 좋았다. 하지만 안에 아이가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어머니는 말했다. “난 모르겠어. 생리가 언제부터 안 왔는지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자 얼바오가 말했다. “양 할머니,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마 시간이 좀 됐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말했다. “얼바오, 넌 정말 멍청한 건지 아니면 멍청한 척하는 건지 모르겠네. 그렇게 중요한 일도 기억 못 해. 근데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아.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면 돼. 돈도 얼마 안 들어. 금방 알게 될 거야.”

그러자 얼바오가 말했다. “바지 벗는 게 싫어요. 부끄러워요.” 어머니는 그 순박한 표정을 보고 크게 웃고 말했다. “자네는 참 아무것도 모르네. 부처님을 공양할 줄밖에 몰라. 소변만 좀 받으면 돼. 내가 같이 가줄까?”

얼바오는 또 말했다. “싫어요. 안 가요. 진짜 임신한 게 맞으면 두 달만 지나면 티가 나겠죠. 20년을 넘게 기다렸는데 몇 개월을 못 기다리겠어요?”

어머니는 별수 없이 말했다. “이 사람아, 자네와는 말이 안 통하는군. 마음대로 해.”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얼바오는 리씨 할머니와 함께 부처님께 공양하러 갔다. 얼바오의 바깥사람 유화는 집을 나서는 얼바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 가닥 희망이 보이는 듯했다. 남자가 마흔이 넘었으니 정말 자신의 아이를 갖고 싶은 것이다.

유화는 등받이가 있는 나무 의자에 조용히 앉아 옆에 있는 작은 탁자 위에서 이미 재단한 작은 판지 한 장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녹슨 작은 철갑을 꺼냈는데, 안에는 담배가 가득 들어있었다. 직접 심어서 잎을 말린 후 가늘게 썰어놓은 담배는 맛이 진했다. 그가 판지로 말아서 만든 담배는 매우 정교했다. 불을 붙이는 쪽은 나팔 모양이고 피우는 쪽은 가늘었는데 빨 때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조금 비틀어 버리면 빨기가 편했다. 유화가 탁자 위의 성냥을 그어 담배에 불을 붙인 후 깊이 들이빨자 콧구멍에서 바로 연기가 뿜어나왔고 작

은 동그라미가 줄줄이 만들어져서 점점 더 높이 솟아올라 그의 머리 위에서 피어올랐다.

담배를 다 피우고 나서 유화는 바짓가랑이를 걷어 올리기 시작했다. 허벅지까지 높이 말아 올렸다. 오늘은 발을 두 마지기 갈아야 했다. 그는 일어나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집 밖의 처마 밑으로 가서 손을 뻗어 벽에서 소 채찍을 가져오고 벽 옆에 세워져 있는 쟁기를 어깨에 메었다. 유화의 모든 행동은 매우 느렸다. 느긋한 성격이라 말하는 것조차 느렸다. 그는 외양간으로 걸어가서 황소를 끌어냈다. 그 황소는 삼 형제의 공유재산으로 튼실하게 키웠으며 온순하고 일도 잘했다. 농사꾼은 소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온 가족은 그 소를 보배처럼 여겼다.

유화는 소를 끌고 밭으로 들어갔다. 유화가 멈추자 소도 멈췄다. 유화는 어깨에서 쟁기를 내려놓고 소 멧대를 들어 소의 목에 씌웠다.

바로 그 순간에 일이 생긴 것이다. 그 황소는 갑자기 긴 소뿔로 유화를 찔렀고 유화는 “으악!” 하고 소리를 질렀다. 소뿔은 바로 유화의 배를 찔렀는데 유화는 그렇게 소뿔에 걸려 두 발이 땅에 끌린 채로 피를 줄줄 흘렸다. 논바닥의 물은 붉게 물들었다.

그날 유화의 형 유량과 동생 유린은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일하러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그 장면을 목격했다. 그렇지만 그때는 이미 유화가 죽어버린 뒤였다. 유화는 눈을 부릅뜨고, 이를 드러내고, 입을 헤벌리고 있었다. 그런 비참한 모습은 누구도 차마 더 쳐다볼 수 없었다. 그 황소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모르는 듯,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멍하니 밭에서 있었다. 두 형제는 용기를 내어, 한 사람은 소뿔에 찌힌 유화를 들어냈고 다른 한 사람은 힘껏 황소를 끌어당겼다.

우리 마을에는 미신이 있었는데, 밖에서 죽은 사람은 집에 들어가면 안 되었다. 그래서 유화의 시신은 집 밖에 놓여 있었다.

집에 돌아온 얼바오는 바깥사람이 죽어서 문짝 위에 꼳꼳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다. 겨우 얼바오를 깨우자 얼바오는 가슴을 치며 심장이 찢겨 나갈 듯이 울면서 여러 번 실신했다. 다시 깨어났을 때, 울 힘조차 없어서 소리 없이 나직이 흐느끼며 슬퍼했다.

그 황소에게는, 누구도 감히 가까이 가지 못했다. 누군가는 소가 미쳤다고 했다. 소가 미치지 않고서는 자기 주인을 공격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나중에 소를 죽이려고 사람을 불러 왔는데 소는 백정이 칼을 들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



을 보고도 반항하지 않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참, 죄를 짓는 느낌이 들었다.

여자는 남편이 죽은 뒤 일 년 동안은 다른 집에 다녀서는 안 되었다. 어머니는 얼바오가 걱정되어 천씨 마을에 직접 찾아갔다.

어머니는 얼바오를 보고 너무 놀랐다. 유화가 죽은 지 일 년도 안 되는 사이에 얼바오의 둥글고 통통했던 얼굴은 앙상하게 뼈만 남았고 노랗게 녹이 쓸어버린 것처럼 윤기가 하나도 없이 잿빛이 되어있었다. 몸도 기 빠진 풍선처럼 야위었고 가슴은 평탄한 길바닥 같았다. 두 눈은 닳을 잃었고 말도 별로 하지 않았으며 웃지도 않았다. 그 훔쳐 온 관음보살은 옆에 내팽개쳐진 채 먼지만 쌓여 있었다.

유화가 죽은 지 1년이 지나 얼바오가 우리 집에 찾아 왔다. 어머니는 매우 기뻐하며 얼바오를 껴안고 화로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의 방은 화로에 불을 지폈기에 매우 따뜻했다. 어머니는 얼바오를 의자에 앉힌 후 차를 끓이려고 했다.

그때, 얼바오가 어머니의 손을 덥석 잡더니 말했다. “양 할머니, 할 얘기가 있어요. 몇 개월 동안 아래가 짹짹해요. 자꾸 뭔가가 흘러나와요. 피도 섞여 있고 냄새도 나요. 이게 무슨 병에 걸린 거죠?”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부인병이야. 여자들이 걸리는 병이지. 병원에 가서 검사받아야 해. 더는 지체하지 마. 자네 좀 봐봐. 똥똥했던 몸이 지금 이렇게까지 말라버렸잖아. 내가 봐도 마음 아파.”라고 했다.

얼바오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검사받을 때 바지를 벗어야겠죠?”

그러자 어머니는 말했다. “의사가 여자야. 다들 똑같이 생겼는데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내가 함께 가줄게.”

얼바오는 어머니에게 폐를 끼치기가 미안해서 손윗동서와 함께 도시 병원으로 진찰받으러 갔다.

또 한동안 얼바오를 보지 못했다. 어머니는 얼바오가 검사한 결과가 어떤지 은근히 걱정되었다. 그날 특별히 또 천씨 마을에 찾아갔다가, 얼바오가 자궁경부암 말기라고 진단받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의사는 얼바오 동서에게 입원해도 소용없으니 돈을 낭비하지 말고 집에 데리고 가서 원하는 게 있으면 최대한 맞춰주라고 했다. 어쨌든 남은 날이 얼마 없었다.

얼바오 동서는 그 일들을 어머니에게 들려주었다. 그때 얼바오는 이미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말소리에 눈을 뜨고 어머니를 보더니 눈물이 눈가에서 주르륵 쏟아졌다. 말할 힘도 별로 없는 얼바오의 말소리는 마른 장작처럼

중도에서 끊어졌고 실오라기처럼 모두 갈라져 한 줄기 바람처럼 가벼웠다. 어머니는 애써 들으려 했지만 결국 알아듣지 못했다.

얼바오 동서인 유량의 집사람은 몸체가 아주 작고 야위었는데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얼바오를 보살펴주었다. 그래도 방에는 비린내가 심하게 났다. 어머니는 꼭 참고 한참을 앉아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후, 얼바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머니는 매우 슬피하시며 급히 폭죽과 향, 그리고 제사 지낼 때 쓰는 누런 종이를 사서 추모하러 갔다. 어머니는 중얼거렸다. “하늘도 무심하지. 착한 사람이 또 한 명 죽었네.”